

김성군 변호사
160 main street
Stoneham, MA02180
781.438.6170
www.songkimlaw.com

보스톤 코리아

BOSTONKOREA.com

뉴스타 부동산
주택 / 콘도
비즈니스 / 건물
617.921.6979
www.newstarrealty.com
Diana Park.com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161 Harvard Avenue, Suite 13,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광고문의 전화: 617-903-3010

ISSN 1554-6942

월시 신년연설 아이디어 가득

노인 수도 요금 30% 감면,
교육정책 확대키로
홀름하지만 비싼 계획
재정 언급은 없어



마틴 월시 시장이 지난 13일 보스톤 심포니 홀에서 신년연설을 전했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유대인 기자 = 마틴 월시 보스톤 시장의 신년연설이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아이디어로 주목받고 있는데 재정에 관한 우려가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지난 13일 화요일, 월시 시장은 2,500여명이 모인 보스톤 심포니 홀에서 시정 연설을 전달하며 교육환경 개선, 경제 활성화 등에 대한 구체적인 안건을 제시했다.

연설에 앞서 그는 “오늘 모인 것은 보스톤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얘기하기 위해서다. 시장으로서의 나의 임무는 올 한 해나 지금 당장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올 날을 대비해 길을 마련하는 것” 이라고 밝혔

다. 대표적으로 올해부터 보스톤 하수인은 311로 통일된다. 기존의 번호(617-635-4500)는 기억하기 어려워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야 했다. 또한 스마트폰의 다양한 앱을 통해 주차요금을 지불할 수 있게 된다. 월시 시장은 “주차 미터기 앞에서 25센트 동전을 찾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며 “파크보스톤(Park-Boston)이라는 앱을 지금 당장 다운

받아 사용할 수 있다” 고 전했다. 이날 13일부터 보스톤 상하수도위원회(Boston Water Sewer Commission)는 노인과 장애인에게 수도요금 할인을 30%까지 적용키로 했다. 교육 환경 개선에 대해 월시 시장은 8학년 이하 모든 학생의 교과 과정에 퀄리티 러닝타임(Quality Learning Time) 40분을 추가하는 사안을

▶▶2면으로 계속

보스톤 올림픽 개최 후보지 선정에 한인들 '화색'

세금 인상 가능성에 일부 한인 우려

관련 기사 9면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유대인 기자 = 보스톤이 2024년 올림픽 미국 개최 후보지로 선정된 가운데 한인들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뉴잉글랜드 보스톤 한인회 한선우 회장은 “보스톤에서 올림픽이 개최된다면 한인 상권에 많은 도움이 되고 결과적으로 도시의 인지도가 많이 올라갈 것으로 생각된다”며 “더불어 한인타운의 형성도 기대된다”고 전했다.

특히 직접적인 상권에 포함되는 한인 업체들은 보스톤 올림픽을 통해 관광객이 불러올 경기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파이낸셜 디스트릭에 위치한 퓨전 한식당 코이의 매

니저 장 씨는 올림픽 소식에 한껏 들떠 있다. 장 씨는 “한식이 널리 알려지고 있는 추세로 국제적인 관광객들이 한식에 큰 관심을 보일 것 같다. (식당의) 위치가 좋아 많은 손님들이 몰려들면 좋겠다”고 전했다.

보스톤 올림픽 유치에 찬성표를 던지는 것은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업체들뿐만이 아니다. 중심가에서 떨어져 직접적인 상권에 포함되지 않는 한인 업체들도 예상외로 올림픽 개최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메드포드에 위치한 한식당 창기와의 김 사장은 “분명 올림픽이 개최되는 장소 주변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한인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우리 비즈

▶▶7면으로 계속

이민법
상법
민·형사소송
부동산 매매·부동산법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617-504-0609
Cambridge Office
929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www.lookjs.com

1불의 행복! 대박이벤트!!

지금, IACE 를 통하여 미주지역에서 한국으로 가시는 왕복항공권을 구매하시면, 체류기간 동안,

인천 ⇄ 도쿄 나리타 항공권
+ 동경 2박3일 호텔숙박권
이 믿을수없는 가격,

\$1에 모십니다!

Japan. Endless Discovery. *미국과 인천공항의 왕복편은 지정된 항공사의 티켓입니다. *도쿄 내 호텔, 이코노미 호텔 기준 *예약상황과 좌석상황에 따라 프로모션 가격에 변동이 생길수 있습니다

IACE TRAVEL Korean Line
CONNECT TO THE WORLD
24H ONLINE BOOKING
WWW.IACE-KOREA.COM
1-866-619-4223
info@iace-korea.com
3655 Torrance Blvd, Suite 100, Torrance, CA 90503

NEWSTAR Realty of Boston NEWSTAR BOSTON

애나 정
최고의 전문가에게서 최상의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뉴스타 부동산 전국 1위
주택 · 콘도 · 비즈니스 · 빌딩 · 렌트
MA, NH Licensed
Million Dollar Guild
CLHMS, CRS, CIPS, SRES, ABR
617.780.1675
annajung@newstarrealty.com

MORTGAGE MASTER

Ezer Lee
NMLS #859995
Mortgage Loan Originator
P (781) 591-2722
F (617) 395-6865
Kakao Talk ID: ezelee
elee@mortgagemaster.com
www.mortgagemaster.com/elee
MA LIC # ML0859995
Languages: English + Korean
44 Trapelo Road, Belmont, MA 02478
Mortgage Master, Inc. NMLS #4251/MA
Lender/Broker MC4251

뉴스타 부동산의 나원태, 제이슨 전의
경험과 전문성으로 명쾌한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Lexington, Newton, Allston, Brighton, Cambridge, Boston

MA, R 전 지역의 리스팅 구축, 빠른 정보 전달, 정확한 정보, 철저한 분석으로 최적의 결과 창출, 완벽한 팀워크를 통한 차별화된 부동산 마케팅 제공

2013년, 2014년 연속 2년
뉴스타 부동산 미주전체 1위
풍부한 경험과 실적이 증명합니다

나원태 Realtor
미주 전체 뉴스타 부동산 금탑 다수 수상
Direct: 617.642.3156
wonra@newstarrealty.com

제이슨 전 Realtor
미주 전체 뉴스타 부동산 금탑 다수 수상
Direct: 617.642.5670
jason.jeon@newstarrealty.com

공화당 주지사 찰리 베이커 시대 열린다

일자리 창출,
전기 유통 시스템 개선,
차터 스쿨 설립 중요성



찰리 베이커 매사추세츠 주지사의 취임식이 지난 8일 의사당에서 열렸다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유대인 기자 =매사추세츠 신임 주지사 찰리 베이커의 취임식이 지난 8일 목요일의 의사당에서 열림에 따라 공화당 주지사의 공식적인 직무수행이 시작되었다.

취임식 연설을 통해 베이커 주지사는 “매사추세츠 주지사로 임명되어 영광이다. 매사추세츠의 다음 역사를 쓸 시간이 되었다” 고 전했다. 그는 “특히 이번 임기를 통해 주 정부의 재정 적자 문제를 해결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제를 이룩할 것” 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베이커 주지사는 매사추세츠의 실업률 5.8%에 대해 “이는 결코 현실적이지 못한 수치로, 취업을 포기했거나 여전히 일자리를 찾지 못한 수십만명이 포함되지 않은 통계” 라며 더욱 빠르고 투명한 정책 결정을 통해 경제를 살리겠다고 전했다.

또한 전국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주세를 보이는 전기 요금이 뉴잉글랜드 지역에만 급속히 증가했다며 유통 시

스템의 개선과 탄소 배출량 규제안의 강화를 해결책으로 꼽았다.

마지막으로 베이커 주지사는 공립 학교가 교육의 중추가 되어야함을 강조하며 “학업률이 저조한 학군에 차터 스쿨(Charter school)이 점차적으로 늘어야 한다” 고 전했다. 이어 “매사추세츠만 해도 46,000명의 학생들이 차터 스쿨 대기자 명단에 올라있다” 고 밝혔다. 경제, 교육, 복지 등을 아우르는 베이커 주지사의 연설에 매사추세츠 시민들은 박수를 보내며 새로운 임기에 대한 기대를 보였다.

카린 폴리토 행정부지사는 이날 취임식에 앞서 “오늘이 바로 그날이다. 우리가 이뤄내야 하는 것은 민주당

이나 공화당의 계획이 아니라 좋은 계획” 이라고 전했다.

영향을 밀도는 기운에 모든 순서는 실내에서 진행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마틴 월시 보스톤 시장, 밋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 스캇 브라운 전 매사추세츠 상원의원, 케리 힐리 전 매사추세츠 행정부지사,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 등이 참석해 베이커 주지사의 취임을 축하했다.

드벌 패트릭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는 지난 7일 이임식을 겸한 ‘론워크’ 를 이행했으며 새로운 주지사의 취임식이 거행된 8일 남미로 여행을 떠났다.

doyo9146@bostonkorea.com

혁신적인 도시 보스톤, 21세기 이끌 세계적 리더

▶▶1면에 이어서

놓고 보스톤교사노조(BTU)와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등학생의 대학 진학을 장려기 위한 석세스 보스톤 칼리지 컴플리션(Success Boston College Completion) 프로그램도 3배나 확장했다고 전했다.

CBS 칼럼니스트 존 켈러는 월시 시장의 연설에 대해 “전부 맞는 소리지만 이에 따른 재정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고 지적했다. 그는 “올림픽 추진을 포함한 월시의 아젠다는 훌륭하지만 비싼 계획” 이라며 “보스톤납세자들은 무작정 환호할 일이 아니

다” 라고 일침을 놓았다.

한편, 주지사 찰리 베이커는 이날 행사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의 공보 부수석 빌리 핏맨은 “주지사는 현재 몸이 좋지 않다. 참석하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전했다” 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 앞서 도체스터 케니스쿨 마칭밴드의 연주와 일라이자 록의 성조기 제창, 시인 대니엘 리그로스 조지스의 시 낭송, 보스톤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하이든 현악 4중주 연주가 이어졌다.

doyo9146@bostonkorea.com



월시 시장 연설에 앞서 가수 일라이자 록이 성조기를 제창하고 있다

<진료 과목>

*일반 치과 *잇몸 질환 치료
*신경 치료 *보철 전문
*보톡스&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MassHealth,
etc.

케임브리지 덴탈

큰 웃음을 드립니다

Cambridge Dental Associates
126 Inman Street
Cambridge, MA 02139
(617) 492-8210
한국어 진료 상담 가능

www.gracesalonsboston.com
영업 시간 월요일~금요일:10시~7시
토요일: 9시~8시
예약을 하시면 기다리시지 않아도 됩니다.

각종 헤어 컷과 펴 그리고 스킨 케어
젊음과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곳!!

매직 스트레이튼	Magic Straightening
브라질 케라틴 트리트먼트	Brazilian Keratin Treatment
Threading	Threading
디지털 펴 & 셋팅 펴	Digital Perm & Setting Perm
아이론 펴	Iron Perm
헤어 칼라링	Coloring (GOLD WELL 사용)
헤어 메니큐어 (코팅)	Hair Manicure
메니큐어 & 페디큐어	Manicure & Pedicure
왁싱	Waxing
얼굴 마사지	Facials
웨딩 서비스	Wedding Services

Grace Salon

프리미엄 토탈 헤어 살롱

그레이스 컷팅 클럽

617-623-2430

56 Union Sq. Somerville, MA 02143
한국중합식품 옆 건물에 위치해 있습니다.

MIT 한인학생, “아시아 비즈니스 날날히 파헤치다”

**대규모 비즈니스 컨퍼런스
3월 예정
기술, 창업, 금융, 제조업
4개 분야 초청연사
화려한 라인업**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유대인 기자 = MIT 한인학생 주최의 아시아 비즈니스 컨퍼런스가 오는 3월로 다가오는 가운데 화려하고 풍성한 스폰서와 초청 연사의 라인업이 구성되어 보스톤 지역 학생들과 전문가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경영대학원 슬로언 2학년에 재학 중인 백승민 씨는 중국인 학생 지차오우(Zichao Du) 씨와 함께 대규모 비즈니스 컨퍼런스를 기획했다. 500여명의 참석인원이 예상되는 이번 행사는 “아시아 비즈니스 날날히 파헤치다(Demystifying Business Practice in Asia)” 라는 테마로 열린다.

백 씨는 “미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아시아 문화와 비즈니스에 대해 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대화해보면 모두가 수박 겉핥기 식으로 알고 있는 것 뿐이다” 며 아쉬운 마음에 이번 테마를 기획했다. 아시아 비즈니스에 대해 보다 깊고 업데이트 된 정보를 제공하고자 아시아에 있는 유망

한 회사의 대표들에게 연락을 취하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보스톤의 학생 및 전문직 종사자 300여명에게 돌린 설문조사를 통해 많은 이들의 관심사가 기술, 창업, 금융, 제조업에 몰린다는 것을 발견했다. 백 씨는 네 분야의 세계적인 아시아 전문가들을 한 자리에 불러 모으기로 했다.

이날 패널의 초청 연사로는페이팔 미디어 네트워크 최고운영책임자인 데이비드 장, SK텔레콤 벤처 파트너 데이비드 리, 케이큐브(Kcube) 벤처 대표 지미 립, 지티 타이어(Giti Tire) 회장 엔키 탄, 스파크랩스(Spark-Labs) 공동 창업자 프랭크 미헨 등이 있다. 빌 올렛, 마이클 쿠수마, 야셴 황 등 MIT의 저명한 교수진도 패널로 나선다.

이 외에도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연락을 주겠다는 연사가 많아 리스트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행사의 프로그램 순서와 연사 배정은 추후에 공지될 예정이다.

올해와는 달리 과거 컨퍼런스는 자금 부족으로 매년 단출한 행사로 진행되어 왔었다. 이번 이벤트는 이전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프로그램 구성이나 스폰서 및 초청연사 섭외에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백 씨는 학교의 도움을 최대한 구



MIT 아시아 비즈니스 컨퍼런스 임원들

해보자는 계획으로 지난 1년간 경영대학원 학장 및 각 부서 대표들과의 수도 없는 미팅을 통해 사람들을 소개 받았다. 무엇보다 자발적으로 행사 기획에 힘쓰며 서로 동기부여를 해준 27명의 임원들이 있었기에 풍성한 결과를 볼 수 있었다는 것이 백 씨의 말이다.

아시아인들의 교류를 장을 마련하기 도하는 이날 행사는 미국 사회 내에서 가진 역량에 비해 큰 주목을 크게 받지 못하고 있는 아시아 비즈니스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취지도 포함하고 있다.

백 씨는 “특히 한인사회가 아시아 비즈니스의 중심이 되어 아시아를

대표하는 의미 있는 역할을 한다면 한인사회와 미국사회의 발전에 공헌할 수 있다” 고 전했다.

보스톤 지역의 학생 및 직장인 모두에게 열려 있는 컨퍼런스는 3월 7일 토요일 MIT 미디어 랩에서 열린다. 참가 신청은 다음 링크 (<https://mitabconference.eventbrite.com>)를 통해 할 수 있으며 2월 8일까지 할인가격(MIT 학생 \$25, 타학교 학생 \$30)이 적용된다.

아시아 비즈니스 컨퍼런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나 스폰서 문의는 컨퍼런스 홈페이지(www.mitasiabusiness-conference.com)를 통해 할 수 있다. dyoo9146@bostonkorea.com

보스톤코리아
BOSTONKOREA.com

영의 QR 마크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시면 보스톤코리아 홈페이지로 자동 연결됩니다



Publisher & C.E.O
장명술 Myong Sool Chang

Writer
한새벽 SaeByuk Han
정성일 Sungil Jung
박현아 HyunAh Park
유다인 Dain Yoo

Graphic Designer
정한웅 HanWoong Chung

Marketing
최성우 SeongWoo Choi

Web Master
정한웅 HanWoong Chung

Contribution part

백린 Rin Paik
신영각 YoungGak Shin
공정원 JungWon Gong
김은한 EunHan Kim
백영주 YoungJoo Paik
성기주 KiJoo Sung
신영 Young Shin
윤희경 HeeKyung Yoon
이명덕 MyoungDuck Lee
앤드류곽 Andrew Koak
앤젤라엄 Angela Um
정준기 JoonKi Jung
이선영 SunYoung Lee
소피아 Sophia
홍하상 HaSang Hong
오승준 Albert Oh
이명원 Myung Won Lee
장동희 Donghee Jan
김화옥 HwaOk Kim

& TV 사업국
617-955-9459

재휴일제 | 연합뉴스 | 미신협 회원사 | 세한연 회원사



맞춤식 교육 Mathematics • Verbal • Testing Ski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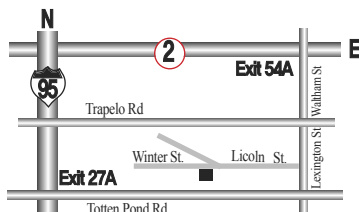
SAT Plus

SAT Plus Fall Schedule

Starting Setember 6, 2014

Class	Time
PSAT / SAT I Prep (Grade 11)	9:00 AM – 11:00 AM Saturday
PSAT / SAT I Prep (Grade 10)	11:30 AM – 1:00 PM Saturday
READING / MATH (Grade 9)	1:30 PM – 3:00 PM Saturday
SAT I Prep (Grade 12)	4:00 PM – 6:00 PM Saturday
Individual Tutoring	3:00 PM – 10:00 PM Sunday – Thursday

Rocky Hill School 과학 및 수학교사 Disciplinary Committee
MIT 생물학 학사학위
Who's Who Teachers of America-1992년 선출
Tandy Award Finalist(수학 및 과학분야 우수교사 표창)
지난 10년간 SAT I 및 SAT II 개인교습



SATI 및 SATII 준비 전문학원

TEL: 781-398-1881

2 Winter Street Suite 104, Waltham, MA 02451



“항상 Tutoring이 가능합니다!!”

English Writing, Biology, History, Chemistry, Math, Physics

10년 이상의 지도경력으로 우수한 학생을 배출하신 한상훈 선생님! 항상 지도하시고 계십니다.

여대생 스폰 '슈거 대디' 보스톤에도 만연

여성 인권 비영리단체
"노코멘트 하겠다"
BU, 스폰 현상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대학 15위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유다인 기자 = 젊은 여성과 데이트를 즐기며 대가로 학비 등을 지원하는 스폰, 일명 '슈거 대디 (Sugar Daddy)' 를 찾는 여대생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보스톤에도 이같은 현상이 만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학생 스폰 주선업체인 시킹어레이지먼트(Seeking Arrangement)는 보스톤대학(Boston University)이 스폰 현상이 가장 빠르게 급증하는 미주 대학 15위를 차지했다고 최근 조사를 통해 밝혔다.

지난해에만 178명의 보스톤대학 학생들이 주선업체에 신규가입했으며 2015년 1월 첫째 주를 기준으로 총 296명의 학생들이 가입되어 있다. 한국인 학생을 따로 집계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중 17%가 아시아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킹어레이지먼트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하버드대학과 노스이스턴 대학은 보스톤대학에 이어 스폰 관계가 가장 많은 보스톤의 학교로 밝혀졌다. 해당 업체에 가입된 학생은 각각 260명과 188명이다.

시킹어레이지먼트의 홍보 매니저 브룩 유희는 "서로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두 사

람이 만나 데이트하는 것일 뿐이다. 어린 학생들은 한 달에 평균 \$3,000가량의 선물(?)을 학비, 사치품, 하우스 렌트비 등으로 받고 돈 많은 중년의 남성은 즐거운 데이트 시간을 갖는 것이다" 라고 전했다.

성관계를 포함하는 것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냐는 질문에 "매춘 행위는 불법이다. 우리는 단지 연인을 만들어주는 매개체로서 두 성인 남녀의 관계(relationship)에서 성관계는 전적으로 그들이 결정할 부분" 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보스톤대학의 교내신문인 '더 데일리 프리 프레스' 에 한 학생이 지난해 11월 슈거 대디에 관한 노골적인 칼럼을 게재했다.

케이트 호프버그는 칼럼을 통해 "슈거 대디 관계를 위해서는 할아버지 나이의 남자와 데이트하고 심지어 잘 수도 있는 것에 대해 아무렇지 않아야 한다. 60세의 남자와 데이트를 해서 학자금을 갚을 수만 있다면 160살이라도 좋다" 고 밝혔다.

보스톤대학에 재학 중인 이지민(가명) 학생은 칼럼을 읽고 충격을 금치 못했다고 한다. "아무래도 미국인들이 한국인보다 개방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것 같다" 며 "한국인 커뮤니티는 워낙 작고 입소문도 빨리 퍼진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 쉬쉬하는 분위기도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절대 공유하지 않을 것" 이라고 전했다.

이러한 스폰 관계를 직접적으로 비판하고 문제 삼는 단체는 찾아보기 힘들다. 심지어 보스톤 다수의 여성 인권 비영리단체는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비영리단체 우먼스 유니온(Women's Union)은 대학생 사이에 만연한 슈거 대디 관계에 대해 "코멘트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라며 입장을 밝히는 것을 꺼려했다. 우먼스 로(Women's Law)의 여성 인권 변호사 스테이시 사버 또한 "코멘트하지 않겠다" 고 전했다.

bostonkorean@hotmail.com



보스톤산악회 정기산행 공지

2015년부터 둘째, 넷째 주 토요일로 변경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보스톤산악회가 오는 24일 토요일 뉴햄프셔 소재 마운트 피어스(Mt. Pierce/4,312피트)로 정기산행을 간다.

왕복 5.6마일의 크로우포드 패스(Crawford Path)를 따르는 이번 산행의 난이도는 5단계 척도법으로 4이다. 산행 시간은 약 5시간 정도로 예상된다.

준비물은 배낭, 등산화 착용, 방한복, 우의, 털모자, 스틱, 장갑, 스파츠, 보온병 및 온수, 간편중식 등이다. 특히 겨울 산행에는 아이젠(마이크로 스파이크 혹은 크램폰)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산행 당일 집결은 울스톤 공영주차장에서 오전 6시 30분, Park&Ride Exit 2 of RT93에서 오전 7시 15분에 하던 된다. 지참해야 하는 회비는 \$20이다.

산행 신청은 산행 전 목요일 22일 오후 6시에 마감하며 신청 시 원하는 조(A 또는 B)와 집결지, 차량 운행 여부를 알려야 한다. 신청 후 개인사정으로 불참하게 될 경우 반드시 사전에 연락해야 한다.

특히 2015년부터는 매달 둘째 주와 넷째 주 토요일에 정기산행을 가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보스톤산악회나 정기산행에 관한 기타 문의는 978-905-5819로 하면 되며 자세한 정보는 카페 홈페이지(<http://cafe.daum.net/bostonmountaineers>)를 통해 알 수 있다.

bostonkorean@hotmail.com

나쁜 치아를 만났다면 좋은 의사를 만나야 합니다.



진료과목
일반치과
신경치료
잇몸질환치료
보철전문
보톡스&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etc...

한국인
진료 상담 가능
응급치료 가능

617.871.1482

캠브리지 덴탈 어넥스
Cambridge Dental Annex



Tel 617.871.1482
Fax 617.871.1483

www.yasuboston.com



야수 레스토랑

자녀를 위해 요리하는 엄마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야수는 작은 나물에서부터 요리 하나하나까지 자녀들을 기르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만듭니다. 직접 만들어 손맛이 들어있는 야수의 음식 - 맛과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야수를 찾아주세요.



단체예약
주문음식

YASU RESTAURANT
Telephone 617.738.2244
1366 Beacon Street, Brookline, MA 02446






부동산 에이전트로 고소득을 올릴 수 있었던 비결



고객을 기다리게 하지 않는다
손님을 중심으로 내 시간을 맞춘다
손님이 원하는 것은 기꺼이 한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뉴스타 보스톤지사가 지난해 미국 내에 매출 1위를 차지했다. 뉴스타 시상식을 취재하는 자리에서 보스톤지사가 1위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았다. LA지역과 기타 전국 지역으로 분할해서 수상하는 가운데 전국 지역의 탑 에이전트 1위부터 3위까지가 모두 보스톤 출신이었다.

한인 부동산이든 미국인 부동산이든 에이전트 들은 수도 없이 많다. 그러나 어떤 회사이든 전국 지역 탑 에이전트에 드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부동산 세일즈 자격증만 따면 소득이 보장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들 수상자들과 인터뷰를 통해 이들이 도달했던 고지로 갈 수 있었던 각자의 방식을 소개해 본다.

2년 연속 뉴스타 최연소 매출 1위 제이슨 전

첫째 고객을 기다리게 하지 않았다. 고객은 응답이 빠른 사람을 좋아한다. 빠른 응답을 위해 지

금도 핸드폰을 끼고 잘 정도다. 아마 고객에게 기다림을 주지 않았던 것이 가장 큰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인다.



둘째, 고객을 가리지 않았다. 보통 집을 파는 것이나 렌트를 하는 것이나 똑같은 시간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전국 1위 정도 차지한 에이전트들은 렌트를 기피한다. 그러나 적은 금액이라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 응대했다. 렌트를 구했던 사람이 몇 년 후에는 반드시 집을 사게 되어 있다.

2년 연속 뉴스타 전국 매출 2위 애나 정

손님 과 일하는 것을 즐긴다. 한국에서도 일했던 부동산 경험을 바탕으로 손님들에게 진심으로 대하는 것이 도움이 됐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제 시간을 손님을 중심으로 맞춘다



는 것이다. 손님이 원하는 대로 시간을 가리지 않고 찾아갔다.

리얼터 공부를 더했다. 6 종류의 부동산 전문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전문인으로서 실력을 갖추는데 최선을 다했다. 이 지식이 손님들에게 더 달 전달된 것 같다. 12월에 6건을 클로징하면서 이에 대한 보답은 받은 거 같다. 특히 광고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뉴스타 전국 매출 2위 신보경

어떤 손님을 만나든지 최선을 다했다. 부동산은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손님에 원하는 것은 기꺼이 한다. 특히 거래가 끝나고 난 후 애프터 케어에도 각별히 관심을 기울였다.



어린 아이 2명을 키우는 엄마로서 정말 바빴지만 시간이 없어서 못하던 말은 성립하지 않는다. 어쨌든 시간은 있다. 특히 뒤에서 희생하면서 뒷바라지 해준 남편 덕에 지금껏 일할 수 있었다. 남편에게 감사한다.

뉴스타 전국 매출 3위 김광오 부사장

마켓을 잘 알아야 한다. 손님들이 물어 보면 바로 대답해 줄 수 있는 공부 필요하다. 개인적으로 15년간의 경험이 중요하다. 특히 과거에는 미국 손님들만 대하다가 뉴스타에서 한국 손님들을 대하면서 한국 손님에게 응대하는 법을 배운 것이 많은 도움이 됐다.



뉴스타 전국 매출 3위 지나 최

실제로는 1년 차이다 보니 손님분들이 저의 스승이라고 생각하고 했다. 익숙지 않았지만 손님들이 코치해주시고 백 대표님도 코치해주셔서 일하면서 배웠다. 특히 손님들에게 바로바로 즉각각각 연락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300% 더 노력을 기울여 열심히 하겠다.



editor@bostonkorea.com



Frank Y. Shin, D.M.D
현 **Tufts** 치과대학 부교수



신영목치과

- 치아 이식 수술 [Implants]
- 금속 없는 크라운
- 미용 치료 (잃어버린 웃음을 찾아 드립니다)
- 응급 환자 당일 치료
- 토요일도 진료함
- 각종 보험 지정 병원

www.drfrankshin.com

617.265.5606

1428 Dorchester Ave. Boston, MA 02122



가주 순두부 & 샤부샤부

한식&일식

2013, 2014년 보스톤 매거진 선정 한식 1위 "가주 순두부"
얼스톤점과 캠브리지점 두곳에서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영업시간은
오전11시~ 밤11시까지 입니다.



얼스톤 지점
56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617) 208- 8540

캠브리지 지점
57 JFK st. Cambridge, MA 02138,
(617) 864- 6868

단체 예약과 문의 가능



스릴 만점 겨울 스포츠 스노우모빌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유대인 기자 = 스틸 넘치는 겨울 스포츠, 스노우모빌이 각광받고 있다. 작동하기도 쉬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스노우모빌은 스키, 스노우보드보다는 대중화되지 않아 더욱 매력적이고 이색적인 스포츠로 남아있다. 뉴잉글랜드의 스노우모빌 트랙을 소개하기에 앞서 지켜야 할 안전 수칙 몇 가지를 짚고 넘어가자.

반드시 지정된 트레일로만 다녀야 하며 물가나 호수 근처에 가서는 안된다. 수면이 얼어있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얼음의 두께가 제대로 측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위험하다. 더군다나 눈이 많이 오면 물가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더욱 어렵다. 표시된 트레일을 이탈하지 않는 것이 스노우모빌을 가장 안전하고 즐겁게 즐길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다.

다른 스노우모빌 탑승자나 자동차 운전자들을 위해 핸드 시그널(Hand Signal)을 익히는 것이 필요하다. 좌회전 시 왼팔을 바깥으로 펴고, 우회전 시에는 왼팔을 90도로 꺾어 위로 치켜 든다. 정차 시 왼팔을 하늘로 높게 들고, 속도를 줄이려면 왼팔을 아래쪽으로 낮게 들어야 한다.

의상 또한 제대로 갖춰 입어야 한다. 추위와 바람을 막을 수 있는 파카를 입어야 하며 가능하면 털실로 짠 스웨터나 장갑은 피하는 것이 좋다. 방수가 되는 부츠는 필수다. 눈발에 반사되는 햇빛을 피하기 위한 선글라스나 고글도 준비해야 한다.

▶노던 익스트림스(Northern Extremes, NH)
1328 US Route-302, Bartlett, NH 03812

603-374-6000
northernextremessnowmobiling.com
뉴햄프셔에 위치한 노던 익스트림은 워싱턴 산과 초코라 산의 겨울 장관을 따라 50마일의 트레일을 내었다. 스노우모빌을 타다가 아름다운 스위프트 강변에서 잠시 쉬 수도 있고 야생 무스나 사슴을 찾아볼 수도 있다.



▶노던 아웃도어스(Northern Outdoors, ME)
1771 US Route 201, The Forks, ME 04985
800-765-7238
northernoutdoors.com
메인 주는 총 13,000마일의 스노우모빌 트레일이 구비되어 있다. 노던 아웃도어스는 그 중에서 가장 뛰어난 시설과 트레일을 보유하기로 유명하다. 스노우모빌 대여 가격은 다음과 같다. 월요일

부터 금요일까지 하프데이(Half Day)는 \$135이며 2인용은 \$150이다. 하루종일 이용할 수 있는 대여료는 1인용에 \$235이며 2인용은 \$250이다. 단, 토요일은 \$15 더 비싸다.



▶톨 팀버 로지(Tall Timber Lodge, NH)
609 Beach Road, Pittsburg, NH 03592
800-835-6343
talltimber.com
뉴햄프셔에 위치한 톨 팀버 로지는 Polaris IQ 600 Touring 2013년 형과 4-stroke Ski Doo MX Z 600 2014년, 2015년형, 4-stroke Ski Doo MX



Z 600를 구비하고 있다. 분위기가 있는 아늑한 별장에서 숙박할 경우 스노우모빌 할인 가격이 적용된다. 만나질 대여료는 1인용에 \$130, 2인용에 \$150이며 일일 대여료는 각각 \$205, \$215이다.

▶스트래튼 스노우모빌 투어(Stratton, VT)

Sun Bowl Road, Stratton, VT 05360
802-379-1483
strattonadventures.com

스키, 스노우보드, 튜빙 등 각종 다양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스트래튼 리조트는 어린이용 미니 스노우모빌도 구비되어 있어 가족이 다함께 놀러가기에 적합하다. 6살 이상 어린이가 직접 운전할 수 있는 미니 트랙은 10분에 \$19이다. 직접 경사진 눈밭에서 스노우모빌을 즐길 수 있는 오프트랙(Off-track)은 25분에 \$36이다. 어른을 위한 1시간짜리 스노우모빌 투어는 운전자 \$100, 탑승자 \$40이다. 한 번의 투어에 허용되는 스노우모빌의 수가 제한되므로 사전에 예약하고 방문할 것을 권장한다.

dyoo9146@bostonkorea.com



무료전화 1-888-666-1708

- 한국, 아시아, 미국내, 유럽, 남미 등
- KE, UA, DL, AA 등 모든 항공사 취급
- 항공권 특별 할인 제공
- 통역, 번역 서비스

유니버스 여행사
대표 최한림
Tel 617.739.2888
www.utsboston.net

Universe travel services
100 Hano Street #23A, Allston, MA 02134

공인 회계사

정진수
CPA / MBA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 IRS문제 상담 및 해결
-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 회계처리 및 감사
-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 용자 상담 및 재무재표 작성
- ▶ 급료(Payroll)서비스

TEL 781-849-0800, 508-580-3946 (한인전용)
FAX 781-849-0848
220 Forbes Rd., suite 206, Braintree, MA. 02184

공인 세무사 김창근

-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회계정리

미 연방정부로부터 공인된 세무전문가
Licensed to Practice Before the IRS

TEL: (781)935-4620 FAX: (781)935-4187
165-M New Boston St. Suite 278, Woburn, MA 01801

아프리카 잠비아 6개월 봉사 경험 나눌터

“보스톤 한인 도움 많이 받아”
6개월간의 봉사 경험 나눌
한인단체 물색 중



(위) 잠비아팀 한인 구성원 이진영, 조경환, 공인정, 신원지, 강한빛
(아래) 잠비아 물고등학교 학생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유대인 기자 = “잠비아에 있으면서 제일 그리웠던 것이 세탁기다. 세상에는 정말 감사한 것들이 많은데, 그것들을 놓치고 부족한 것들만을 좇아 불평, 불만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아프리카 잠비아에서 6개월간의 봉사활동을 마치고 돌아온 이진영 씨의 말이다. 이 씨는 한국에서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다 해외 자원 봉사에 관심을 갖고 윌리엄스타운에 위치한 윈월드 센터를 통해 미국에서 1년 6개월의 프로그램에 시작하게 되었다.

잠비아로 떠나기 전 이 씨의 봉사팀은 보스톤에서 모금 활동을 벌였다. 당시 한인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는 이 씨는 그 동안의 경과보고를 위해 다시 보스톤을 찾았다.

“아프리카는 긍정의 나라” 라는 것이 이 씨가 6개월 동안 몸소 느끼고 온 소감이다. 현실을 즐기고 행복을 추구하는 긍정의 에너지를 얻고 왔다는 이 씨는 “물, 전기, 인터넷 등 이전에는 당연히 여기던 일상의 소중함을 깨달았다. 세상은 감사할 것들로 꽉 차 있다” 는 소감을 전했다.

에이즈 예방 교육에 관련된 업무를 맡았던 이 씨는 가장 인상 깊었던 활동으로 에이즈 양성 판정을 받은 잠비아인들과의 인터뷰를 꼽았다. 에이즈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몸

상태를 포기하지 않고 보살피 건강한 삶을 되찾았다고 대답하는 사람들을 만나며 이 씨는 프로젝트에 임하고 있는 자체만으로 자부심을 느꼈다고 전했다.

잠비아 팀은 보스톤에서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6개월 동안의 봉사활동에 대한 보고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현재 로지스 플레이스 (Rosie's Place)와 브라질 라디오 방송국과의 인터뷰를 앞두고 있는 이들은 경험담을 나눌 한인 단체를 찾고 있다.

이 씨는 “한인교회나 한인 단체 등 어디서든 부르면 가겠다” 며 “우리들의 구체적인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연락을 주면 감사하겠다” 고 전했다.

같은 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강한빛 학생은 “한국에서는 취업 현실에 대한 불만과 매너리즘에 빠져있었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아프리카의 헌신, 나눔, 긍정을 배웠다” 며 “이를 보스톤 한인사회와 나누고 싶다” 고 전했다.

잠비아 팀의 활동보고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이진영 씨의 이메일 (jy88327@naver.com)이나 카카오톡 (ID: jy88327)으로 연락하면 된다.

매사추세츠 주 북서쪽에 위치한 윈월드센터는 아프리카와 브라질에 봉사단을 보내는 비영리단체로 크게 교사 양성 학교, HIV/AIDS 예방 교육, 아동 구호, 커뮤니티 개발 등의 활동을 담당한다.

dyoo9146@bostonkorea.com

한인타운 형성 기대 반면 대공사 따른 교통체증 우려

▶▶1면에 이어서

니스가 시내에서 멀리 떨어져 있긴 하지만 보스톤에서 이런 이벤트가 열리는 것 자체가 자랑스러운 일” 이라고 전했다.

한편, 일부 한인들은 마냥 기뻐할 수 만은 없는 입장을 전했다. 브루클라인에 거주하는 주부 이 씨는 “스포츠에 큰 관심이 없는 탓인지 왜 신나는 일인지 모르겠다. 만약 보스톤이 한바탕 대공사를 치르게 되면 세금이 오를 것이 아니냐” 고 전했다.

빅 디그로 인해서 심각한 교통 정체를 경험했던 한 모씨는 “올림픽 한 달을 위해 또 이같은 대형 공사를 치르고 엄청난 정체를 감당하는 것은 큰 희생같다” 며 올림픽 개최에 반대표를 던졌다.

보스톤은 워싱턴,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등의 대도시들과 1년간의 경쟁 끝에 지난 9일 미국 후보지로 선정되었다. 이제 이탈리아, 로마, 부다페스트, 등의 경쟁한 세계 도시들과 나란히 경쟁하게 된다.

최종 개최지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투표로 2017년 결정된다. 보스톤이 올림픽 개최도시로 결정될 경우 미국은 지난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 이후 28년만에 하계 올림픽을 개최하게 된다.

미국은 현재까지 하계 올림픽(1904, 1932, 1984, 1996)과 동계 올림픽(1932, 1960, 1980, 2002)을 각각 4회씩 치렀다.

dyoo9146@bostonkorea.com

고려대학교 교우회 신년 모임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뉴잉글랜드 고려대학교 교우회(회장 이태호)가 오는 1월 30일 금요일 캠퍼지 MIT의 이스트게이트 펜트하우스(Eastgate PH 29층)에서 2015년 신년회를 가진다.

교우회는 이번 모임에서 신년을 축하하고 새로운 교우를 환영하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모교에서 보내온 2015년 고대 달력을 배부하고 민속놀이를 계획 중이다.

이태호 회장은 “뉴잉글랜드 지역 고대 교우들을 2015년 신년 모임에 초대한다. 가족들과 함께 참석하길 바라며 교우회에 아직 등록하지

않은 분들과 교통편이 필요한 분들은 교우회 임원에게 꼭 연락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모임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이태호 회장(tlee0813@hotmail.com, 617-780-2999)이나 김재철 교우(jaek79@gmail.com, 617-455-7649)에게 하면 된다.

행사일정
일시: 2015년 1월 30일 금요일 오후 7시

장소: 60 Wadsworth ST, Cambridge, MA 02142 (MIT 기숙사 내 펜트하우스)

bostonkorean@hotmail.com

Kim Law Offices, L.L.C.

성심을 다해 변호하겠습니다

김연진 변호사

Yeon J. Kim, Esq.

주요 경력

- 前미연방 이민국 심사관
- Boston지사 에서 만여건의 영주권 시민권 심사
- 前 미연방 세관 특별수사관
- NY지부 연방 범죄 관련 직접 수사
- 前 미국 육군 심문관

업무분야

이민법 / 상법
형사법 / 가정법

Tel: (781)932-0400 Fax: (781)932-0403
3 Baldwin Green Common, Suite 210 Woburn, MA 01801

Attorney at Law

장우석 변호사

사과 상해 **IRS/DOR/UI**
파산 보호 **민/형사 소송**
비즈니스/리스 **이민법**

전화: (781)712-1706 CHANG & ASSOCIATES, P.C.
67 South Bedford Street, Suite 400 West, Burlington, MA 01803

한미선 공인회계사

Master of Science in Taxation

IRS, MA DOR 와의 세금 문제 해결
사업체 세무보고 및 회계/경영 자문

- 회사의 설립 및 해체/ 회계처리/회계 감사
- QuickBooks Set-up - 비즈니스의 성격 및 구조에 맞는 기본설치 및 운영상담
- Payroll 서비스 및 고용주의 세금납세 대행

개인 세무 보고

- 해외 소득, 임대소득, 주식 등 투자, Self-employed 사업자, 자산 처분, Clergy, Military, Ft. Ji Visa holders - 한국과의 Tax Treaty 하에 있는 분 등

각종 세금 공제 및 절세를 위한 세무 상담

Tel: 617-792-2355 Fax: 617-849-5852
E-mail: michellehan.cpa@gmail.com
www.mhancpa.com
Cambridge Office (Alewife Station)
125 Cambridge Park Dr. Suite 301
Cambridge MA 02140

16일 개봉 <국제시장> 이벤트 당첨자 발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유다인 기자 = 보스톤코리아가 실시한 <국제시장>의 무료티켓 증정 이벤트 당첨자가 확정됐다.

보스톤코리아 편집진은 약 2주간 진행된 이벤트에 참여한 독자들 중 기발하고 참신한 댓글을 남긴 10명을 추첨했다.

16일 개봉하는 <국제시장>의 무료 증정 티켓은 19일 월요일부터 22일 목요일까지 유효하다. 상영 시간은 극장 측과 확인하면 된다. 상영 장소는 덴버스 소재 AMC 로우스 리버티 트리 몰 (100 Independence Way, Danvers, MA 01923)이다.

당첨자들은 16일 금요일 이후에 보스톤코리아 사무실에서 티켓을 픽업해야 한다. 업무시간은 금요일 오후 12



시부터 4시까지, 월요일부터 목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미주 40여개 극장에서 개봉하며 다양한 연령층의 관객을 끌어모으고 있는 <국제시장>은 <해운대>의 유제균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으며 황정민, 김

윤진, 오달수, 정진영, 라미란이 출연했다.

티켓 픽업 장소
보스톤코리아 사무실(161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dyoo9146@bostonkorea.com

고국방문 의료관광 서비스 <휴람>

피부관리, 성형, 치과 등 의료 서비스, 관광 서비스 포함

표의 말이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유다인 기자 = 외국의 의료기관이나 휴양지를 통해 건강을 회복하고 동시에 문화 체험 등의 관광 서비스도 즐기는 의료 관광이 각광받고 있다.

김 대표는 “휴람을 통해 의료의 퀄리티, 비용, 시간, 신뢰, 서비스 등에서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휴람의 네트워크는 종합수술, 검진, 성형, 안과, 이비인후과, 치과, 비뇨기과, 피부관리 등의 다양한 의료 서비스와 숙박, 여행의 관광 서비스를 포함한다.

해외거주자를 위한 의료관광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관광 전문 유치업자인 휴람(HURAM)은 2009년부터 미주내 한인들을 위해 의료 검진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지난 2008년부터 달라스를 포함한 북미 8개 도시에서 한인 및 여타 문화권을 대상으로 의료검진 서비스를 진행해 온 ‘휴람’은 2012년 2월 독립법인을 설립해 유럽,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동남아시아 등 20여개 지역으로 운영을 확장했다.

휴람의 김수남 대표는 “흔히들 유치업자라고 하면 브로커로 인식하여 중계수수료를 내야한다는 선입견을 가지기 쉽다. 하지만 한국 고객과 동일한 비용 또는 이벤트를 통한 저렴한 비용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관심 있는 사람은 huramceo@hura.com.kr 으로 상담문의 요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www.huramkorea.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은 우수한 의료시설과 의료인력, 선진국 대비 저렴한 의료비의 경쟁력을 지녔다는 것이 김 대

bostonkorean@hotmail.com



대림성모병원 김수남 해외의료사업팀장이 보스톤코리아를 방문 업무제휴를 맺었다

국제시장 이벤트에 당첨된 댓글



<CHARLIECARD>

국: 국물이 있어야 밥상에없는 너를위해
제: 제일먼저 침대에서 일어나 혈어가는 신발신고
시: 시련과 씨름하며, 니가 어버이날 준
장: 장갑 손에주고, 매서운 한파속 오늘도 출근한다 아들이

<쭈쭈>

국: 국제시장 보려고
제: 제사 머무다
시: 시어머니한테 결려서
장: 장담길 뻔

<spnyoung>

국: 국민학교도 안나온
제: 제가
시: 지방
장: 장문의 글을 쓰니깐 언능 티켓 주소!~

<aksoonus>

국: 국제시장이라는 영화가 미국에서 상영된다고 하니
제: 제 마음이 설렙니다. 미국은 지 30년이 지났지만 영화관에 기본 적이 없네요
시: 시간이 허락하면 이번에는 꼭 가보고 싶어요. 광고사진을 보니 어릴적 자라던 동네와 비슷해보여 영화를 보면서 옛날의 추억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장: 장소도 집에서 가까운 버링턴에서 상영한다고 하니 꼭 보고싶어요. 저에게 행운을 주세요~

<Yes!>

국: 국제시장이 개봉한다고요?! 600만 관객이 넘었다고 떠들썩하던데 가서 보고싶네요~ 어떻게 해야 표를 주는 건가요?!ㅎ

제: 제가 받지 않아도 됩디만ㅎ 주신다면
시: 시간내서 꼬옥 와이프랑 손잡고 가서 보겠습니다^^ 얘기는 옆집에 맡기고요~ 데이트고 고생!!

장: 장강의 물길은 기세가 꺾이지 않지만 그 지류가 마르면 바닥이 결국 드러난다' 는 중국 속담이 있습니다. 장강이 마를 일이 없다는 헛된 기우에 대한 얘기지만 진짜 지류가 말라버리면 장강도 어쩔 수 없겠죠? 요즘 국제시장이나 변호인 같은 영화가 흥행한다는 것이 사회를 어느정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나라 높은 분들이 지류를 말려버리는 일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사행시 짓다가 갑자기 들어요~ 밤이라 센터해줬나봐요~ 모두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배고프다>

국: 국물에
제: 제기탈. 고기는 쪼매뻬이고 물만 와이리 많노
시: 시간당 9불받는 아르바이트생 붙잡고 뭐라 할 수도 없고 내일은
장: 장봐서 내가 해먹어야지. 돈 줄라 아깝네

<keywest>

국: 국민여러분~~~~~

제: 제 말씀 들어보세요!!!!!!
시: 시원시원한 성격에 돈도 열심히 벌고 얼굴도 이만하면 된 것 같은데.
장: 장가는 왜 못가는 걸까요??? 장가좀 보내주세요~~~~ 여러분들!!!!!!

<국제시장>

국: 국제시장을 보러가서
제: 제일 좋은 자리에 앉고
시: (영화) 시간을 제대로 맞추면... 잘생긴 남자가 영화관에 있을까?
장: 장난하나? ㅋㅋㅋㅋ

<보스톤봉>

국: 국제시장으로 사행시를 지으려고 했는데, 너 무늦어버려서 다른분들이 좋은 아이디어들을 벌써 사용하셨네요.
제: 제가 이상황에서 할수있는건 별로없을듯 싶네요.
시: 시장보러 마트 가야 했는데.. 가는길에 동생과 같이 보려고했는데...
장: 장난 안하구 정말인데...

<well-well>

국: 국제시장 보고싶어요
제: 제발요
시: 시간과
장: 장소는 상관없어요

COLDWELL BANKER
RESIDENTIAL BROKERAGE

부동산 중개인 김현구
Chris H. Kim, GRI Realtor

정직하고 성실하게 도와 드립니다
주택 무료 감정

Cell 617.694.0985

Brookline Office: 622 Hammond Street, Chestnut Hill, MA 02467 (B) 617-566-2447
Newton Office: 1261 Centre Street, Newton, MA 02459 (B) 617-969-2447

Covering Boston, Brookline, Newton, and Greater Boston
Chris.Kim@NEMoves.com

Century 21
SHAWMUT PROPERTIES

1274 Washington Street
Newton, MA 02465

송윤주 Realtor
Yoon Song

Direct: 857-636-0429
Email: Yoonjoo@centry21.com
Web: YoonBoston.com

주택 매매, 콘도, 수익성 부동산 투자, 렌트 전문 고객의 입장에서 성실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Newton, Needham, Brookline, Belmont, Boston, Wellesley, Weston, Cambridge, Lexington 전문

惠民 Park Acupuncture and herbal medicine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최상의 선택
혜민한의원

617-787-0789 www.acupark.com
60 Leo M. Birmingham Parkway, Suite 101, Brighton, MA 02135

올림픽 연방정부 10억달러 지원 필요

미 국민의 세금 보스톤 올림픽 경호에 사용될 듯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보스톤 올림픽 조직위원 (보스톤 2024)는 지금껏 국민의 세금의 필요성에 대해서 부인해 왔지만 보스톤시는 십억달러가 넘는 납세자들의 돈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스톤 글로브가 보도했다.

조직위는 그동안 총운영 예산이 45억 달러로 납세자들에게 부담을 지우지 않겠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이 예산은 올림픽 경호비용을 전혀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었다. 2012년 런던 하계 올림픽의 경호비용은 16억달러에 달했던 것을 고려하면 보스톤의 경호비용을 일정 정도 역추산할 수 있다.

올림픽 조직위는 연방정부 지출을 꺼려하는 연방 의회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아주 힘겨운 로비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인정했다. 현재 초기 의회의 반응은 복잡하지만 보수 의원들의 경우 보스톤 올림픽 경호비용 지출에 회의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캘리포니아 공화당 데럴 이사 의원은 “보스톤이 입찰했으니 보스톤이 (경호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고 딱 잘랐다.

경호 비용 외 서머빌 MBTA 그린 라인 연장과도 같은 사회간접자본 프로젝트에도 연방 정부의 지원금은 필요하다. 이 지원금은 올림픽과 상관없이 필요한 자금이기도 하다.

지난 2000년 정부회계청(GAO)은 2002년 솔트레이크 동계 올림픽의 연방정부지원 금액이 13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는 2001년 연방 정부 지원 금액이 15억 달러였다고 밝혔다.

정부회계청에 따르면 1984년 LA 올림픽,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 그리고 2002 솔트레이크 시티 동계올림픽에 최소한 24개의 연방 정부기관이 출연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비영리 조직 (보스톤 2024)의 덴 오코넬 회장은 일정 정도의 연방정부 출연은 기대하고 있지만 그래도 가능한 한 많은 금액을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오코넬 회장은 아직까지 로비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지만 서머빌 민주당 연방의원인 마이클 카푸아노를 비롯해 매사추세츠 출신 의원들을 통해 어떤 연방 정부 지원을 조달할 수 있는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의 올림픽은 점차로 비용이 과

대하고 증가하고 있다. 베이징의 경우 2008년 올림픽에 400억 달러를 쏟아 부었고 러시아는 2014년 소치 올림픽 당시 500억 달러를 들었다. 이에 따라 국제올림픽 위원회(IOC)는 향후 올림픽에서는 이 같은 비용증대를 낮추어서 저비용 올림픽을 주장하고 있다.

오코넬 회장은 지난 2004년 보스톤 민주당 전당대회처럼 의회가 안전 비용을 승인하고 경호장비, 인력, 기술 등에 대한 지원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 국토안보부는 올림픽을 국가 특별 안보 이벤트로 설정하고 시크릿 서비스가 경호의 총책임을 맡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미 의회도 철저한 안전장치를 위한 자금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 올림픽 위원회는 2015년 9월까지 예비 올림픽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때 보스톤 올림픽의 총괄 비용을 제출해야 한다.

hsb@bostonkorea.com



보스톤이 2024년 올림픽 미국내 유치 도시로 선정됐지만 아직도 많은 난관을 극복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스톤 올림픽 유치, 다음 단계는?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보스톤은 지난 8일, 미국 올림픽 위원회에서 2024년 하계 올림픽 개최지 미국 후보로 선정되었다. 앞으로는 세계 각국의 도시들과 올림픽 유치를 위한 경쟁을 벌여야 한다.

보스톤은 올림픽 유치를 위해 이미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넘어야 할 산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 향후 일정을 살펴보자.

2015년 9월: 후보 도시 IOC 지원 마감

미국 올림픽 위원회를 포함한 세계 각국의 올림픽 위원회는 오는 9월 15일까지 2024년 올림픽 개최를 위한 자국의 올림픽 후보 도시를 국제 올림픽 위원회(IOC)에 알려야 한다.

지금부터 9월까지 보스톤 시는 8번에 걸쳐 올림픽 유치를 위한 공개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이 사이에 보스톤 시가 미국 올림픽 위원회에 제출했던 최초 올림픽 유치 계획이 일부 수정될 수도 있다.

보스톤 올림픽 유치를 위한 민간 단체인 보스톤 2024도 앞으로 매달 회의를 갖고 민간 부분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보스톤 2024의 회의는 1월 21일부터 시작한다.

2015년 10월: IOC 회의
올림픽 개최를 희망하는 나라들로부터 후보 도시들을 접수 받은 후 약 한달 뒤, IOC는 스위스로잔에서 각 도시의 대표들과 회의를 갖게 된다. 올림픽 유치 도시 선정 과정, 접수 마감일, 선정 규칙 등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갖는다.

IOC는 각 도시 대표들을 1-2년에 걸쳐 만날 예정이다. 2024 올림픽 유치를 준비하는 유력 도시로는 로마, 파리, 베를린 등이 거론되고 있다.

2016년 1월: 유치 접수 마감
이때부터 올림픽 유치를 희망하는 도시들이 공식적으로 유치 경쟁에 참여하게 된다. 각 도시들은 IOC가 요구하는 정보를 유치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주로 올림픽 유치와 관련한 경제적인 지표들이 필요하다.

2016년 봄: IOC 최종 후보지 선정

IOC는 각 도시에서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고, 각 수치에 따라 대략적인 순위를 매긴다. IOC가 요구하는 수치는 대중 교통 수단, 숙박, 치안 유지, 대중 지원 계획, 의료 계획 등에 대한 산술적인 자료들이다.

이후 IOC는 2024년 올림픽 유치를 위한 최종 개최 후보지를 선정하여 발표하게 된다. 이때 선정된 도시들이 공식적으로 올림픽 유치 후보지로 불리게 된다.

2017년: 최종 개최 도시 선정

2016년부터 최종 후보 도시들은 IOC에 구체적인 자료들을 접수해야 하며, 2017년 1월에 최종 접수가 마감된다. IOC는 최종 후보들이 접수한 자료를 검토하고 각 도시들을 방문한 후에 2017년에 열릴 130회 IOC 총회에서 2024 올림픽 개최 도시를 선정하게 된다.

jsi@bostonkorea.com

“휴식과 회복이 있는 곳”

은혜한의원

Grace Acupuncture & Oriental Medicine

원장 **백승희**
(경희한의대 42기)

각종 상해, 의료보험 취급 / 편리한 주차

781.862.1842

442 Marrett Rd. Suite 6
Lexington, MA 02421
www.graceaom.com

“당신의 환한 미소가
마름답습니다.”

거의 모든 보험 받습니다
매스헬쓰도 받습니다

978.689.9363
(한국어문의)

DongWon Kim DMD
김동원치과

465 South Broadway Lawrence MA 01843

가족 물리치료 병원
GB Family Physical Therapy

**매사추세츠 최초
REDCORD식 치료법 도입**

진료분야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어깨, 팔, 무릎, 다리 및 각종 운동 후 통증
척추 측만증 및 자세교정

교통사고/직장상해 보험, 유학생/여행자 보험,
메디케어 외 정부보험 및 미국보험

대표: 781-365-1876 한국어 781-365-1867
83 Cambridge St. Suite 2B Burlington, MA 01803

www.gbfamilypt.com



조기유학 및 학업지도 대표 기관

BOSEC 보스톤 유학원

www.bosec.com

보스톤유학원은 가장 오래 전통을 가진 유학원으로 많은 학생들을 명문 중/고등 사립 학교와 명문 대학에 입학 시켜온 교육 컨설팅 대표기관입니다. 보스톤 유학원은 학생들이 미국에서의 학업에서 성공하도록 최상의 컨설팅과 수준높은 학업지도를 제공합니다

Educational Consulting Department

1. 조기유학, 초/중/고 /대학 입학, 전학, 인터뷰 가이드 전문
2. 한국에서 갓 전학 온 학생 교육컨설팅
3. 대학 입학 상담, 지원서 작성 (College Consulting) : 하버드 입학담당관 출신이 전문위원으로 활약
4. 가디언, 홈 스테이, 여름/겨울 캠프
5. 주말 봉사활동, 특활 지원
6. 상세 사항: 웹사이트 참조 www.bosec.com

- 컨설팅 서비스의 특징: 다년 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성공적 상급 학교 진학을 보장하는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서울 사무소: 부모님 들의 편의를 위해서 도곡동 타워팰리스 단지 내에 서울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주소 참조)
- 합격한 중, 고등 학교: Fay, Choate Rosemary, St. Paul, Milton, Groton, Kent, NMH, Loomis Chaffee, Hotchkiss, Lawrenceville, St. George, Middlesex, Concord, Governor Dummer, Eaglebrook, Cardigan Mountain, Fessenden, Cushing, Brooks, Westover, Dana Hall, Holderness, Kent, Worcester Academy, Eaglebrook, Philips Academy, Pomfret 등. 상세 사항 웹사이트 참조.
- 합격한 대학: Harvard, Yale, Stanford, Cornell, Columbia, NYU, Bowdoin, Dartmouth, Trinity, Emory, U. Mich., U. Penn. Brandeis, Boston College, Bowdoin 등 다수

튜터의 자질과 경력을 보고 프로그램을 선택하세요!

Academic Tutoring Department

SAT, SSAT, TOEFL, Writing 전문 학원

대표 강사 부원장: James Kim, Harvard, Yale 철학 전공

책임 강사: Robin Burns,
Stanford Univ. English Major, MS, BA, 수석 졸업,
SAT Verbal 800

- 대상 학생: Native Speaker, 유학생, 보딩스쿨/데이스쿨 학생
- 한국식 엄격한 지도. 숙제 관리. 공부를 하지 않을 수 없게 지도 함.
- 시험 요령 습득이 아닌 실력 향상 위주.
- SAT, TOEFL, SSAT수강생 전원에게 정선된 필수 단어 목록 제공

Private Tutoring

Math, Essay Writing, Physics, Chemistry, Biology, History, Spanish, French, Latin, TOEFL, SSAT, ISEE SAT, ACT	\$70-100/hr
---	-------------

여름 방학 특강 (보스톤)				
SAT 집중반	7월6일-8월 20일, 월, 수,	10 AM-1PM	\$1250	실전 테스트 5회
개인 지도	학생이 지정		\$60-\$80 여름 특별가	전 과목

단 주 1회 실전 테스트 일은 10 AM-1:30 PM, 최소 인원 3명

여름 방학 특강 (서울)

개인지도 혹은 4인 이하 소 그룹: 문의 02-579-9731

지도과목: SAT, ACT, AP US History, AP English, SSAT, TOEFL, Reading/Writing

기숙학교 연중 프로그램(안전한 홈스테이, 항공, 교통편 제공)

Program	기간	그룹 지도	개인 지도	제공서비스
추수 감사절	11월 중순-말	SAT, SSAT, TOEFL, ESSAY	전과목	교통편/항공편, 숙식
성탄 휴가	12월 중순-말	SAT, SSAT, ESSAY	전과목	교통편/항공편, 숙식
봄방학	3월중 3주간	SAT, SSAT, TOEFL, ESSAY	전과목	교통편/항공편, 숙식

이 프로그램 들은 2001년 부터 6년 째 제공되고 있는 정평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학부모가 이 기간 중 한국에서 오시는 경우 편안한 장기 투숙 안내 제공.

- 주말 교통편, 홈 스테이, 학업 지도, 봉사 활동 제공 - 학생이 필요한 과목별 개인 지도, 유학생을 위한 집중 영어 쓰기 지도 제공
- 한 학교에서 3명 이상이 같은 프로그램으로 오는 경우 할인 혜택
- SAT는 CR과 Writing점수목표가 650-750사이인 학생을 목표로 함. SSAT는 80-99%를 목표로 하는 학생을 위한 클래스임.

보스톤 유학원

미국: 545 Concord Avenue, Suite 214,
Cambridge, MA 02138

한국: 서울 강남구 도곡동 대림 아크로텔 2402호
(삼성 타워팰리스 단지 내 02-579-9731)

대표: 원장 공학박사 송영두

Tel 617-491-0041
617-491-0043

- * 교사 수시 모집: info@bosec.com 으로 resume를 보내 주십시오.
 - * 홈스테이 가정 수시 모집: 뉴잉글랜드 전역. info@bosec.com 으로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사절.
 - * 사무 직원 모집: 미국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닌 분. humanresource@bosec.com 로resume를 보내 주십시오.
- "주차는 보스톤유학원 옆의 Fresh Pond Mall 의 Whole Foods Market에 하시면됩니다."



보스톤, 스마트폰으로 거리 주차 결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마틴 월시 보스톤 시장이 지난 13일 신년시정연설에서 공개한 주차 앱 파크보스톤(ParkBoston)이 14일부터 백베이 소재 8개의 스트리트에서 상용화됐다.

보스톤 시는 퍼블릭 가든 주변과 쇼핑 디스트릭트에서 이 앱을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스마트폰 주차 결제가 가능한 지역은 남쪽으로는 보일스턴, 북쪽으로는 비컨 스트리트 서쪽으로 다트머스 스트리트 그리고 동쪽으로는 찰스 스트리트까지의 지역이다.

보스톤 시는 다음 달부터 시의

8,000개의 주차 미터기에서 스마트폰 결제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실시일은 밝히지 않았다. 현재 파킹 앱으로 결제하는 경우 최대 2시간까지 주차할 수 있다. 컴퓨터 미터 검사기를 둔 주차요원들은 차를 스캔해서 결제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

파크보스톤 앱은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다. 이 앱은 아이폰 또는 안드로이드 폰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여카운트에 신용카드를 연동해 설정해야 한다. 이 앱을 사용하는 경우 수수료 형식으로 주차요금에 15센트를 더 부담하면 된다.

보스톤 시는 노스 캐롤라이나 샤롯데에 본부를 둔 패스포트파크킹사와 협력해 파크보스톤 앱을 보스톤에 소개했다. 이 회사는 시카고, 오마하, 투산, 빅토리아 등의 시에서 이 같은 앱을 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주차앱 서비스를 이 지역에서 보스톤이 가장 먼저 실시한 것은 아니다. 서머빌은 지난해 이와 같은 스마트폰 결제 앱 파크모빌(Park-Mobile)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사용자들은 서머빌 시의 어느 주차 장소든지 다른 장소에서 결제할 수 있도록 했다.

hsb@bostonkorea.com

패트릭 전 주지사 MIT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드벌 패트릭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가 퇴임 후 첫 목적지를 MIT 연구소로 택했다. 패트릭 전 주지사가 민관 분야의 협력을 위해 MIT 혁신 연구소에 방문 연구원(visiting fellow) 자격으로 참여하게 되었다고 MIT가 성명을 통해 발표하였다.

패트릭 전 주지사는 8년 동안의 주지사 임기를 지난 주에 마쳤다. 패트릭 주지사는 MIT 혁신 연구소에서 근무하며 학계와 정부, 기업들을 연결하여 혁신적인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발전시키는 일을 맡게 된다.

패트릭 전 주지사는 “혁신이아

말로 우리 경제를 움직이는 원동력” 이라고 말했다.

MIT 혁신 연구소는 광범위한 산업 분야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실제로 적용할 수 있도록 변환하는 일을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매사추세츠주에 위치한 기업들은 물론 전세계 기업 및 연구소들과 파트너 관계를 맺고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MIT 혁신 연구소의 피오나 머레이 부소장은 패트릭 전 주지사를 “매사추세츠주를 위해 국제적인 혁신 외교관 역할” 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jsi@bostonkorea.com

주말 뉴잉글랜드 국제 오토쇼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뉴잉글랜드 국제 오토쇼가 15일부터 19일까지 보스톤 컨벤션 앤 엑시비션 센터에서 열린다.

이번 오토쇼는 목(2-9 p.m.), 금(12시 -9 p.m.), 토 (10 a.m.-9 p.m.) 일(10 a.m.-7 p.m.), 월(10 a.m.-6 p.m.) 등 5일간 각기 다른 시간대에 열고 닫는다.

입장료는 어른이 \$1, 어린이(6세-12세)는 \$6, 그리고 6세 이하의 어린이는 무료다.

최근 포드와 기아, 사이온, 그리고 도요타 등은 쇼에서 라이드 앤 드라이브 체험을 할 수 있게 했다. 드라이브를 할 수 있는 시간은 토요일에서 월요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4시까지다.

정관장 정품은 정관장만 취급하는 “브랜드스토어”에서 구입해야 안전합니다.

요즘 너무 추우시죠? 홍삼으로 매서운 한파 이겨내세요

보스톤의 매서운 한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야외 활동이 줄고 실내 생활이 늘어남에 따라 면역력이 떨어져 각종 질환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온가족 정관장 홍삼제품으로 면역력도 지키고 떨어진 체력도 보강하세요!

홍삼에도 격이 있습니다. 가족과 자신을 위해 최선을 드세요.

보스톤 유일의 홍삼 전문매장 정관장 브랜드스토어

보스톤 정관장 브랜드스토어
781-238-0303
H MART Burlington점 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전화주문 서비스
FedEx 로 주문후 1~2 안에
편하게 받으세요.
\$100 이상 주문시 무료 / \$100 이하 \$5 배송비



FREE GIFT

홍삼정 240g 구입시
홍삼정 30g FREE



미트 롬니 전 주지사 대선 세번째 출마 검토

왜 롬니여야 하는가
대책 고안 중

가족과 보좌관들은 적극
재출마 권유

월스트리트 강도높은 비판
공화당 의원들도 싸늘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2012년 대선에서 오바마 현 대통령에게 참패했던 미트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가 2016년 대선 출마를 위한 움직임을 시작했다.

보스톤 글로브 매트 바이저 기사는 14일 롬니의 지지자들을 인용해, 롬니가 지난 2년 동안 완강하게 대선 삼수를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몇 주 만에 마음을 바꾼 이유는 그가 왜 미트 롬니여야 하는가에 대한 명분을 찾았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이번에도 롬니 출마의 핵심은 2012년처럼 경제이다. 그러나 롬니는 과거와 달리 과거의 약점을 강점으로 바꿨다. 이번 선거에서는 공약의 핵심으로 빈곤층 살리기를 채택했다. 지난 선거에서 롬니는 지갑에서 100불짜리를 꺼내 어린 아이에게 주는가 하면 비밀리 녹화된 비디오에서는 오바마를 지지하는 47%의 유권자들은 국가에 기생하는 무책임한 사람들라고 하는 등 실수를 연발했었다.

롬니는 2012년 런던 올림픽 당시 영국을 방문해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었지만 그럼에도 그는 국제관계를 유

일하게 잘 다룰 수 있는 후보라고 주장하고 있다.

롬니와 롬니의 보좌관들이 이 같이 모든 생각하는 그 배경에는 2012년 미국의 국민들이 잘못된 선택으로 롬니를 탈락시켰다는 관념이 깔려 있다. 미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것이 롬니 측의 계산이다.

롬니의 한 보좌관은 “가슴으로부터 이 나라가 심각하게 재앙으로 가고 있고 어느 때보다 나쁜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나라를 위해 반드시 생각해 봐야 할 문제다. 우리는 지난 대선에서 여러 가지 실수를 했지만 가장 큰 실수를 꼽으려면 롬니가 바로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있는 후보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이해시키지 못한 것” 이라고 말했다.

롬니의 대선 재출마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론을 보이는 쪽도 있다. 과거 그의 선거본부 구성원 일부와 기부자들 사이에서도 곤란해 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그는 대선 재출마를 거의 기정 사실화 해가는 분위기다.



롬니를 레이건과 비교하며 2016년 대선 도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조직

지난 2012년 대선직후 롬니의 보좌진들은 재출마를 권유했었다. 당시 롬니는 이를 부인했었다. 그러나 롬니는 스스로 정계은퇴를 선언한 사람에게서 보기 힘든 일들을 지속해왔다. 계속해서 자신의 기부자 네트워크를 주의 깊게 관리해왔다.

그들에게 전화하고 여행갈 일이 있으면 이들과 만남을 가졌으며 식사를 같이 했다. 최근 몇 달간 그는 점차 대선 재출마에 대한 생각에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분위기를 연출했다.

롬니가 주지사였던 시절부터 지난 두번의 대선 레이스에서 모두 그를 보좌해왔던 에릭 페른스트롬은 “상황이 바뀌고 있다. 그는 그가 존경하고 찬양하는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격려를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다시 한

번 대선출마를 고려하게 된 것” 이라고 밝혔다.

지난 연말 롬니의 가족들은 유타의 스키장에 모여 대선 출마에 대해서 의논했었다. 롬니의 부인 앤 롬니 여사는 삼선출마를 반기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오히려 롬니를 격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롬니의 장남 태그는 몇 달간 지속적으로 롬니의 대선출마를 종용해 왔다. 롬니의 차남은 반반이지만 일단 출마를 결심하면 돕겠다는 입장이다.

롬니의 재정담당관이었던 스펜서 즈위크도 롬니를 종용하는 사람 중의 하나다. 즈위크는 몇 다른 후보들과 합류 가능성을 타진했었지만 결국 롬니 곁에 남았으며 거의 매일 기부자들과 접촉을 유지하고 있다. 즈위크

는 “롬니는 그냥 출마를 포기하기에는 너무 미국을 사랑한다” 밝혔다.

지난 12월 한 기부자는 롬니에게 플로리다의 켈 부시가 자신에게 도움을 청해왔다면 롬니에게 알려왔다. 그는 만약 롬니가 출마한다면 주면 기부자들의 탈퇴를 적극적으로 막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주 뉴욕 방문 때 우디 존슨 뉴욕 제츠 구단주를 비롯한 기부자들을 모아 놓고 자신의 출마 의지를 밝혔다. 그는 출마공약으로 빈곤해소, 미국의 외교, 그리고 미 경제의 장기적 안정 성장 등을 설파했다.

그는 이날 미팅에서 또한 이번 대선 도전에서는 반드시 고쳐야 할 문제들을 지난 대선을 반추하며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 일부는 그의 지난 선거본부 구성을 지적하며 이번에는 과거의 보좌관을 사용해서는 안될 것을 지적했고 대선에 나서는 목표도 분명히 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대중에게도 좀더 편안한 이미지를 유지할 것을 강조했다. 롬니의 측근들은 롬니가 찰리 베이커의 취임식에서 바니 이어를 스캇 브라운 전 상원의원에게 씌어주는 모습을 예로 들며 최근 들어 롬니에게서 패자의 면모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롬니의 출마 공약이 이번에는 분명하지만 추후 민주당 후보와의 대결을 차지 하더라도 공화당 경선 후보들에게도 방어해야 할 것들이 많다. 2012년 대선후보 당시 “나는 국민자들에 대해 전혀 고려치 않고 있다” 는 말은 물론 그동안 수십차례 출마를 앞졌다는 그의 발언이 도처에 깔려있다. 이 같은 지뢰밭을 무사히 지날 수 있을지 여전히 의문이다.

hsb@bostonkorea.com

NEWSTAR Realty of Boston **NEWSTAR BOSTON** 미국 전체 New Star Realty 금탑수상

Gina Choi

Realtor, MBA
978-866-3248
ginachoi@newstarrealty.com
<http://blog.naver.com/newstargina>

안녕하세요. New Star Realty의 지니 최입니다.
1997년에 보스턴 지역으로 유학을 와서 학부와 대학원(MBA)을 마치고 다년간 BOSTON과 CAMBRIDGE 지역에서 직장 생활과 각 지역에서의 각종 단점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창업중이며 불경기에도 10년 이상의 가족 비즈니스를 운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자리에 집과 사업을 매물로 도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exington Office
40 Welham St., Lexington, MA 02420
Tel: (781) 259-4989

Newton Office
111 Washington St., Newton, MA 02455
Tel: (617) 869-4989

가족의 정착, 내집 마련, 투자이민 및 사업매매 **978.866.3248**

기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카카오톡 ID: jusrangnim

EXCLUSIVE

24 Glenville Ave, Allston, MA 02134

For Sale: \$ 420,000

방 4개 화장실 1, 1,330 sqft
Harvard Ave 전철역, 미림, 한마루, 서울 설령탕, 한진택배 걸어서 1-2분 거리
내년 9월까지 학생들이 계약되어 있음.
현재 올스턴 지역의 CONDO 가격이 오르는 추세라 투자 가치가 높음.

LEXINGTON

단독주택

For sale: \$ 799,000

2 BEDS, 2.5 BATHS, 1,811 SQ FT

ACTON

CONDO(2014년 새집)

For sale: \$ 699,900

4 BEDS, 3 BATHS, 3,200 SQ FT
학군 좋은 ACTON 지역

NATICK

CONDO

For sale: \$ 489,900

2 BEDS, 2 BATHS, 1,303 SQ FT
NATICK MALL 과 PRIVATE 통로로 연결되어 있음

美공화, 대선후보 선출 전대 내년 7월18일

공화 지도부 "대선 후보에게 일찍 힘 실어줄 필요 있어"

거 전대들보다 상당히 이른 시간에 시작된다"며 "이는 더 빨리 선거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대선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전대는 지난 대회보다 40일 빨리 시작된다. 미트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를 대선 후보로 선출했던 지난 2012년 전대는 8월 27~30일 플로리다 탬파에서 열렸다.

공화당 지도부는 2012년 대선 패배 이후 자당 후보에게 경쟁 상대인 민주당 후보보다 대선을 준비할 시간을 더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같은 당 후보 간 불필요한 소모전을 줄이기 위해 23차례나 열렸던 공개 토론회의 숫자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전대가 예상보다 일찍 치러지는데 이어 토론회 수가 줄어들 경우 구간 수차례 반목을 거듭했던 공화당 내

강경 보수파와 중도파 간의 갈등이 다소 일찍 봉합되는 효과도 기대된다.

공화당과 달리 민주당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 이어 민주당 정권 재창출을 이끌 대선후보 선정 일정을 아직 발표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 전대 후보지는 오하이오 주 콜럼버스와 뉴욕 주의 필라델피아, 브루클린 등이다. 공화당은 앞서 두 차례 전대를 클리블랜드에서 치렀다.

지난 1923년 워런 하딩 대통령의 급작스런 죽음으로 대통령직을 승계한 칼빈 쿨리지는 1924년 클리블랜드 전대에서 대선 후보로 추대된 후 25년 대선에서도 승리해 재선에 성공했다.

반면 1936년 클리블랜드 전대에서 대선 후보로 선출된 알프 랜던은 그 해 민주당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에게 참패한 바 있다.

findlove@news1.kr

(서울=뉴스1) 이준규 기자 =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 나설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공화당 전당대회가 내년 7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 동안 열릴 예정이다.

AFP통신에 따르면 라이스 프리버스 공화당 전국위원회(RNC) 의장은 이날 "2016년 7월 18일부터 21일까지 오하이오 주 클리블랜드에서 전당대회가 열린다"며 "이번 전대는 우리 당 미래 대선후보의 역사적인 승리를 위한 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프리버스 의장은 "내년 전대는 과

오바마 "초고속인터넷 확산에 불필요한 규제 없어야"

(워싱턴=연합뉴스) 김세진 특파원 = 초고속인터넷 통신망의 확산이 미국 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중요한 방법의 하나고, 그러려면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야 한다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주장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14일 아이오와 주의 소도시 시더폴스에서 "미국의 너무 많은 곳에서 일부 대기업이 경쟁자를 막기 위해 가능한 모든 일을 하고 있다"며 규제를 풀어 지역 중심의 인터넷 통신망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고 연설했다.

미국 백악관에 따르면 시더폴스의 인터넷 다운로드 속도는 뉴욕이나 로스앤젤레스 같은 대도시보다 2배 가량 빠르다.

그는 "현재 19개 주에서 경쟁을 막고 지금 여기(시더폴스)서 한 것처럼 지역사회가 초고속인터넷을 공급하지 못하게 하는 법규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미국 백악관은 "특별한 이익 때문에 새로운 인터넷서비스 제공업자가 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며 경쟁 활성화와 정부 지원을 결합해 새로운 사업자가 초고속인터넷 통신망에 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일부 주에서 인터넷통신망 설비투자가 민간 사업자들의 자재 결정에 의해 이뤄져야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지칭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연설에서 "현재

수천만 명의 미국인이 차세대 초고속인터넷망을 쓰기 위해 한 가지 선택(공급자)만 가진 상황에 처해 있다"며 "경쟁이 없는 상황에서는 아이콘이 빙글빙글 도는 모습만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런 정책이 "정치적 성향과 무관하다"고 말했다. 다만, 지역사회 주도 초고속인터넷 통신망 구축 지원책은 오바마 대통령과 야당인 공화당이 대립하는 현안 중 하나다.

공화당은 "통신망 구축은 전적으로 민간 사업자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는 기존 통신업자들의 의견을 주로 수용해, 오바마 대통령의 정책이 "불필요한 또 다른 규제"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이날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에서는 미국 이외 지역의 빠른 인터넷 통신속도를 비교하는 대상으로 한국이 포함되지 않았다.

오바마 대통령은 시더폴스의 인터넷 다운로드 속도가 "세계 최소 수준의 통신망과 비슷하다"며 홍콩과 도쿄, 파리를 사례로 들었다. smile@yna.co.kr

하원, 오바마 이민행정명령 무력화 법안 가결

(서울=뉴스1) 정은지 기자 = 미국 하원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무력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원은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집행하는 국토안보부의 2015회계연도 예산안 수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36표(반대 191표)로 가결했다고 14일(현지시간) 밝혔다.

이 법안에는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불법 체류자 수백만명에 노동 허가증을 발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행정명령에 제동을 걸수있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AFP통신은 밝혔다.

이와 함께 하원은 16세 이전에 불법 입국한 60만명 청소년들에 추방을 유예해주는 내용을 담은 2012년 행정명령을 동결시키는 법안도 통과시켰다.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에 거주하는 1100만 명의 불법 체류자 가운데 최대 500만 명에 대한 추방을 임시로 유예하고 이들에게 취업 허가증을 발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 동했다.

하원을 통과한 이번 법안은 상원 통과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인 해리 리드 의원은 "이번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공화당이 첫 다운 위험이 있는 불필요한 정치적 싸움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백악관의 국내정책담당 수석비서관 세실리아 무노즈는 "정치적 연극"이라고 지적하면서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ejjung@news1.kr

태양자동차
Body & Repair/States Inspection

모든 차량 정비 서비스
유럽, 미국, 일본, 한국

사고가 났습니까?
사고가 난 차를 원상 복구해 드립니다.
인슈어런스 바디워크 합니다.

781.391.6200
781.391.7700

78 SWAN ST, MEDFORD, MA 02155
FAX: 781.827.0867 EMAIL: SUNAUTOBODY@YAHOO.COM
WEBSITE: http://sunauto-boston.haninis.com/

엔티비(NTV)가 티보 플레이(TBO Play)로 새롭게 도약합니다. 더 좋은 서비스로 여러분께 보답하겠습니다.

Welcome, **TBO**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문의 및 연락처
보스톤코리아 TV 사업국
617.955.9112
지금 연락하세요

무제한 시청 월 \$37.99

KBS, MBC, SBS, SBS Plus, tvN, Xtv, O'live, OCN

The Best On Demand.

MED ACUPRESSURE

지압치료(Acupressure Therapy)
핫스톤
속 눈썹 연장, 웨이셀

전화 예약 : Office.617.795.0095, Cell.617.970.6038
시간 : 월요일 ~ 토요일 (10am ~ 8pm)
주소 : 634 Commonwealth ave (#204)
Newton center, MA 02459
website : http://www.medacupressure.com

월가서 유로·달러 등가 환율 전망 급속 확산

노무라 "이르면 올 상반기 실
현도 배제 못 해"
핍코·골드만삭스도 가세...
"ECB 양적완화 채택이 주요
원인"



(서울=연합뉴스) 선재규 기자 = 유
로와 달러 환율이 1대 1이 되리란 관측
이 월가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이런 관측은 유럽중앙은행(ECB)이
이르면 이달 22일(현지시간)의 올해 첫
통화정책회의에서 국채까지 사들이는
양적완화(QE)를 채택할 것이란 전망
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나왔다.

블룸버그가 13일 전한 노무라 홀딩
스 보고서는 "(이르면) 올 상반기 유로
·달러 등가 환율 가능성을 결코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보고서를 작성한 에스 노르드빅 노
무라 환 리서치 책임자는 "6개월 안에
실현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노르드빅에 의하면 유로·달러 환율
은 현 1분기 말 1.20이 되고, 2분기 말에
는 1.15까지 더 떨어질 전망이다.

올 연말에는 1.12로, 유로 가치가 더
떨어질 것으로 관측됐다.

노르드빅은 ECB가 QE를 채택할 것
이란 관측이 확산하고 있다면서, 이것

이 유로 가치 하락을 부추기는 주요 요
소라고 분석했다.

세계 주요 채권펀드인 핍코도 유로·
달러 등가 환율을 내다봤다.

핍코의 리처드 클라리다 수석 전무
는 13일 블룸버그 TV 대담에서 "(유로
가치)하강 압박이 매우 거세다"고 말
했다.

클라리다는 "유로 경제가 크게 흔들
리던 2011년과 2012년에도 유로·달러
환율이 1.1837을 밑돌지 않았다"면서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고 지
적했다.

그는 "다음번에 예상되는 것은 등가
환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언제 그렇게 될 것인지는 언
급하지 않았다.

블룸버그는 이와 관련, 골드만 삭스
가 지난주 달러에 대한 유로 가치가 앞
으로 2년 15%가량 더 떨어져, 등가 환

율이 될 것으로 내다봤음을 상기시켰
다.

웰스 파고 인베스트먼트 인스티튜
트의 폴 크리스토퍼 국제 전략 책임자
는마켓워치에 "ECB가 QE를 채택하
는 것은 획기적인 일"이라면서 이것이
유로·달러 등가 환율을 촉진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브라운 브라더스 해리먼의 글
로벌 환 전략 책임자 마크 쉐들러는 마
켓워치에 "(유로·달러 등가 환율) 장
·단점을 겸비한 복합적인 사안"이라고
말했다.

유로·달러 환율은 지난해 말 이후
2.6% 추가 하락해 13일 1.1753으로, 9개
월 사이 바닥을 보였다.

99년 출범한 유로가 달러와 동등한
가치를 보인 것은 2002년 12월 한 번뿐
이다.

jkusun@yna.co.kr

최고령 할아버지의 건강푸드 오트밀, 효능이 어떨길래?

(뉴욕 로이터=뉴스1) 김정환 기
자 = 미국 내 최고령 할아버지가
110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한 가운데
그의 건강 푸드가 오트밀인 것으로
밝혀져 지구촌의 이목이 쏠리고 있
다.



미국 최장수 할아버지의 건강 푸드

최근 시카고 선타임스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일리노이 주 북부 락
포드 시에 거주해온 미국 최고령 남
성 C. 콘래드 존슨 씨가 지난해 12월
23일 오전 세상을 떠났다.

1904년 1월 19일생인 존슨씨는 정
확히 110년 338일을 살았다.

스웨덴 가정의 10남매 중 막내로
태어난 그는 어려서 부모를 따라 미
국에 이민한 후 목수가 됐고, 이후
락포드 인근에서 건축 사업을 하며
살았다.

2번 결혼했으나 자녀는 없고, 첫
부인은 지난 1988년, 둘째 부인은 지
난 2002년에 각각 사별했다.

존슨씨는 109번째 생일을 맞은 지
난해 1월 지역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매일 아침 오트밀(귀리죽) 한 사발
을 먹고 열심히 운동하는 것을 자신
의 건강 비법이라고 소개했다.

당시 그는 "아파 본 적이 거의 없
다. 건강 상태가 매우 좋다"고 말했
다.

이에 그의 건강 푸드인 오트밀에
대해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오트밀은 귀리로도 잘 알려져 있
는 오토(Oat)를 가마에 굵고 압착·
절단하여 소화 및 조리에 용이하도록
가공한 것이다.

미국 뉴욕타임스에서 선정한 10
대 건강식품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오트밀은 단백질, 필수 아미노산,
미량영양소(칼슘, 칼륨, 철분, 마그
네슘, 인, 셀레늄 등)와 식이섬유가 풍
부하여 영양 균형 잡힌 다이어트식
으로 유명하다.

최근엔 심혈관 질환과 당뇨병 치
료에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오트밀
을 찾는 사람들이 더욱 늘고 있다.

kijez875@news1.kr

게이츠와 1, 2위 다투는 멕시 코 재벌 슬림, NYT 최대주주

(서울=연합뉴스) 한미희 기자 =
멕시코 통신재벌인 카를로스 슬림
아메리카 모빌 회장이 미국 유력지
인 뉴욕타임스(NYT) 지분을 17%
가까이 늘리며 최대주주로 등극했
다.

로이터통신은 14일(현지시간) 슬
림 회장이 보유한 NYT 주식에 대
한 신주인수권(워런트)을 행사해
주당 12.57달러인 이 회사 클래스A
주식을 절반가격인 6.36달러에 1590
만주를 인수했다고 보도했다. 총 매
입금액은 약 1억 110만달러(약 1097
억원)지만 슬림 회장은 주당 6.21달
리의 차이로 총 1억달러의 이익
을 얻어 사실상 주식을 거저 취득한
셈이 됐다.

이로써 슬림 회장의 NYT 지분
율도 종전 8%에서 16.8%로 늘었다
. 14일 종가인 12.28달러 기준으로
슬림회장이 가진 NYT지분 시장가
치는 3억 4140만달러에 달한다.

아메리카 모빌과 카르소 글로벌
텔레콤 등을 소유한 슬림 회장은 멕
시코에서 '경제대통령'이라고 불리
며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회장
, 워런 버핏 버크셔해서웨이 회장과

세계 1~3위를 다투는 갑부이다. 그
의 총재산은 800억달러에 가깝다.

슬림회장은 2009년에 NYT가 재
정적으로 어려울 때 2억5000만달러
를 대출해주고 이자와 함께 향후
1590만주를 주당 6.36달러에 인수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워런트)을 지
급받았다. 신주인수권은 미래에 새
로 발행하는 주식을 우선 인수할 권
리다.

일각에선 슬림 회장이 NYT를
인수할 생각인지에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현 소유주인 오
츠 슈츠버거 가문이 NYT를 팔지
않는 한 슬림 회장이 NYT를 인수
할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

슬림 회장은 클래스A 주식으로
의결권을 가질 수 있는 이사만 선임
할 수 있는데 이는 전체 이사회 3
분의 1 수준이기 때문이다.

ungaungae@news1.kr



삼성전자, 8조1천억원에 블랙베리 인수 추진

블랙베리는 보도 내용
부인...주가 30% 급등

(워싱턴=연합뉴스) 심인성 특파
원 = 삼성전자가 캐나다 스마트폰
제조업체 블랙베리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고 14일 로이터통신이 뉴욕발로
보도했다.

로이터는 이 사안에 정통한 소식
통과 관련 문서를 토대로 삼성전자가
특허권 확보 차원에서 최대 75억
달러(8조1천112억원)를 들여 블랙베
리 인수를 시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삼성전자가 1차로 주
당 13.35~15.49달러를 제안했으며
이는 최근 블랙베리 주가보다
38~60%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전체 인수금액으로 환산하면 60억
~75억 달러에 달한다.

익명을 요구한 이 소식통은 양사

경영진이 지난주 만나 인수 계약 건
에 대해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인수가 성사되면 삼성전자는 블
랙베리가 가진 특허권을 확보해 애플
등과의 경쟁에 도움을 얻을 수 있
을 것으로 로이터는 내다봤다.

또 경영난에 시달려온 블랙베리
의 대주주 프페어팩스파이낸셜홀딩
스도 어떤 형태든 삼성전자와의 제
휴를 환영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스마트폰 초기 업계를 주도했던
블랙베리는 애플의 아이폰 등 후발
주자의 추격으로 영향력을 잃고 경
영난에 시달리다 한때 매각을 추진
했다.

이후 매각 대신 독자회생으로 선
회한 블랙베리는 2013년 11월 존 쉐
최고경영자(CEO)를 영입한 뒤 과
거 위상 회복을 노리고 있으며 최근
에는 초기 디자인을 살린 클래식 모
델을 출시하기도 했다.



지난해 3분기 블랙베리 매출은 7
억9천300만달러로 업계 예상치인 9
억3천150만달러를 밑돌았다. 전년
동기 매출은 11억9천만달러였다.

삼성전자와 블랙베리는 지난해 11
월 보안 플랫폼 관련 협력을 위한 파
트너십을 체결한 바 있다.

블랙베리는 그러나 인수 관련 보
도 내용을 부인했다고 AP통신이 전
했다.

삼성전자의 블랙베리 인수 타진
소식이 전해지자 이날 나스닥에서
블랙베리 주가는 전날보다 29.71%
오른 12.60달러에 마감했다.

inishmore@yna.co.kr

TASTE OF KOREA

코리아나

KOREANA RESTAURANT

코리아나에서 블랙앵거스 비프 를 시작합니다
 최상의 품질의 바베큐를 제공하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BEST OF BOSTON
2006

BEST OF BOSTON
2001

BEST OF BOSTON
2000

최상급 블랙 앵거스 비프를 사용한 코리아나의 바베큐를 맛보세요

Parking Information

- 주유소주차, Broadway Gas Station (Mon~Sat: After 6pm), (Sun, Holiday: All Day)
- 건물 뒤 주차장, Drive Way(Behind Building) (Lunch: 4 Cars), (Dinner: 2 Cars)
- 도로주차, Broadway Play Ground 옆 (2 Hours Free Parking: 8am~6pm), (After 6pm: Free) (Sun: All Day Free)

*이외에도 Free Parking 가능한 곳이 Restaurant 가까이에 여러곳이 있습니다. 전화로 문의해 주세요.

617.576.8661
www.koreanaboston.com

영업시간
 일요일-목요일(11:30AM~10:30PM)
 금요일-토요일(11:30AM~12:00AM)
 158 Prospect St. Cambridge, MA 02139

형사법
 상법/회사법
 유언장/ 상속
 민사법
 부동산법

스티븐 김 변호사
 보스톤 검사 경력
 (Steven S. Kim)

617.879.9979
stevenkimlaw.com

The Law Office of Steven S. Kim
 2001 Beacon Street, Suite 101,
 Boston, MA 02135
Steven@stevenkimlaw.com

헤어 앤드 그레이스 살롱

처음 고객님 20% 할인

올가닉 트리트먼트

헤어컷
 컬러, 하이라이트, 코팅
 트리트먼트
 Up-Do
 메이크업
 왁싱
 각종 펌

예약문의 **508-879-7777**

Natick Mall에서 **3분 거리**

914 Concord St.
 Framingham, MA 01701

'문건 배후 K.Y' 사태 확산 모드...여권 혼란 가중

"청와대 '나사' 빠져" "다른 때보다 언행 더 조심해야" 비판

김무성 "행정관과 싸울 수는 없는 것" 확전 자제

(서울=뉴스1) 여태경 기자 =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수첩 속 '문건 과동 배후 K.Y' 과장이 최근 표면화되고 있는 당청과 계과 갈등과 맞물리면서 여론 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메모 속 K.Y가 김 대표와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이고 이 같은 발언을 음증한 청와대 홍보수석실 행정관이 어느 사석에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음 행정관의 발언을 김 대표에게 전달한 당사자는 참석자 중 한명인 이준석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언론보도 후 음 행정관이 메모 내용

과 같은 발언을 한적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어 이번 사태가 진실공방 양상으로 번지고 있기도 하다.

이에 대해 김 대표와 유 의원은 불쾌감을 드러내면서도 발언을 자제하며 사태의 확산을 막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김 대표는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수첩 메모는 어느 자리에서 이 이야기를 들었다. 처음에 들을 때 하도 황당한 얘기가 돼서 메모를 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근데 너무 황당한 얘여서 신경쓰지 않고 있었는데 본회의장에서 다른 메모를 찾다가 그게 찍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음해를 당하는 것도 사실 참기가 막힌데 어제 종편 등 뉴스를 보니까 제가 의도적으로, 사진을 찍히기 위해 그렇게 했다 이렇게 누명을 씌우는 것도 기가 막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또 일부 의원들에게 "행정관하고 내가 싸울 수는 없는 것이 아니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 대해 당내에서도 못마땅해 하는 의원들이 상당수 있는 상황에서 친박계 의원들의 보좌관 출신인 청와대 행정관이 사석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들으며 생각에 잠겨 있다

한 사실이 알려지자 자칫 당내 계과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당장 친이계 좌장격인 이재오 의원은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이제는 문고리 3인방 비서관도 부족해서 행정관도 나서서 온 데 핫소리를 하고 다니고 이렇게 해서 되겠다"며 청와대를 향해 맹공을 퍼부었다.

이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청와대가 기강이 없으니 행정관들

이 밖으로 나와서 술자리서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그렇다"며 "청와대가 그만큼 '나사'가 빠졌다는 것"이라고 했다.

한 조선의원은 "뉴스로만 소식을 접하는 의원들이 보기에는 사실 분개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다른 조선 의원은 "팩트를 정확히 모르지만 어쨌든 대통령과 김 대표가 직접 만나서 이런 것은 훌훌 털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 재선 의원은 "한창 공직기강 해이 문제나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 등 여러 일들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언행에 있어서 다른 때보다 더 조심해야 한다"며 음 행정관의 행동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친박계 중진 의원은 "행정관 본인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고 한마디로 해프닝"이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haru@news1.kr

Cheap or Quality?

ASC : Boston's #1 ESL School

Fall class starts on September 2nd!



1 ESL or TOEFL 10% Off
Speak to an advisor now!
10% off total tuition for at least 4 months of enrollment. Limited Offer. Book by **September 2nd** for this discount.

2 What makes us different? These colleges accept...

The Level 5 "TOEFL/IELTS Waiver" applies for	
Northeastern Univ.	Pre-MBA Program
Cambridge College	Undergraduate and Graduate Programs
Lasell College	Undergraduate and Graduate Programs
Lesley University	Undergraduate and Graduate Programs
Merrimack College	Undergraduate (lv. 5) Graduate (lv. 6)
Boston Architectural College	

The Level 4 "TOEFL Waiver" applies for
Benjamin Franklin Institute of Technology
Quincy College
Middlesex Community College

The Level 6 "TOEFL Waiver" applies for
Southern New Hampshire University



Main: 1106 Commonwealth Ave. Boston, MA 02215 T. (617) 730-3705
Downtown: 65 Harrison Ave. 6th Fl., Boston, MA 02111 T. (617) 338-5288
Website: www.ascenglish.com

H MART

Yes, We are **OPEN 365** days a year!
SALE WEEK JAN. 16TH - JAN. 22ND, 2015
ONLY FOR HMART BURLINGTON STORE
 STORE HOURS : SUN.-THU. 8:00 AM - 9:00 PM | FRI.-SAT. 8:00 AM - 10:00 PM
 All prices are based on availability. Typographical errors may be present in the prices and descriptions. 수량에 따라 세일이 일찍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 광고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인쇄에 오류가 있을 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Follow us on Facebook, Twitter, Pinterest, and more to stay up to date on special offers, recipes, events, announcements, and even entertainment!

CUSTOMER SERVICE
 For coupons, Events & Exclusive Deals. Subscribe at www.hmart.com www.facebook.com/hmartofficial
 Toll Free No. 877.427.7386
 Customer_care@hmart.com



H MART



Let's Go Places

WIN THE NEW 2015 TOYOTA RAV 4 XLE

CUSTOMER APPRECIATION SWEEPSTAKES

Until Apr. 9th, 2015

at All MA Stores (Drawing Date : Apr. 12th, 2015 @ 4pm)
 Simply insert the bottom of your shopping receipts in the Sweepstakes Drawing Bin & you could be a winner. **SMART CARD MEMBERS ONLY WITH OVER \$20 PURCHASE.**



2015년형 토요타 라브 4 XLE의 당첨 기회를 잡으세요! H마트 MA 매장 스마트 카드 고객은 \$20이상 장을 보신 후 영수증에 찍힌 응모권으로 응모하시고 행운의 주인공이 되세요!



2015 RAV 4 XLE



★★★★★ **TOTAL 83 WINNERS!**

- 1st Prize : TOYOTA RAV 4 XLE - \$25,000 + value (1 winner)
- 2nd Prize : COCO Cosmetics Gift Set - \$499.99 (1 winner)
- 3rd Prize : AMORE Cosmetics Gift Set - \$99.99 value (1 winner)
- 4th Prize : Hmart Food Court Gift Certificates Pack - \$50 value (20 winners)
- 5th Prize : JUNG KWAN JANG RG Latte Box - \$20 value (10 winners)
- 6th Prize : HARU HARU Milled Rice 15 lbs. (50 winners - 25 per store)

No purchase necessary to win. You may also simply sign up for a Hmart Smart Card in order to receive (1) raffle ticket. Must be a legal resident in the United States to win. All taxes and fees will be responsible for the vehicle winner. All Hmart employees, families, related vendors, & tenants of all Hmarts are ineligible to win. You may email us at marketing@hmart.com for more details.



*The actual prize may look different than the image above.



That's how the Koreans do it. Now you can do it and save too.
 겨울에도 따뜻하게! H마트와 함께 집안에서 바베큐를!

<p>금토일만 세일 가격 적용 Fri/Sat/Sun Limited Time Offer</p> <p>ONION 양파 10 lbs./bag \$4.99</p>	<p>금토일만 세일 가격 적용 Fri/Sat/Sun Limited Time Offer</p> <p>ORGANIC ENOKI MUSHROOM 유기농 팍이버섯 5.3oz./pkg. for 2\$4</p>	<p>FRESH</p> <p>BEEF TENDERLOIN (WHOLE PIECE) 안남 \$8.99/lb.</p>	<p>FRESH</p> <p>SLICED PORK SINGLE BELLY BBQ 바베큐용 생삼겹살 \$7.99/lb.</p>
<p>MARINATED TENDERIZED SLICED BEEF RIB EYE STEAK 양념 벌집 등심 스테이크 \$6.99/lb.</p>	<p>HAIOREUM KOREAN STYLE BEEF BBQ SAUCE 해오름 소갈비/불고기 양념 2.11 lbs. \$4.99</p>	<p>OHSUNG HONG RAMYUN Hot&Spicy/Mild 4.2oz. x 5ea./pkg. \$2.99</p>	<p>KYS-868A/ea. HELLO HOME ELEC. GRILL 헬로홈 전기 그릴 \$29.99</p>

<p>Fuji Apple 후지 사과 \$1.49/lb.</p>	<p>금토일만 세일 가격 적용 Fri/Sat/Sun Limited Time Offer</p> <p>Korean Singo Pear 신고배 박스 box \$24.99</p>	<p>Koimo Sweet Potato 코이모 고구마 \$1.49/lb.</p>	<p>FRESH</p> <p>Ox Tail 생 소꼬리 \$9.99/lb.</p>	<p>FROZEN</p> <p>Thinly Sliced Beef Brisket Shabushabu 샤브샤브용 냉동 차돌박이 \$9.99/lb.</p>	<p>FROZEN</p> <p>Norwegian Mackerel 노르웨이 고등어 400-600s/lb. \$1.99</p>
<p>Cod Fillet 대구 전갈 \$4.99/lb.</p>	<p>FROZEN</p> <p>HAIOREUM Premium Frozen Oyster 해오름 청정생굴 8oz./pkg. \$3.49</p>	<p>FROZEN</p> <p>TONGTONGBAY Seafood Mix 통통배 해물모듬 1 lb./pkg. \$3.99</p>	<p>FROZEN</p> <p>TONGTONGBAY Dried Squid Thin Sliced 통통배 오징어 실채 8oz./pkg. \$5.99</p>	<p>HARU HARU Milled Rice 하루하루 마이 쌀 15 lbs. \$15.99</p>	<p>Kyong Gi Rice 경기미 40 lbs. \$29.99</p>
<p>SAMYANG Spicy Fried Chicken Noodle Bowl 삼양 불닭볶음면 작은 사발면 2.46oz. x 6ea./pkg. \$6.99</p>	<p>HAIOREUM Roasted Seaweed Laver 해오름 도시락 김 Original/Parae 0.15oz. x 8ea./pkg. \$2.99</p>	<p>Q1 All-Purpose Wheat Flour 쿼인 다목적용 밀가루 5.5 lbs. \$2.99</p>	<p>HAIOREUM Canned Mackerel Pike 해오름 광치 통조림 14.1oz. 2\$3 ea./for</p>	<p>CI BEKSUL Classic Dumpling/Crispy Potstickers CI 백설 물만두/군만두 28 - 32oz. \$6.99</p>	<p>KWANG DONG Herbal Tonic Drink 광동 생허탕 3.3fl.oz. x 10ea./pkg. \$4.99</p>
<p>HAIOREUM Aloe Vera Juice 해오름 알로에 베라 주스 All Flavors/16.9fl.oz. \$0.99</p>	<p>HORMEL FOODS Spam 스팸 Classic/25% Less Sodium Lite - 12oz. 2\$6 ea./for</p>	<p>SCOTT Bathroom Tissue 스캣 화장지 20rolls/pkg. \$13.99</p>	<p>Microfiber Slippers 극세사 코듀레이 슬리퍼 All Colors/Pair \$2.99</p>	<p>ARTWARE Soju Shot Glass 아트웨어 소주잔 4pcs/pkg. \$2.49</p>	<p>ZOJIRUSHI Indoor Elec. Grill 조지루시 실내용 전기 그릴 EB-CC15/ea. \$64.99</p>

'문건배후' 논란 음 행정관 면직

음 행정관, 추종
여당대표 언급 의혹보도
이틀 만에 속전속결

문건유출,
비서관·행정관 연루,
김영한 수석
'항명사표' 이어

(서울=뉴스1) 윤태형 기자 = 청와대는 14일 한 행정관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의원을 청와대 문건 파문의 배후로 지목했다는 의혹이 발생하자 해당 행정관을 면직처리키로 하는 등 긴급진화에 나섰다.

지난 9일 김영한 민정수석의 '항명사표'로 청와대 공직기강 문제가 여론의 도마에 오른 지 불과 나흘 만에 음종환 홍보수석실 행정관이 여당 대표를 추종 공격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긴급대응에 나선 것이다.

김 대표는 전날인 13일 자신의 수첩에 '청와대 문건' 파문의 배후로 적힌 이니셜 K, Y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입장 지료를 통해 "수첩의 내용은 얼마 전 모 인사로부터 들었던 것을 메모해 놓았던 것"이라고 밝혔고 이후 발언을

한 인사가 음 행정관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 날인 14일 오전 청와대는 민경욱 대변인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으로부터 사실관계 확인요청이 들어온 뒤 곧바로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을 통해 공식 확인 작업에 들어갔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음 행정관은 사의를 표명했고 이날 오후 사표를 제출, 청와대는 곧바로 음 행정관을 면직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사건이 알려지지 불과 이틀 만에 이뤄진 일이었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음 행정관이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부인하는 상황이지만, 일단 추종에 이준석·손수조 등 새누리당 관계자와 함께 한 자리에서 여당 대표를 공격했다는 논란이 벌어졌다는 점에서 음 행정관의 신속한 처리는 불가피 했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청와대 문건' 유출이 청와대 비서관과 행정관 2인에 의해 이뤄졌다는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가 나온 지 열흘도 안됐고, 더구나 청와대 문건에 거론돼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음 행정관이 '의혹 당사자'로 언급되면서 청와대는 특히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이날 오전 김기춘 비서실장은 수석 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음 행정관과 관련한 보고를 받고 공직자의 처신



과 공직기강에 대해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날 청와대의 신속한 대응에는 최근 친박(박근혜)계와 비박계 간 갈등으로 인해 불편해진 당청관계도 배경이 됐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여권의 관계자는 "이날 음 행정관 관련 보도 이후 사실관계를 떠나 청와대의 한 행정관이 여당 대표를 추종에 언급했다는 의혹 보도만으로도 많은 여권 관계자들이 분노를 나타냈다"면서 "특히 음 행정관은 친박계 보좌관 출신으로 특히 비박계가 자극을 받은

것 같다"고 밝혔다.

아울러, 음 행정관이 정호성 제1부속 비서관과 친분이 두텁고, 검찰 조사 결과 허위로 드러나긴 했지만 '십상시'의 일원으로 행정관 중에서도 '실세'로 불리는 인물이라는 점도 부담이 됐을 것이라는 해석도 청와대 일각에서 나온다.

음 행정관은 권영세 현 주중대사,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 등 친박계 의원들의 보좌관을 지냈다. 2012년 대통령 선거 당시에는 박근혜 선거캠프에서 공보단장을 맡고 있던 이 의원 밑에서 야당의 네거티브 공세에 대응하는 공

보기획팀장을 맡았다.

당시 캠프 공보팀에서 활동했던 한 인사는 "(음 행정관이) 친박계 핵심 보좌관으로 언론대응과 네거티브 대응에 핵심 역할을 했다"면서 "특히 음 행정관은 대선 당시 박 대통령 보좌관들과 밀접하게 소통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음 행정관은 현 정부 출범 이후 홍보수석을 맡은 이정현 의원과 함께 청와대에 행정관으로 임성했고, 이 의원이 청와대를 떠난 이후 홍보기획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해왔다.

birakoca@news1.kr



이준석 새누리당 전 비상대책위원

청와대가 이준석 종편출연 청탁? 정치권 구설수로

(서울=경향신문) 디지털뉴스팀 = 청와대 음종환 전 행정관이 새누리당 이준석 전 비대위원(사진)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진 "네가 종편 출연 청탁한 카톡 다 공개한다"는 문자메시지가 정치권에서 구설수에 올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정현 부대변인은 15일 논평을 내고 "음 행정관과 이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이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 내용 중 공개된 부분만 해도 종편을 둘러싸고 청탁이 이뤄졌다는 것인데, 만약 그렇다면 청와대의 내밀한 곳에서 권력을 남용하면서 종편 방송사를 대상으로 언론공작을 벌인 정황이 백일하에 드러난 것"이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김 부대변인은 "청와대가 친정부적인 여론

형성을 목적으로 종편에 압력을 행사했다면 민간방송에까지 권력남용의 축수가 뻗친 것"이라며 "그 청탁의 실제적 내용이 무엇이고 실제로 청탁이 이뤄졌는지, 그 과정에서 음종환 행정관이 청와대 홍보수석실 선임행정관으로서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적은 없는지, 또 청탁을 주고받은 양측의 위치를 볼 때 청와대 내 윗선의 개입은 없었는지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대변인은 "만약 권력을 이용해 청와대-종편-새누리당의 트라이앵글을 구축하려 했다면 이는 또 다른 국기문란사건"이라며 "관계당국은 즉각 청와대 권력남용 언론공작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라"고 말했다.

이준석 "문건배후설 김 대표에 전달 당시 동석자도 음 행정관 얘기 알더라"

"원한관계로 치부할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아니었다"

(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 = 이준석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은 15일 음종환 전 청와대 행정관이 제기한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문건 유출 K(김무성), Y(유승민) 배후설'을 김무성 대표에게 전달할 당시 함께 있었던 한 인사도 같은 얘기를 먼저 들은 적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 전 비대위원은 지난 6일 김 대표와 유승민 의원 등 전·현직 의원이 함께 있었던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의 결혼식 피로연에서 'K, Y 배후설'을 김 대표에게 전달했다.

이 전 비대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김 대표에게 전달할 때 음종환 행정관을 특정하기 보다는 '최근에 제가 청와대 분들하고 어떤 자리가 있었는데 청와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당을 이번 사건의 배후로 지목하는 이야기가 있어 깜짝 놀랐다'고 전달했다"며 "그 자리에

계신 분이 오히려 그 발언한 사람이 음 씨라고 저에게 반문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래서 어떻게 아셨는지 모르지만 (음 행정관이) 맞다고 사실을 확인해 드렸다"며 "그 말을 하신 분은 '어차피 정가에서 여러가지 얘기가 돌기 때문에 한 번 들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전 비대위원은 해당 인사가 누구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사건이 마무리된 상황에서 그 분을 따로 거론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이 전 비대위원은 "개인적으로 음 행정관과 다른 자리에서 만났을 때는 (김 대표와 유 의원에게) 비판적인 의견을 개진하는 것을 듣지 못했다"면서 "원한관계(에서 나온 얘기)로 치부할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 전 비대위원은 "김 대표에게 전달한 것은 공직기강의 차원에서 조용하게 항의를 해야 한다는 취지였다"며 "전개나 결말이 저도 당황스러운 입장"이라고 말했다.

ydkim@news1.kr



DOCTORS MEDICAL PHYSIO GROUP

닥터스통증병원

여러분의 "디스크"를 수술 없이 치료해 드립니다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DRX-9000

최첨단 무중력 감압 디스크 치료기로, 디스크 내부를 무중력 상태로 만들어 감압환경을 조성, 밀려난 디스크를 원상태로 복구하는 무통증 치료로 정상적인 디스크를 해하지 않으며, 근육 및 신경 또한 손상시키지 않는 디스크 치료의 필수장비입니다.



원장 윤창 교수

책임 진료

닥터스통증병원은 28년 경력의 물리치료 전문의와 척추신경 전문의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물리치료 및 교통사고 재활치료 전문 병원으로 최신 장비와 의술로, 모든

환자분들의 환부가 손상되기전의 최고 기능을 회복하며, 신체적인 편안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넓은 진료 장소(브룩라인, 월섬)



닥터스통증병원은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DOCTORS MEDICAL PHYSIO GROUP

닥터스통증병원

GOODPT.com

브룩라인 지점(Brookline)

617-731-1001

44 Washington St, Suite 104
Brookline, MA 02445

월섬 지점(Waltham)

617-731-1004

221 Moody St.
Waltham, MA 02453

그들만의 리그, 야 당 대표 경선 판세 꿈틀

문재인,
일반 여론서 많이 앞서
박지원,
대의원·권리당원서
큰 폭 상승

이인영 "박 제치고
2위로 올라섰다
문,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는 간격"

(서울=뉴스1) 김현, 박상휘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2·8 전당대회 레이스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이인영, 박지원 후보(기호순)간 대결을 펼치고 있는 당 대표 경선 판세가 꿈틀거리고 있다.

각 캠프 관계자들과 복수 당직자들에게 따르면, 선거 시작 전부터 '대세론'을 형성했던 문 후보가 여전히 1위를 달리고 있고 박지원, 이인영 후보가 추격전을 펼치고 있는 흐름인 가운데, 격차가 좁혀지고 있는 추세라고 한다.

다만 1, 2위로 분석되는 문재인-박지원 후보간 격차가 좁혀지는 추이에 대해선 다소 의견이 엇갈렸다.

한 당직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대세론까진 모르겠지만 문 후보가 앞서 있는 구도 자체를 흔들만한 특별한 변수가 없었지 않느냐"며 "다만 처음 보던 컷오프를 통해 후보들이 걸러지면서 일정부분 각 진영으로 결집하는 양상이 있어 격차는 어느 정도 줄어들었다고 봐야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 최고위원 후보 캠프 관계자는 "문 후보와 박 후보간 격차가 많이 좁혀져 사실상 박빙 상태까지 온 것 같다"고 밝혔다. 이인영 후보측도 자신들이 2위로 올라섰다고 주장하면서도 "문 후보와의 격차는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는 거리까지 왔다"고 말했다.

실제 일부 여론조사에선 이같은 흐름이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 여론조사전문업체인 조원씨앤이아가 지난 10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일반국민에선 문 후보가 큰 격차로 앞서지만 대의원과 권리당원에선 박 후보가 강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국민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이라고 응답한 429명을 대상으로 RDD(임의결기) 방식으로 무선조사를 실시한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4.7%P), 문 후보는 57.3%를 얻어 박 후보(24.3%)를 2배 이상 격차로 따돌렸다. 이 후보는 9.2%를 얻었고, '기타·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인원은 9.1%였다.

같은 날 대의원 10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적합도 조사(95% 신뢰수준에서 ±3.1%P)에선 박 후보가 43.3%로 문 후보(37.5%)와 이 후보(14.1%)를 제쳤다. 다만 이 업체가 지난해 12월 실시



11일 부산 해운대 벅스코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부산광역시당 정기대의원대회 및 당대표·최고위원후보 합동연설회에서 문재인(왼쪽부터), 이인영, 박지원 당대표 후보가 손을 맞잡고 당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한 조사(박 31.1%, 문 24.4%)보다 격차가 0.9%P(6.7%P→5.8%P)줄어들었다. 권리당원 10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95% 신뢰수준에서 ±3.1%P)에선 박 후보가 47.7%로, 문 후보(35.5%)와 이 후보(11.2%)를 제치고 1위로 나타났다. 지난 조사에선 문 후보(32.6%)가 박 후보(28.3%)를 앞섰지만, 박 후보가 권리당원에서 큰 폭의 지지율 상승을 이끌어내면서 역전을 한 것이다.

김대진 조원씨앤이 대표는 뉴스1과 통화에서 "후보 등록과 컷오프를 거치면서 후보들이 정리된 이후 조사를 한 결과, 일반 국민에선 여전히 문 후보가 압도적 우위를 보이고 있지만 당원 조사에선 친노(친노무현)-비노(비노무현) 성향에 따른 결집 양상으로 비

노 쪽 성향 당원들이 박 후보쪽으로 돌아선 것 같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지난 조사에서 당원들 사이에 '기타·잘 모르겠다'고 응답하는 지지유보층이 25% 안팎이었는데, 이번 조사에선 5%대로 떨어진 게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전대의 선거인단 구성비율은 대의원 45%, 권리당원 30%, 일반 당원 10%, 일반 국민 15%다. 박 후보측은 이같은 결과가 당연하다는 분위기다. 박 후보측은 "선거인단 구성비대로 보정하면 박 후보가 1위"라고 주장했다. 박 후보도 이날 SBS 라디오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나와 '문재인 대세론'에 대해 "문 후보 대세론이 있었느냐. 언론에서 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냥 두고 보는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에 문 후보측은 "궁극적으로 우위

에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크게 개의치 않는다는 입장이다. 다만 지나치게 낙관적인 분위기가 흐를 경우, 지지층이 투표장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을 우려하며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다. 문 후보측은 "대의원을 보면 호남 이외의 지역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 호남에서도 전북은 우세하다"며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만만치 않은 선거라고 생각하고, 지지층 결집을 위해 후보의 메시지 강도를 강화하는 한편 일정을 좀 더 촘촘히 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인영 후보측은 "이 후보가 강조하고 있는 '민생', '노동'의 이슈가 국민들과 당원들 사이에서 먹히고 있다"면서 "조만간 판세에 변화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

gayunlove@news1.kr

한상진 "새정치 민주연합 전당대회 욕심많은 놀부들의 싸움으로 전락"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의 전신인 민주당 대선평가위원장을 지낸 한상진 서울대 명예교수는 12일 2·8전당대회와 관련해 "흥부는 저리가고 욕심많은 놀부들의 싸움으로 전락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교수는 이날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 집중'에 출연해 "새정치연합 전당대회가 전혀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고, 관심도 끌지 못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 교수는 "관객의 흥금을 터놓는 스타가 없다"며 "세 분의 연기자지는 있으나 각자 자기 입장에서 하고 싶은 말만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문재인, 박지원, 이인영 후보에 대해 "권력의 화신들"이라며 "정치적 욕심으로 가득 차 있다. 고통받는 국민은 탐욕스러운 지도자들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 교수는 '향후 새정치연합의 전당대회는 어떻게 치러야 하느냐'는 물음에 "치열한 논쟁이 일어나야 된다"며 "그런데 새정치연합은 반성은 철저히 회피한다. 추상적 반성을 한다"고 지

적했다. 이어 "과거 인물들이 계속 이어가기 때문에 책임의식이 없다"며 "이 사람들의 미래 약속을 국민들이 과연 믿겠는가. 공허한 구호로 들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인영 의원의 경우 '세대교체'를 주장하고 있으나, 1980년대 운동권 중심 정치인들의 그동안 실수와 한계를 보인 것에 대한 통렬한 반성이 앞서면서 세대교체를 주장해야 설득력이 있는데 반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정동영 교문의 탈당에 대해선 "새정치연합의 비극"이라며 "전당대회를 보면서 희망을 접는 것 같다.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 분은 사실 대선 후보까지 되지 않았느냐"며 "이건 단적으로 우리 사회의 정치윤리 실종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새정치연합은 이번 사건의 파장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새롭게 변신하지 않으면 큰 과실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pjy1@news1.kr

새누리, '박원순 진상조사단' 위원 확정

박 시장 측
"본인들 문제부터 따져야...
대응 않겠다"

(서울=뉴스1) 김유대, 고유선 기자 = 새누리당은 14일 박원순 서울시장을 겨냥한 '인사전횡 의혹 진상조사단' 위원 7명을 확정했다.

진상조사단의 단장은 재선인 김용태 의원(서울 양천구)이 맡고, 간사에는 '박원순 저격수'를 자처해온 이노근 의원(서울 노원구)을 임명했다.

진상조사단에는 또 서울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유일호(서울 송파)·박인숙 의원(서울 송파)도 가세했다.

서울시 공무원 출신인 윤영석 의원과 황

인자 의원, 검사 출신인 김용남 의원 등도 진상조사 위원으로 임명됐다.

김현숙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지방자치에 낙하산 보은 인사, 권력사유화가 만연하게 되면, 재정 문제를 포함한 지방자치제도 전반에 위기가 올 수 있다"며 "새누리당은 이번 진상조사단의 활동을 통해 지방자치가 뿌리부터 건강해질 수 있도록 위기의 내재적 요인을 철저히 짚어보고, 한 단계 발전 가능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같은 새누리당의 진상조사단 구성과 관련해 김원이 서울시 정무수석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 문제가 국민들이 볼 때 더 심각하다"며 "본인들 문제부터 천착해야지 왜 일을 잘하고 있는 서울 시장을 흔들지는 모르겠다. 일절 대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ydkim@news1.kr

“매주 2만여명의 독자를 직접 찾아갑니다”



보스톤코리아 이메일 발송 서비스

- 2만여 회원들에게 인터넷 지면보기 전세계 어디서나 볼 수 있어 보스톤 코리아가 매주 신문 발행과 함께 이메일로 2만여 회원들에게 인터넷 지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매주 새로운 소식을 전세계 어디에서나 웹사이트에서 또는 지면보기로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 새로운 소식, 깔끔한 디자인
새로운 소식을 깔끔한 디자인으로 전해드립니다. 컴퓨터는 물론 태블릿, 스마트폰에서도 저희 보스톤코리아를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보스토티안 2014도 볼 수 있어
보스톤 및 미주 생활 가이드로 교육에서 의료 그리고 각종 생활정보를 eBook 또는 보스톤코리아 웹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보스톤코리아 보기가 어려우시다면?
이제 이메일 주소로 신청하세요!**

픽업 장소가 마땅치 않아 보스톤코리아를 보지 못하는 분들은 bostonkorean@hotmail.com으로 이메일 보기 서비스를 신청하세요.

Dedicated to Your Health

Icon Dental

아이콘덴탈

Ultimate Smile



Quality Dental Care



렉싱턴과 콩코드에 편리하게 위치한 아이콘 덴탈은 여러분과 가족 모두에게 적합한 맞춤형 치료 계획을 통해 미용치과, 성인 및 소아 치열교정 및 최신 임플란트 시술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신 기자재와 진료기술 그리고 편안하며 현대적인 진료실에서 친절한 스태프와 함께 양질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표원장 치의학박사 안형준

57 Bedford St. Suite 220, Lexington MA 02420
전화 781-861-89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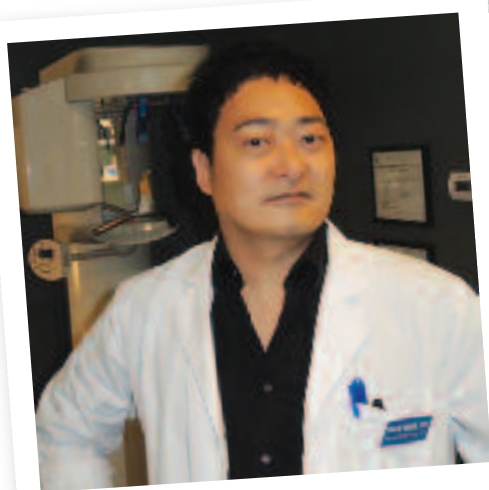
97 Lowell Rd. Suite A8, Concord MA 01742
전화 978-369-0254

이메일 info@icondentallexington.com
www.icondentallexington.com

Dr. 차 영 주
치과 일반의
Dr. James Kim
치과 일반의
Dr. Larisa Turkenich
치과 일반의
Dr. Charles Braga
임플란트 및 잇몸 수술 전문의
Dr. 오 동 현
교정 전문의

PROSPECT DENTAL GROUP, LLC Advanced Restorative Dental Clin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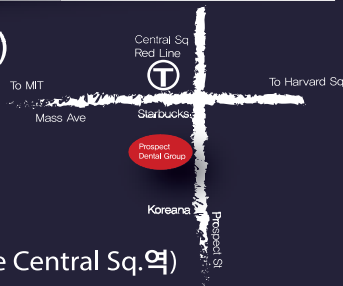
프로스펙트 덴탈의 진료는 미래의 당신을 위한 가장 값진 선물이 될 것입니다



Eugene Khang DMD(강유진)

- 한국어 가능
- 응급환자 당일진료
- 주말 진료
- Walk-ins Welcome
- 각종 보험

원장: Eugene Khang DMD (강유진)
진료시간: 월-금: 9AM ~ 6:30PM
토: 9AM ~ 5PM



TEL: 617.576.5300
30 Prospect St. Cambridge, MA 02139 (Redline Central Sq.역)
www.prospectdenta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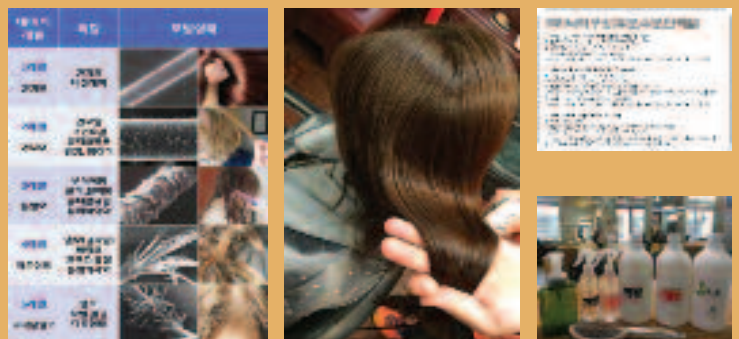
Salon Sabrina

헤어스타일리스트 영

염색과 파마로 손상된 머리결을 복구시켜 드립니다



전자 모락 트리트먼트



남자컷 25불/여자컷 30불/파마 70불 부터
디지털 130불 부터/케라틴 매직 220불 부터 시작합니다.

경력 압구정 김영남 미용실, 롯데호텔 마리 미용실, 송내 부천 박준 오픈 스텝
뉴욕 Fox헤어 스튜디오, SALON LOFTS sunny 운영

617.947.6840
25 church St. Watertown MA

어린이집 학대, 학부모 공분... "심장떨려 못보낸다"

정부가 뒤늦게
대책마련 분주
사전 예방 소홀 지적도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네살 여자아이 폭행사건 이후 아동학대 장면이 담긴 동영상은 온라인에 공개돼 학부모들이 크게 분노하는 등 파장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 여러차례 어린이집 아동 학대 사건이 언론에 보도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 장면을 본 학부모들은 충격을 금치 못하면서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도 되는지 불안에 떨고 있다.

특히 해당 교사는 경찰 조사에서 폭행 사실을 시인했지만 아이의 잘못된 습관을 고치기 위한 훈계 차원이라고 진술한 것이 알려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상황이다.

같은 반 아이의 아버지라고 주장한 사람은 이날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고 "지난 여름에도 어린이집에서 맞았다고 통증을 호소하던 아이의 엄마가 원장에게 CCTV 열람을 요청

했지만 거부하며 참으라고 한 적도 있었다"고 말하며 상습 폭행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저희 아이도 어린이집 안 가는 주말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어린이집 안 가는 날이야?'라고 물어보고 저녁 때는 '내일은 가는 날이야?' 물어봤다"며 "왜냐고 물어보면 얼버무리며 아니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들이 느꼈을 공포와 괴로움을 생각해보면 가슴이 먹먹하다"며 "울면서 안가겠다는 애들을 지옥 같은 곳에 떨어놓고 온 죄책감에 아이들 얼굴을 볼 수가 없다"고 자책했다.

보건복지부도 이날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경찰 등과 조사한 뒤 법령에 따라 시설 폐쇄나 자격 취소 등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히면서 뒤늦게 수습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부모모니터링단을 활성화하고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피해 아동과 같은 반 아동 모두에 대해서는 심리치료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또 아동폭력 재발 방지 차원에서 관련 법령과 행정적 조치를 담은 특단의



어린이집아동폭력 근절 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

하지만 어린이집아동폭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가 사전에 철저한 대책을 마련했더라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한편 인천 연수경찰서는 지난 8일 낮 12시50분쯤 이 어린이집 교실에서 자신의 딸 A(4)이 보육교사 B(33)여씨에게 폭행당했다는 부모의 신고를 받고 수사 중이다.

경찰은 확보한 어린이집 CCTV 동영상에서 B씨가 원생들의 급식 판을 수거하던 중 A양이 음식을 남긴 것을

보고 남은 음식을 먹게 하다가 A양이 이를 뱉자 오른손으로 머리를 한차례 강하게 때리는 장면을 확인했다.

서 있던 A양은 B씨에게 폭행을 당한 뒤 바닥에 쓰러졌고 교사가 자리를 떠나고 나서 자신이 뱉은 음식물을 닦아내는 장면도 담겼다.

주변 아이들 10여명은 모두 겁먹은 채 무릎 꿇고 앉아 해당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경찰은 지난 12일 B씨를 불러 조사했으며 추가 조사를 한 뒤 아동복지법상 학대죄 적용 등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국민 여론 등을 고려했을 때 해당 교사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도 고려 중

이다. 윤종기 인천지방경찰청장은 이날 상습성이 밝혀질 경우 엄벌이 가능하며 해당 어린이집을 폐쇄시킬 각오로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17일에는 인천 남동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 C(47)여씨가 낮잠을 자지 않는다며 2살과 3살 남자 아이를 위로 들었다가 내리치기도 했다.

지난해 11월에는 인천 서구의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네살짜리 원생의 양손목을 끈으로 묶어 문제가 되기도 했다.

dhspeople@news1.kr

김상훈 부인, "인질극 사건 전 경찰서 찾아갔었다"

김상훈 위협에 두 딸을
한 때 여관에 피신시키기도

(안산=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인질범 김상훈(46)의 부인 A(44)씨가 지난 8일 흥기에 떨어진 직후 안산상록경찰서를 찾아가 상담한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서측의 안내가 미온적이라고 판단한 A씨는 더이상 상담을 진행하지 않고 귀가한 뒤 두 딸을 피신시키려다가 인질사건을 당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A씨의 지인 B씨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A씨는 8일 김씨의 흥기에 쫓겨 병원 치료를 받은 뒤 다음날 안산상록서를 찾아가 상담했다"며 "하지만 경찰서 측의 안내가 미온적이라고 느껴서 그냥 되돌아왔다고 말하더라"고

주장했다. 안산상록서측은 그동안 A씨가 김씨로부터 폭행을 당해 신고를 해 온 사실은 없었다고 언론에 밝혀왔다.

경찰 관계자는 "민원상담실을 찾아온 것은 맞다"며 "민간상담사(퇴직 경찰관)는 '현행범 사건이 아니어서 고소장을 제출하면 해당 부서에서 안내해 처리해 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A씨는 고소장을 접수하지 않고 그냥 귀가했다"고 덧붙였다.

게다가 B씨는 신변의 위협을 느낀 A씨가 12일 두 딸들을 불러 근처 여관에 피신해 머물다 친부의 집에 돌려보냈다가 변을 당하게 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goals@yna.co.kr



인질범 김상훈 범행 5일전 "돌아오지 않으면 죽이겠다" 아내 협박

지난 8일 아내 불러내
흥기로 허벅지 찌르고 협박

(서울=뉴스1) 최대호, 이동희 기자 = 안산 인질살해범 김상훈(46)이 범행 수일 전에도 아내를 만나 흥기 협박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안산상록경찰서에 따르면 김씨는 범행 5일 전인 지난 8일 오후 벌거 중이던 아내 A(44)씨를 경기 안산 사동 자신의 집으로 불러 외도를 의심하는 말다툼을 벌였다.

말다툼 중 김씨는 A씨의 허벅지를 흥기로 찌르고 "돌아오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폭행했다.

A씨는 이 때 입은 상처로 병원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A씨는 김씨와 화해 후 병원에 함께 가면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인질사건 당일 A씨와 김씨 사이 통화 내용을 분석하는 과정에 이 같은 내용을 인지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당시 보복이 두려워 서였는지 신고하지 않았다"며 "안정을 찾으면 당시 사건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12일 오후 3시부터 13일 오후 2시30분 사이 안산시 본오동 A씨의 전남편 집에 침입해 전남편 B(49)씨와 B씨 막내딸(16)을 흥기로 살해하고 B씨 큰딸(17)과 동거녀(32)를 감금한 채 인질극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15일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 실질심사)을 앞두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김상훈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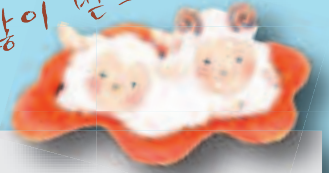
김씨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는 오늘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sun0701@news1.kr



1月 AMORE EVENT

올미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WORLD'S FIRST AIR CUSHION[®] XP
 Receive an IOPE Soam Cell[®] Trial Kit with purchase of an Air Cushion[®] XP.

Receive a Super Vital Cream Trial Kit with purchase of Super Vital Cream For Intensive.

Receive a Red Essence Trial Kit when you spend \$50 or with a Red Essence purchase.

Buy one Menaxin[®] hand cream, get one free.

AMORE 보스톤점

설화수, 아이오페, 라네즈, 러, 미장센
 INSIDE H MART BURLINGTON 781.229.6800

수잔 안 부동산

"TOP PRODUCER"
 #1 Agent Million Sales

Cell: 339.224.1512
 안수잔의 '고객 만족 최우선' 서비스



'Top-Producer'의 Know-how로
 고객 여러분의 부동산 관련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집 빠르게 팔고 사고
- 최고가격, 최고 서비스
- 건물 투자 상담



Somerville 5 Family \$ 999,900
 연수입 \$78900, 주거 면적 3072 Sq. 업데이트가 많이 된 집. (Anderson window, hard oak floors, granite counters, stainless appliances, Central Air Conditioning and in unit laundry), 경쟁력 있는 위치.



Brookline 2 Family \$ 1,100,000
 Tax\$8490, 주거면적2366sq, 대지면적4892sq, 좋은 학교, 잘 관리 된 집, Green line D 근처, Rt 9. 최상의 위치. 물 근처, 5 year Roof, 업데이트 heating system, 창문



Newton 2 Family \$749,900
 2가구 세들어 있음, 총 수입 약 55,000, 대지 면적 6555 sq.ft, 년Tax \$5664



Newton \$1,300,000
 2가구입주, 연수입\$84,500, 대지면적9229sq ft. 업데이트 많이 되어 있음. 렌트하기 좋은 위치(T 근처), 보스톤칼리지



Newton \$1,999,000
 2013년 새집. 최고 학교, 주거면적 5857sq ft. 대지면적 10990 sq ft. 방5개, 화장실5.5개 Energy Star, Finished Basement, Newton South High school



Newton \$999,000
 2013년 새집, 방 4개 화장실 3개, 좋은 학교 보그드론 새집 가격, 주거 면적 3850sq ft, 대지 면적8700 sq ft, Finished Basement, Newton South



Reading \$ 365,000
 2013 새 콘도 분양. 좋은 학교, 편리한 교통, 렌트비보다 저렴한 페이먼트, 방2, 화장실2개, 주거면적 1300sq ft. 30만불대는 한 유닛 남았음. 95 고속도로 근처, Garage Parking



Burlington \$ 589,000
 2013년 새집. 방3개, 화장실 2.5개, 주거 면적 2000sq ft, 대지 면적 4775 sq ft. H mart 상권 근처.



Boston Fenway \$ 364,000
 방 1개, 화장실1개, 주거면적 576sq ft, 콘도 fee \$ 298 (Heat, Hot water포함) 보스톤 중심의 대학가, T Station, 공원, 박물관.



Winchester \$1,390,000
 2013년 새집 최고의 학교 방4개 화장실 4.5개 주거면적 4000sq ft. 대지면적 17548sq ft. 마루 바닥, 최고의 학교, 편리한 교통

“TOP 에이전트가 TOP으로 모입니다”

centre realty group
 1280 Centre St, Newton Centre, MA
 460 Main St, Watertown, MA

‘성령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로 인해 막혔던 담을 예수님이 무너뜨리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겸손, 은유, 인내, 사랑, 용납,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금요찬양예배 저녁 8:00
주일예배 오전 10:00

주일 예배 오전 10:00
주일학교, 유스 예배 오전 10:00
금요찬양예배: 금 오후 8: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토 오전 7:00
청년모임 주일오후 12:30
속회모임 수 - 주일 속회별
중보모임 화, 목 오후 8:00, 주일 오전 9:30
성경공부 주일 오후 12:30, 수 오전 9:30, 금 오후 9:30

비전 교회
The people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

80 Mt. Auburn St., Watertown, MA 02472 Tel: 617.744.9557
www.gracevisionumc.org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 삶을 노래하는 교회

나사렛사람의교회

KOREAN CHURCH OF THE NAZARENE

주일예배 오전 11시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합니다.
나사렛사람의교회도
가까이 있습니다.”**

900 Main Street
Reading, MA 01867
보스톤 북쪽
I-95 Exit 38B
(Rt. 28N)로 나와서
2 마일 왼쪽에 있습니다.
Tel. 781.439.1840

www.npeople.org
담임목사 유경렬



주일예배: 주일오전 11:30
영어예배: 주일오전 11:30
수요찬양예배: 수요일 오후 8:00
금요찬양기도회: 금요일 오후 8:00
주일학교: 주일오전 11:30
중고등부: 주일오전 11:30

**“어두운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교회”**

세빛교회
NewLightKC.org
담임목사: 김대업
730 Main St.
Waltham, MA 02420



뉴햄프셔한인교회

New Hampshire Korean Christian Church

주일예배 • 오후 1시30분
담임목사 • 장계은

12 Station Rd. Bedford, NH 03110 (GPS 주소: 8 Hawthorne Dr. Bedford)
603-264-6799 • 603-264-6798 • www.newkcc.org



성양푸안 다블뤼 보스톤 한인성당

St. Andrew's Double-Ly Parish of Boston Diocese

주일미사(한국말)
오전 11시30분 (교중미사)
오후 4시30분 (청년주관)

영어미사
오전 10시

평일미사
(화) 오전 10시30분
(목) 오후 7시30분

고백성사
미사 시작 30분전

서틀서비스(요청시)
(<http://stdaveluychurch.org>/오시는 길)
11:15 am, 리버사이드역 → 성당
미사 30분 후, 성당 → 리버사이드역

45 Ash St. Newton, MA 02466
617-558-2711, 617-244-9685
office.kccb@gmail.com
www.stdaveluychurch.org



보스톤 서부 장로교회

Boston-West Korean Presbyterian Church

어머님 마음같은 교회

주일예배: 오후 2시	주일학교: 오후 2시
중고등부: 오후 2시	대학부모임: 주일 12시
금요기도회: 오후 8시	구역모임: 구역별로

담임목사: 김학수
www.bostonwestchurch.org
657 Boston Post Road, Weston, MA 02493
교회: 781.894.3958 목사관: 617.969.5809



보스톤 남부지역
보스톤 새힘교회

주일예배 11:00 AM

617-622-5225
5 Cabot Pl, Stoughton, MA 02072
www.bostonrenewal.org

엔터테인먼트 & TV가 티브 플레이(TBO Play)로 새롭게 도와줍니다 더 좋은 서비스로 여러분께 보답하겠습니다

Welcome, TBO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문의 및 연락처
보스톤코리아 TV 시연국
617.955.9112
지금 연락하세요

무제한 시청 월 \$37.99

KBS, mbc, SBS, SBS Plus, tvN, XTV, O'live, OCN


The Best OnDemand, TBO

전화: 617.792.6876
이메일: bostonkorean@hotmail.com

보스톤코리아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bostonhanjin.com

여러분 가까이 있습니다!



한진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T: 617.782.2424 F: 617.782.2421
귀국이사 / 로컬이사 / 포워딩 / 택배 서비스

여권사진 / 이벤트 사진 / 영상 촬영 및 편집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 디지털 포토 & 포토샵 튜터링

Nabis Studio

HAPPY
해피돌상

고품격 전통상 대여 (백일상, 돌상)
한국보다 더 한국적인 꼼꼼한 전통상차림,
소중한 내 아기에게 한국의 미를 보여주세요!
저렴하고 푸짐하게!

- 품격을 더하는 화점도 현수막
• 다양한 수공예 소품들
- 엄마의 마음으로 만든 기저귀 케이크
• 국내산 용기접시와 찬기, 공기
- 화려하고 우아한 나비춧대
• 풍성한 상차림 세트

문의 Happydolsang@gmail.com

Crouser & Suh PLLC

크라우저 & 서 로펌

이민법/국제법 전문 미국 로펌
한인 변호사들의, 한인들을 위한
최상의 법률 서비스!



이소영
이민 변호사

- 전문인력 취업비자 (H-1B)
- 단기연수인 비자 (H-3)
- 주재원 비자 (L-1)
- 특기자 비자 (O-1, P-1)
- 취업이민 (NW, EB-1, EB-2, EB-3)
- 투자비자 (E-2) / 투자이민 (EB-5)
- 종교 비자 (R-1) / 비자 변경 및 연장
- 가족초청 이민 / 시민권 신청
- 추방 재판 / 각종 이민 관련



스티브 서
이민 변호사

Crouser & Suh PLLC

251 Harvard Street Suite 6, Brookline, MA 02446

Tel: 617.566.7979 / 617.877.3435

Fax: 617.566.7982 www.stevesuh.com / www.suhladyer.com

패츠 vs. 콜츠, AFC 챔피언십 경기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와 인디애나폴리스 콜츠가 AFC 챔피언 트로피를 차지하기 위해 이번 주 일요일, 18일에 맞붙게 된다. 지난해 11월, 정규시즌에서 두 팀이 만났을 때는 패트리어츠가 42대 20으로 크게 승리한 적이 있다.

AFC 1번 시드로 플레이오프에 진출한 패트리어츠는 난적 레이븐스를 상대로 35대 31, 힘겨운 승리를 거두었다. 패트리어츠는 레이븐스와의 경기에서 14점 차이를 두 번이나 역전하는 저력을 보였다.

AFC 4번 시드를 받고 플레이오프에 진출한 콜츠는 벵갈스와 브롱코스를 연달아 격파하며 파란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브롱코스가 무난히 승리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상을 뒤엎고 콜츠가 24대 13으로 승리했다. 브롱코스와 경기 승리 이끈 콜츠의 쿼터백 앤드류 러크는 더 이상 신예 쿼터백이 아닌 NFL 탑 쿼터백으로 평가 받고 있다.

전반적인 수치와 전력은 패트리어츠가 앞선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11년 시즌부터 4년 연속으로 AFC 챔피언십 경기 진출한 패트리어츠가 올해는 콜츠를 꺾고 수퍼볼에 진출할 수 있을지 경기에 앞서 주요 기록들을 살펴보자.

콜츠의 블리츠와 탐 브래디

지난 11월 경기에서 콜츠는 패트리어츠의 쿼터백 탐 브래디를 흔들기 위해 블리츠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콜츠는 이날 경기에서 패트리어츠의 전



체 패스 공격 시도 중 53.5%에 블리츠를 시도했으며, 브래디가 이번 시즌 가장 많은 블리츠를 겪은 경기였다.

브래디는 콜츠가 시도한 16번의 블리츠에서 11번 패스를 성공시켰고, 패스당 평균 11야드를 전진했다. 브래디는 블리츠를 당할 때 쿼터백 레이팅이 87.6으로 NFL에서 가장 높다. 블리츠 전략이 가장 효과를 보지 못하는 쿼터백이 브래디인 것이다.

콜츠는 이번 경기에서도 브래디를 봉쇄하기 위해 블리츠를 시도할 것이다. 콜츠의 블리츠를 무력화시키기 위

해서는 브래디의 빠른 패스와 판단력도 필요하지만, 오픈시브 라인의 강력한 보호와 리시버들의 발빠른 움직임도 요구된다.

패츠의 러닝 공격

콜츠는 2014 정규시즌 동안 상대팀에게 경기당 평균 113.4야드를 허용하며 러닝에 대한 수비가 NFL 18위에 그쳤다. 패트리어츠는 콜츠의 이런 약점을 효과적으로 공략하여 11월 경기에서 러닝 공격으로만 246야드를 전진하며 손쉽게 경기를 승리로 가져갔다.

패트리어츠는 콜츠와의 가장 최근 2

경기에서 총 480러닝 야드, 러닝 당 평균 5.3야드 전진, 10개의 터치다운을 기록하며 러닝 공격의 효과를 톡톡히 보였다. 특히 콜츠와의 지난 경기에서 201러닝 야드, 4개의 터치다운을 기록한 조나스 그레이가 부상에서 회복하여 돌아온다. 그레이가 다시 한 번 활약한다면 패트리어츠가 경기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진다.

패츠의 장거리 패스

패트리어츠에는 NFL 최고의 쿼터백 중 한 명으로 꼽히는 브래디가 있고, 브래디의 손 끝에서 시작되는 패스를

통해 가장 효율적인 공격을 구사한다. 그러나 의외로 패트리어츠는 장거리 패스에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패트리어츠는 플레이오프 경기를 포함하여 이번 시즌 20야드 이상 패스를 시도할 때 8개의 인터셉션을 당했다. NFL에서 3번째로 많은 인터셉션이다.

장거리 패스가 성공하면 지고 있는 경기의 흐름도 단번에 역전시킬 수 있지만, 인터셉션을 당한다면 이기고 있던 경기도 놓칠 수 있다.

jsi@bostonkorea.com

김영란법 오늘 처리 불발...여야 "2월 국회서 우선 처리" 합의

여야 원내대표-법사위 회동서 합의 본회의 상정 전 법사위에서 '제동'

김재원 새누리당·안규백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김영란법은 현재 정무위원회에서 법사위로 넘어온 다음 숙려기간도 과하지 않았으며 법사위의 검토보고서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면서 "이에 따라 여야는 2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안 수석부대표는 "아직 정무위원회에서 넘어오지 않은 상태이고 법사위에서 아직 검토보고서 작성도 안돼 있다고 해서 2월에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수석부대표도 "앞으로 여러 논란에 대해 법사위에서 충분히 협의해 잘 처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양당 원내대표와 법사위 위원장, 간사 등과 함께 얘기를 나눠 숙의의 끝에 합리적인 안을 이견없이 만들었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충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왼쪽)와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제정안 처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가진 여야 원내대표와 법사위원장 회동 결과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분히 논의를 할 수 있다면 더 해보는 기회를 갖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무위원회는 지난 8일 법안심사소위에 이어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김영란법'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본회의 상정 전 마지막 관문인 법사위의 경우 이상민 위원장과 일부 의원들이 이날 오전 열린 전체회의에서 원안보다 적용 대상이 확대됐고 일부 논란의 소지도 있는

만큼 5일간의 숙려기간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뜻을 밝혀 이날 본회의 처리는 불발됐다.

haru@news1.kr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신영각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人

善(선)

악(惡)에게 지지 말고 선(善)으로 꾀을 이기라

Do not be overcome by evil, but overcome evil with good. - 로마서 12:21

의(義)에 대하여라 함은 내(예수님)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In regard to righteousness, because I am going to the Father, where you can see Me no longer - 요한복음 16:10

지난 12일 새해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남은 임기 3년간 가장 이루고 싶은 국정과제가 있다면 경제부흥과 함께 평화통일 기반조성”을 꼽았다.

남북간의 관계 개선에 대한 박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

박 대통령은 이날도 남북 당국간 대화를 하루 속히 열자고 북한에 촉구했었다. “이제 분단 70년을 마감하고 우리의 소원인 통일을 이루기 위한 길에 나서야 한다”며 “광복 70주년을 기념하는 여러가지 공동행사를 남북이 함께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했다.

광복절 공동행사 개최를 북측에 제안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박 대통령은 “통일의 비전과 방향에 대해 국민의 마음과 뜻을 모으고 범국민적, 초당적 합의를 이뤄내 평화통일을 위한 확고한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통일준비위는 현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통일현장’을 준비 중이다.

박 대통령은 “민간차원의 지원과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대화와 협력의 통로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올해는 남북이 자유로이 왕래하고 유라시아와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2010년 천안함 연평도 사건 이후 위축된 남북교류 활성화 의지를 밝힌 셈.

북한의 노동당 김정은 제1비서도 신년사에서 ‘대통령’을 언급한 바 있다.

남북수뇌가 모두 통로(通路)를 강조함에 따라 그동안 인도적 지원에만 국한됐던 남북 교류 채널이 2015년에는 대폭 다양화 될 수도 있겠다는 관측이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에 이어 올 신년회 견에서도 설맞이 이산가족 상봉을 제안했다. 이번 ‘설’을 전후로 “상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북한이 열린 마음으로 응해 줄 것을 기대

한다”고 박 대통령은 북한주민 삶의 질 향상, 민족 동질성 회복작업 등 지난해 자신이 제안한 ‘드레스덴 구상’에 대한 북측의 호응도 촉구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평화통일의 길을 열기 위해 필요하다면 누구라도 만날 수 있다”며 “전제조건은 없다”고 말했다.

북한의 김정은은 지난 1일 신년사에서 남북간 ‘최고급급’ 회담을 언급하며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단 등을 사실상 조건으로 내걸었다. 박 대통령은 다만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면 열린 마음으로 진정성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했다.

정식 ‘조건’은 아니지만 남북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배경으로 김정은의 진정성, 다시 말해서 선(善)이 깔렸는지 위선(僞善)이 가렸는지를 짚어본다.

박 대통령은 북핵문제와 관련, 비핵화(非核化) 같은 것이 전혀 해결이 안되는데 이것이 전제 조건은 아니지만 해결이 안되면 평화통일, 즉 남북이 합의할 수 있는 통일 수는 없다는 것.

이어 어쨌건 박근혜 대통령은 5.24조치에 대해선 “남북교류협력을 중단시키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니라 북의 도발에 대한 보상이란 잘못된 관행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나온 것”이라고, “어쨌건 남북이 당국자간에 만나서 얘기를 해야 한다”며 “그런데 왜 대화를 하자고 해도 이상하게 북한이 소극적으로 응하지 않고 있다”고

남북대화가 좋으면 맺어지기를 기대하는 것은 한반도 뿐만 아니다.

훈선: 良也양야: 착한 선, 善의 반대는 不善 불선: 악할 악 또는 憎也증야: 미울 증
지난 회(回): “義의”에서 2015년이 羊양

띠 해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羊과 我아, 나’의 두 글자로 합성된 글자로 “내가 세상에 사는 동안 내게 관련된 모든 일(事)”과 “물질이 나를 떠나서는 없다”는 뜻.

문제는 그 사물이 내게 반드시 의미와 뜻을 전하는데 그 “뜻”은 하나님이 관여하시기에 “1님(신지)”로 불리는 것.

이 하나님과 피조물인 나와 관계를 더욱 명백히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義를 재전명하신다. 예수님이 자신이 세상을 떠나시고 “보혜사 성령이 3대 의무”를 수행하신다는 것.

그(보혜사 성령)가 와서 ①죄(罪)에 대하여 ②의(義)에 대하여 ③심판(審判)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When He (the Counselor) comes, He will convict the world of guilt in regard to sin and righteousness and judgment. - 요한복음 16:8

예수님의 설명이 계속된다. 죄(罪)에 대하여 여러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義)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 요한복음 16:9-11

여기에서 가장 중한 초점은 義의 즉 “나와 예수님 관계”다. 義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In regard to righteousness, because I am going to the Father, where you can see Me no longer - 요한복음 16:10

쉽게 말해서 성령님(The Holy Spirit or Counselor)께서 예수님을 대신하여 양(羊)의 역할을 하시므로 나(我)와 합쳐 義의를 완성하게 하신다는 뜻.

따라서 훈선은 “하늘 나라에 계신 예수님(羊)과 땅에 사는 내(我)가 성령님을 통해 의(義)를 완성하는 과정”을 뜻한다.

이 과정을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Then Jesus said to His disciples, “If anyone would come after me, he must deny himself and take up his cross and follow Me.”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For whoever wants to save his life will lose it, but whoever loses his life for Me will find it.” - 마태복음 16:24, 25

하늘에 계신 예수님(羊)과 내(我)가 합쳐 영생(永生)에 참여하는 길은 분명하다. 그 길은 주(主) 예수님과 동행하는 善으로 내가 진 십자가(十)를 지고 따라오라는 말씀(口)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Love the Lord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and with all your soul and with all your mind. This is the first and greatest commandment. And the second is like it: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All the prophets hang on these two commandments. - 마태복음 22:37-40

이것이 예수님과 성경 전체를 요약한 가장 크고 명백한 善의 卮대요 시행령이다. 이 진리를 교회는 십자가(The Cross: 十)로 표시한다.

“하나님 삼위(三)의 구원(八)이 땅위의 두 십자가(卍) 사랑의 말씀(口)”으로 내려왔던 것이 죄 지은 인간을 “하늘 나라에서 영생(永生)케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만이 善을 그리니까! 이 善이 아니고서는 義에 가까이 할 수 없으니까!!

미국 최고의 언론지 TIMES 선정 2014년 베스트 발명품

연예인만 셀카?

아니아니- 나도 셀카 찍고 싶어요!
혼자서 얼쌍각도- 찰칵! 연인끼리 놀러가서- 찰칵!
친구들끼리 놀러가서- 찰칵!



- 2015년 최신 셀카봉!
- 리모컨이 본체에 달려있는 버튼 일체형
- 싼 셀카봉 믿지 마세요!



최한가격 \$29.99

구입 문의 617-955-9112

최고급
스마트폰 글래스 스크린 프로텍터 Japanese Glass

특수 가공 두께로 0.4mm의 두께로 쉽고 간편하게 부착, 일반 필름보다 3배 강한 강도로 바닥에 떨어뜨려도 액정화면을 보호해 드립니다.

대리점 문의: 213.545.4334

연말연시 최고의 선물용품
방송으로 소문 난 그 제품!
▶무한도전 ▶나혼자 산다 ▶꽃보다 청춘



NEWSTAR BOSTON

Each office independently owned and operated

매주 최대 한인 부동산 그룹 / 20여년 역사 / 1500명 이상의 에이전트 / 연30억불의 매출실적 / 50여 개국 다국적사 / 한국 및 캐나다 자회사

전 미주 지역의 Network과 Teamwork 그리고 다년간의 경험과 New Star 부동산만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의 성공과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영주
617-921-6979



Kwang O Kim
617-792-8615



Joanne Song
617-797-3562



Sue Rong Tsai
617-792-8842



Yukai Sun
860-830-8599



Thomas Park
617-880-9790



이제봉
781-654-5281



애나 정
617-780-1675



최진민
617-877-0387



Ritika Chopra
617-697-1191



Michael Yun
617-459-5985



OT Kim
617-620-8242

단독주택 Single Family



\$594,800
Sharon, MA
3 Beds, 2.5 Baths, 1872sf.
잘 관리된 좋은 구조의 집
#1 Best Place to Live in US
이현주 401-935-3397



\$799,900
Woburn, MA
5 Beds, 4 Baths, 4238 sf.
Terrific spacious home for Large family
Anna Jung 617-780-1675



\$650,000
Framingham, MA
4 Beds, 2.5 Baths, 2920 sf.
조용하고 살기 좋은 주거 환경
Near shopping on #9
Jay Lee 781-654-5281



\$659,000
Andover, MA
3 Beds, 2.5 Baths, 2900 sf.
안전하고 조용한 주거 환경
밝고 좋은 구조의 집
Janice Lee 978-806-6023

단독주택 Single Family



\$599,900
Sharon, MA
4 Beds, 2.5 Baths, 2215 sf.
넓은 공간, 아름다운 실내 구조
살기 좋고 우수한 학군
이현주 401-935-3397



\$725,000
Brookline, MA
2 Beds, 2 Baths, 1523 sf.
Near BU, Coolidge Corner
Sunny 2 bedrooms
Jason Jeon 617-642-5670



\$699,000
Lexington, MA
5 beds, 2 baths, 2021 sf.
Endless possibilities to develop
Many acres of conservation
OT Kim 617-620-8242



\$359,000
Billerica, MA
3 beds, 2.5 baths, 2694 sf.
Near Commuter Rail
Nice neighborhood
Kwang O. Kim 617-792-8615

단독주택 콘도 Condominium



\$599,000
Bedford, MA
3 Beds, 2 Baths, 2234 sf.
Quiet and nice place to live
Gina Choi 978-866-3248



\$429,900
Belmont, MA
3 Beds, 1 Bath, 1245 sf.
좋은 학군, 편리한 교통
Anna Jung 617-780-1675



\$239,000
Acton, MA
3 Beds, 2.5 Baths, 1594 sf.
Updated kitchen, floors
Gina Choi 978-866-3248



\$318,000
Hopkinton, MA
2 Beds, 2.5 Baths, 1651 sf.
좋은 가격의 깨끗한 콘도
Michael Yun 617-459-5985

Investment
E-2 & EB-5 투자
문의: 781-259-4989

Condo
Cambridge/ \$460,000
2 beds, 2 full baths
Greenline extension
Jason Jeon 617-642-5670

Condo
Cambridge/ \$349,000
Charming 1 bedroom condo
Close to Harvard Sq.
Joanne Song 206-734-1407

프랜차이즈
300개 점포 소유 회사
S.J Park 617-304-7001

아파트 건물 투자
아파트 건물
학생 렌트 건물
Cambridge, Boston
S. J Park 617-304-7001

Space for Business
케임브리지 H-Mart 근처 빈자리
한인 비즈니스 최적 위치
S.J Park 617-304-7001

Drop off Store
찾기 힘든 Drop off store
좋은 위치, 고정적인 손님
일년 매출 \$300K 이상
제이슨 전 617-642-5670

Full Plant Cleaner
저렴한 렌트,
안정적인 수입
넓은 파킹
제이슨 전 617-642-5670

Lexington Office

40 Waltham Street, Lexington, MA 02421
Tel, 781.259.4989 Fax, 781.259.4959
www.BostonNewStarRealty.com

Newton Office

1111 Washington St, Newton, MA 02465
Tel, 617.969.4989 Fax, 617.969.4959
www.NewStarRealty.com

Agent 모집합니다. 781.259.사구팔구 617.969.사구팔구



1111 Washington St, Newton, MA 02465
40 Waltham Street, Lexington, MA 02421

www.BostonNewStarRealty.com
www.NewStarRealty.com

미국 부동산 협회 (NAR) / 2014년 최우수 에이전트 / 1000만 달러 이상 실적 /
국제 부동산 협회 (IFRE) / 2014 최우수 에이전트 / 100만 달러 이상 실적



김형진
781-956-0409



박성종
617-304-7001



제이슨 전
617-642-5670



헤이즐 송
617-895-7676



Shell Yu
781-526-2416



Janice Lee
978-806-6023



나원태
617-642-3156



Steve Yoo
617-386-3451



신보경
508-361-6064










Claudia Lee
617-817-사구팔구



이현주
401-935-3397



Gina Choi
978-866-3248

Restaurant  \$799,000 Cambridge, MA Center of Harvard Sq. Including Liquor license 3400 sf. Capacity of 120 people Anna Jung 617-780-1675	SAT Academy  \$50,000 Brookline, MA SAT Tutoring Academy Near many good schools Close to Route 9 and I-95 Julie H. Lee 401-935-3397	Business Consulting  레스토랑 셋업 컨설팅 SJ Park 617-304-7001	Restaurant  \$789,900 Brookline, MA Coolidge Corner 전철역 근처 Restaurant w/ Liquor 5000 sf. 180 인석 Anna Jung 617-780-1675
Beauty Service  \$100,000 Newton, MA 비즈니스에 좋은 위치 Kwang O. Kim 617-792-8615	Full Plant Cleaner  \$260,000 Chelmsford, MA Chelmsford downtown 아파트, 콘도 단지 주변 Anna Jung 617-780-1675	Restaurant  \$179,000 Nashua, NH One of the reputable Asian cuisines in Nashua, NH Jason Jeon 617-642-5670	Deli  \$250,000 Boston, MA Boston downtown 중심에 위치 Great potential to grow Jason Jeon 617-642-5670
Cafe  \$250,000 Boston, MA Cafe w/ 프론트 요거트, 버블티, 아이스크림 Anna Jung 617-780-1675	Restaurant  \$199,900 Newton, MA Korean-Japanese Restaurant Sushi bar and liquor license Anna Jung 617-780-1675	Dry Cleaner  \$29,990 Norwood, MA 40 lbs washing machine located in strip mall Anna Jung 617-780-1675	Jewelry Business  \$74,990 Natick, MA 좋은 위치, 잘 운영되는 비즈니스 New owner를 위한 training 제공 Michael Yun 617-459-5985
Investment E-2 & EB-5 투자 문의 781-259-4989	Full Plant Cleaner \$100,000 Weymouth, MA 잘 운영되는 비즈니스 Jason Jeon 617-642-5670	Convenience Store \$120,000 Worcester downtown Great business potential Won T. Ra 617-642-3156	병원 건물 렌트 Worcester 3000 SF. S.J Park 617-304-7001
Full Plant Cleaner \$200,000 Middleton, MA Middleton mall 내 위치 Jason Jeon 617-642-5670	커머셜 커머셜 건물 투자 S.J Park 617-304-7001	비즈니스 빈자리 센트럴 sq., 하버드 sq. 올스톤, 뉴튼 센터 비즈니스 빈자리 S.J Park 617-304-7001	APT Rental 보스톤 아파트 전문가! 가격, 지역, 방 갯수 등 원하시는 조건에 맞추어 찾아 드립니다. David Kim 781-956-0409

최고의 실력과 탄탄한 경력을 갖춘 에이전트들이
여러분을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곧 전화하세요 !!!

보스톤 한국콜택시
Boston Hankuk Jonghap Service, LLC

- 공항 픽업/관광 ● 소형 이삿짐/카지노
- 미니밴/승용차 ● 쇼핑물(아울렛 물)

617.461.9270

한인업소록

Korean Business Directory

이민법 전문 변호사



스티브 서

비자 / 영주권
투자이민/취업이민
Lawcity7@gmail.com

www.Stevesuh.com

617-877-3435

Vol 11, No.3 January 16 2015

한인들과 함께하는 좋은 신문 Bostonkorean@hotmail.com

발행처 : The Boston Korea

161 Harvard Avenue, Suite 13,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광고문의 전화: 617-903-3010

한진택배
HANJIN EXPRESS
보스톤 대리점

Tel 617.782.2424
175 Harvard Ave St14A, Allston, MA

퓨전한식으로 새겨진 꿈꾸다

코이(Koy)

업소탐방 270

코이(Koy)

16 North St, Boston MA 02109
857-991-1483
koyboston.com

연타비 **8**이 더 빨리! 70 Play로 새겨진 연타비

다 좋은 서비스 하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Welcome, **fbo**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현재 판매
보스톤코리아 TV 시즌2
617.955.9112
지금 연락하세요

무제한 시청 월 \$37.99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유대인 기자 = 퀸시마켓 맞은편에 새로운 한국식당이 들어섰다. 간단한 모퉁이에 ‘한식’이라고 적혀 있는 ‘코이(Koy)’는 퓨전한식 레스토랑으로 개업한 지 한 달 만에 입소문을 타고 외국 손님들에게 주목받는 핫플레이스가 되었다.

“외국인들에게는 건강한 식단이 인기가 좋다. 건강식하면 한국 음식을 빼놓을 수 없다”는 것이 코이의 매니저 카타리나 장 씨의 말이다. 한식에 퓨전의 맛을 가미해 더욱 폭넓은 손님층에게 어필하는 것이 코이의 전략이다. 손님 입장에서 건강도 챙기고 맛도 챙기니 먹는 즐거움이 배가 된다.

돌솥비빔밥, 갈비찜 등의 전통 한식과 불고기 샌드위치, 김치 버거, 문어다리 조림 등의 퓨전메뉴(Twist)가 있는데 신기하게도 외국 손님들은 전통 한식메뉴를 선호한다. 퓨전 메뉴를 찾은 것은 오히려 한인들이라는 것이다.

한국 음식이 익숙하지 않은 외국 손님들에게는 다소 낯설은 메뉴일수도 있다. 하지만 장 매니저는 예상외로 엄청난 호평이 쏟아지고 있다고 뿌듯해했다. “퓨전한식을 접한 손님들은 현재까지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며 “입소문을 타고 더

많은 외국인들이 코이를 찾고 있다”고 전했다.

심지어 바텐더로 일하는 미국인 첼시 양은 아침에 출근해 자장면을 먹었다고 한다. 김치를 매우 좋아한다는 그녀는 “한국음식을 좋아하는 편이었지만 여기서 일하면서 더욱 좋아하게 되었다”고 한다.

커다란 돌솥에 다양한 종류의 채소가 정갈하게 얹어져 나온다. 지글지글거리는 소리와 보기도 맛깔스러운 돌솥비빔밥의 출현에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외국인들의 고개가 일제히 돌아간다. 고추장을 비벼 한술갈 크게 뜨니 ‘방금 먹었는데도 배고프다’는 소리가 주변에서 들린다. 돌솥에 눌러 붙은 누룽지가 고소함을 더한다.

치즈 스테이크 만드는 코이의 가장 인기있는 메뉴 중 하나다. 스위스 치즈와 파스트라미, 김치가 들어간 만두 튀김은 매콤한 마요네스 소스가 곁들여진다. 담백하면서도 매콤한 게 자꾸 입맛을 당긴다. 가격은 \$11이다.

문어다리 조림 (Pepper Octopus Leg, \$17)이 올라왔다. 수 시간을 줄여서 완성된 기다란 문어다리에 새콤한 피망샐러드를 곁들여 먹는다. 부드럽고 짭조름한 것이 안주로 제격일 듯하다.

코이의 메뉴는 현재 겨울에 어울리는 메뉴들로 구성되어 있다. 각테일도 윈터컵, 초콜릿 토디, 소주 상그리아 등이 인기가 좋다. 한편, 봄이 되면 코이는 새롭고 가벼운 메뉴들을 선보일 예정이다. 장 매니



저는 “여름에는 냉면도 출시할 것”이라며 기대해도 좋다고 전했다.

코이의 영업시간은 월요일부터 수요일, 일요일은 오전 11시부터 밤 12시까지며 목요일부터 토요일은 오전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다.

dyoo9146@bostonkorea.com

“주님의 사랑으로 모든 이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살아 숨쉬는 한 가족 같은 사랑공동체에서 참 기쁨과 평화,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리시겠습니까?

주일예배: 오후 12:30 담임목사: 임 용 순

보스톤 사랑의교회
www.bostonlovechurch.com
1 Church St., Wakefield, MA 01880 (617)285-8870

장 음식 주문

- 김밥 및 떡 전문
- 생일잔치, 교회모임
- 돌, 회갑, 계모임 음식
- 대학교 파티, 결혼식
- 저렴한 가격
- 맛있고 풍부한 음식

Tel: 781-648-0584

보스톤 봉사회

의료보험안내
무료세금보고

508-740-9188

코리아 여행사

617.267.7777
1.800.473.1922

보스톤코리아 업소탐방

신청 방법:
전화번호 617-254-4654
bostonkorean@hotmail.com

오리엔트 여행사
Orient Travel

617.536.8888
myorienttravel@gmail.com
theorienttravel@yahoo.com

CHOISIGNS & DESIGN

LED Sign, Channel Letter, Truck Lettering, Banner, Poster, Window Letter, Car Sign, Lighted Box, All Types of Signs.

간판 및 사인

617.470.1083
e-mail choisigns@yahoo.com

한인 업소록

Korean Business Directory

긴급 주요 전화

가정폭력상담소(Ex. 33)	617-338-2352
견인	800-632-8075
고등교육위원회	617-727-7785
고등교육정보센터	800-442-1171
공중위생국	617-624-6000
구세군	617-536-7469
국세청	800-829-1040
날씨문의	617-976-6200
로간국제공항	800-235-6426
미아찾기	888-477-6721
백배지역	617-345-7958
보스턴공립학교	617-635-9000
보스턴수도	617-989-7000
보스턴시청	617-635-4500
보스턴총영사관	617-641-2830
사우스익	617-345-7958
사회보장국	800-772-1213
성폭행	781-237-9110
성폭행	617-492-8300
시간문의	617-637-123
아동보호	617-748-2000
아동학대	800-792-5200
알고음/마약	617-445-1500
여성학대	617-248-0922
온전연허	617-351-4500
헬퍼	617-348-8500
자원봉사	800-522-8086
적십자	800-564-1234
전화신청 (Verizon)	800-941-9900
전화교정신청(Verizon)	617-555-1515
택시	617-343-4475
AAA	800-222-4357
FBI	617-741-5533
MBTA	800-392-6100
NSTAR가스	800-572-9300
NSTAR 전기	800-592-2000
RCN케이블TV/전화	800-746-4726

한인회

뉴잉글랜드 한인회	781-933-8822
뉴햄프셔 한인회	603-767-1356
로어일랜드 한인회	401-368-0467
메인한인회	207-756-0092
버몬트 한인회	802-734-2521

주요 단체

국제결혼자정신요양협회	978-407-7554
국제결혼자정신요양협회(네)	603-898-8201
뉴잉글랜드공공협회	617-438-9763
뉴잉글랜드공공연구회	978-902-8305
NE교육자협회	978-394-3060
뉴잉글랜드문인협회	978-688-3137
뉴잉글랜드산악회	617-270-1948
뉴잉글랜드시인협회	508-962-2689
뉴잉글랜드교회협의회	978-394-3060
뉴잉글랜드해변대전우회	617-833-1360
대사추진위원회(동해연)	603-894-5425
민주평통보통협의회	413-535-0916
보스턴 대한체육회	781-326-9009
보스턴산악회	978-569-3256
보스턴한미노인회	978-994-5490
재미교민기술회	857-998-7043
재향군인회	339-298-7187
세무인협회	508-826-5270
이탈리아도인협회	978-514-3399
한인학교단체협의회	781-424-5269
FBI한인경제인협회	401-481-4900
한국언어이동(메인)	207-878-5652
6.25참전유공자회	978-725-9597
보스턴 한미예술협회	781-367-5993

동창향우동호회

건국대학교동창회	401-738-8735
경기고등학교동창회	508-995-7242
경기여고동창회	781-861-0437
경복고동창회	617-921-8799
고려대학교 교우회	617-795-1779
뉴잉글랜드 산악회	774-270-1948
배재중고등학교동창회	978-474-4780
보스턴 산악회	978-569-3256
보스턴한인사회관	617-789-4964
산사랑	774-270-1948
서강대동문회	617-599-9869
서울고 동문회	617-792-2635
서울대학교동창회	978-821-9434
서울신학대학교동창회	
성균관대동창회	802-734-2521
양정중고등학교동창회	508-541-6969
이화여고동창회	617-277-0730
이화여대동창회	978-390-1552
중앙대학교동창회	603-622-8883
강원도민회	617-875-1801
충청향우회	678-717-8800
한양대동문회	781-708-3160

언론

보스턴코리아	617-254-4654
한인일보	781-933-8822
한국일보(뉴욕)	718-482-1111
Grapevine Times	781-548-9945

종교

기독교	
구세군 물든교회	617-792-8780
그린랜드 연합감리교회	603-430-2929
글로벌 미션 보스톤교회	617-913-3074
나사렛사립교회	781-439-1840
뉴잉글랜드감리교회	617-969-0507
뉴턴 아름다운 교회	617-869-8159

갈보리교회	413-789-9888
구세군물든교회	617-792-8780
그레이스연합감리교회	203-459-8517
그리니치한인교회	203-861-1134
그린랜드연합감리교회	603-430-2929
나사렛사립교회	781-439-1840
내슈아한미음교회	603-888-8040
뉴잉글랜드감리교회	617-969-0507
뉴잉글랜드한미교회	413-567-9142
뉴턴 아름다운 교회	617-869-8159
뉴햄프셔감리교회	617-990-7619
뉴햄프셔장로교회	603-437-5134
뉴햄프셔한인교회	603-264-6799
라이코스교회	978-387-1115
라이스한인침례교회	508-926-8236
로드아일랜드성당교회	401-353-0983
로드아일랜드제일교회	401-944-0520
리생명의길장로교회	401-821-2311
메리맥 교회	978-806-1363
목양교회	617-223-1690
무지개교회	207-774-1617
말일한인교회	978-244-0691
렉싱턴 풍성한교회	617-953-0856
버클랜드 침례교회	617-864-5948
보스턴 국제교회	617-459-6479
보스턴 감리교회	781-393-0004
보스턴 사랑의교회	617-285-8870
보스턴 사랑제일교회	978-844-2404
보스턴 산성교회	617-997-6165
보스턴 새로남교회	617-947-6765
보스턴 새생명교회	978-777-1800
보스턴 생명의 교회	978-578-6987
보스턴서부장로교회	781-894-3958
보스턴 성결교회	781-275-8233
보스턴 성령교회	781-396-1004
보스턴 소망교회	781-686-5526
보스턴시온성교회	978-758-4541
보스턴산일교회	781-279-3270
보스턴 온누리교회	781-933-7044
보스턴웨슬레감리교회	781-393-0004
보스턴 장로교회	508-435-4579
보스턴 제일교회	617-458-2733
보스턴 주님의교회	617-966-9608
보스턴 중앙교회	617-230-5004
보스턴필그림교회	857-636-9885
보스턴 한인교회	617-739-2663
보스턴 한우리교회	978-454-0454
보스턴한인연합교회	617-923-9581
북부보스턴감리교회	978-470-0621
비전교회	617-308-2391
새빛교회	781-652-0001
새여우살렘교회	774-249-0022
선한목자장로교회	904-400-9386
성요한 교회	781-861-7799
순복음 보스톤교회	617-413-5372
스프링필드한인장로교회	413-789-4522
스프링필드제일교회	413-781-2477
시온감리교회	401-739-8439
안디옥 교회	978-534-3394
열방교회	617-620-3352
에이씨 뱀교회	978-274-2369
엠펙스 한인장로교회	413-549-6495
엠펙스 시온교회	413-549-9200
올스톤한인교회	617-642-7403
우스타 교회	508-799-4488
워십프린터 교회	918-876-2815
임마누엘 연합교회	978-394-3060
자연교회	603-437-6151
좋은영교회	978-930-6613
지구촌방주교회	434-382-9450
케임브리지한인교회	617-491-1474
케임브리지연합감리교회	781-861-3877
켄싱턴성교회	617-770-2755
하바드 한인교회	617-441-5211

ABC골프	603-401-7990
최현주 골프 레슨	339-223-4700

공인 회계사

김양일 회계사	617-901-0707
김창근 세무사	781-935-4620
노성일공인회계사	781-863-2232
이현주 회계사	781-944-2442
이명원 회계사	617-455-8073
정진수회계사	508-584-5860
한미선회계사	617-792-2355
한성애회계사	617-283-7151

꽃

미스티화원	617-666-3116
데코플라워	617-875-0648
앤더슨꽃집	781-894-1843

금융/모기지

인디펜던트(류영욱)	617-777-2929
이중지리	781-591-2722
이종수파이낸스	617-799-6158

뱅통/에어콘/히팅

JK 플러밍	978-303-7000
Nirvana Air	508-473-3429

노래방

도레미노래방	617-783-8900
진 노래방	617-782-9282

도서관

뉴햄프셔한인도서관	603-644-1991
보스턴공립도서관	617-539-5400

당구장

올스톤당구장	617-782-0969
--------	--------------

동물병원

김분수 동물병원	978-851-3626
윤상대 동물병원	978-343-3049
제임스김 동물병원	978-658-5282

떡/잔치/반찬

형제떡집	978-975-3303
장음식주문	781-648-0584
한아름	617-547-8723

미용실

가위소리	617-782-8111
그레이스스킨케어	978-468-0039
그레이스커팅클럽	617-331-1011
단오 헤어살롱	617-413-4560
뷰티풀 헤어살롱	857-284-3879
세리 미용실	781-676-7374
압구정동열굴방	617-437-0378
웨스트메인헤어	508-734-0446
티케이헤어디자인	508-768-7675
프롬페셔널헤어디자인	978-272-7886
헤어 스킨	617-787-1735
헤어 센스	617-773-1220
헤어 Collage	617-454-4660
미용실 코리아LEE	617-913-3559
AYER BEAUTY SALON	978-772-6555
Bliss Image	617-818-5596
헤어앤드그레이스살롱	508-879-7777

돌상 대여

해피돌상	617-583-2339
------	--------------

방송국

엔티비보스톤사입국	617-955-9112
-----------	--------------

변호사

김성식특허변호사/변리사	617-239-0839
김성근 변호사	781-438-6170
김성희 변호사	617-884-0002
김연진변호사	617-742-7707
김성근 변호사	781-438-6170
김성희 변호사	617-884-0002
김연진변호사	617-742-7707
박현종특허변호사	978-474-8880
성기주변호사	617-504-0609
스티브시 변호사(미인법)	203-852-9800
워드랜드/엑커맨변호사	203-324-6155
장우석 변호사	781-712-1706
정선진변호사	617-230-0005
가유가	617-566-8888
JOHN DOWNEY 법률사무소	647-964-5809
STEVEN S. KIM 변호사	617-879-9979
Joy Lee 변호사	617-624-0292
Young Lee Danesh	617-367-4949

병원

가정의

그레이스 김 가정의	978-475-5656
------------	--------------

내과

송민근	617-696-7600
허버트(이재용)	617-421-2282
한서동내과	401-722-0305

산부인과

최의웅산부인과	401-726-0600
이윤노산부인과	508-427-3000

소아과

장경이 소아과	978-687-2119
---------	--------------

심리상담

배주은심리상담사	617-566-1055
심리상담	

불교	
문수사	781-224-0670
서운사	508-755-0212
심광사	617-787-1506
원불교	
원불교보스톤성당	617-666-1121
천주교	
보스턴 한인천주교회	617-558-2711
로드아일랜드한인천주교회	401-499-8258

간판

초이스간판	617-470-1083
-------	--------------

건강식품

보스턴정관장 브랜드스토어	781-238-0303
---------------	--------------

건축

글로벌건축	617-645-6146
김원태 건축사	617-620-8242
미원건축	508-650-8844
선아건축	508-230-5878
솔로몬 DRYWALL	978-761-0623
신종욱 루미사이드 청문	617-999-9616
이늘드 건축	617-833-1360
파인한건축	617-688-6833
한샘(주)	781-487-0101
ECO Construction	781-608-2971
E/Y 건축	617-590-3472
J.C건축	781-738-7871
J&D 인테리어	617-645-6661
LEE'S건축	617-538-0558

골프개인

골프레슨	617-458-2733
골프스쿨	617-775-5527
남궁연골프교실	978-474-4780

김자향심리치료사	781-769-8670 x6080
양미아헤일리카운셀링	508-728-0832
임나경심리상담사	617-738-9622

재활의학

가족물리치료병원	781-365-1876
닥터스통증병원	617-731-1004
성진우정추신경전문	978-688-6999
추 남남 D.C.	617-230-4250

치과

김동원치과	978-689-9363
김정구 치과	860-623-2601
브라이언윤치과	978-655-1583
신영록 치과	617-265-5606
안 치과	781-647-8000
엑셀패밀리덴탈	617-471-6970
이영환치과	508-987-8228
이오셉치과	781-431-7295
케임브리지덴탈	617-492-8210
케임브리지덴탈/뷰티	617-871-1482
퀸지스아치과	617-471-2184
퍼스트코이스덴탈그룹	781-894-1127
프루펙트덴탈그룹	617-576-5300
한은애교정치과	781-894-1127
아이콘덴탈	781-861-8978
ASHLAND FAMILY DENTAL	508-881-7272
장승혁보철임플란트	617-489-1470
전문치과	401-729-2711

기타

메모리알병원(병리)	203-330-8080
------------	--------------

보석

국제보석상	617-523-2553
미태석품	617-298-6661
우리보석	781-272-2400

보험

미분향 보험	781-325-3406
조종은 종합보험	781-255-1134
베스트코이스한인종합보험	617-782-8800

비디오

나비스(촬영/편집)	617-756-5744
------------	--------------

부동산

가나인부동산(손숙한)	617-290-0623
김종희부동산	978-866-7789
김현구부동산	617-694-0985
김택은 Realtor	617-678-9330
김현정부동산	617-388-8527
백영주부동산(뉴스타)	978-239-0141
송기백부동산	781-510-9924
송현미부동산	617-835-7664
순옥원부동산	508-737-8636
신현철부동산	617-947-6293
에이블부동산(채혜경)	617-868-2253
오성희부동산	617-273-3109
이경혜부동산	800-867-9000
이정선	781-874-2087
이도경(condo & rental)	781-771-0047
정혜윤부동산(EXT.125)	603-770-3491
정윤숙부동산	617-236-8600
조현정부동산	508-249-5838
프루멘셜(이효숙)부동산	203-255-2800
프루멘셜(김종미)부동산	603-845-2138

사진관

김아람 포토그래피	617-529-0427
나비스 스튜디오	617-756-5744
영도블	617-253-1800
원동준 스튜디오	774-460-3227

생선가게

매더팬피시마켓	617-298-2260
매일찬피시마켓	781-862-7984
보스톤피시	617-282-2980
브룩라인피시마켓	508-580-1016
스타피시마켓	617-524-8711
킴스피시마켓	617-282-6142
파이시스피시마켓	617-522-2

▶광고 마감: 매주 화요일 오후 5시(신문)▶수표 보내주소: Payable to: The Boston Korea 161 Harvard Ave, Suite 13 Allston, MA 02134

**사업의 시작은
이경혜 부동산**

Tel 800.867.9000
Cell 508.962.2689
email: kayleebrokers@aol.com
www.leebrokers.biz

알뜰 나눔터 안내

보스톤코리아는 2013년 5월 1일부터 새로운 알림광고 요금정책을 적용합니다. 보스톤 코리아 네이션 와이드 광고를 선택하시면 LA, 애틀란타, 뉴욕, 시카고, 애틀란타, 달라스, 시애틀 및 보스톤까지 총 미주 8개 지역의 오프라인 신문을 통해 광고를 동시에 내보내도록 합니다. 네이션 와이드의 광고는 총 5줄까지 가능하며 한 달 광고료는 \$50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N은 보스톤 지역 외 네이션 와이드 광고임을 알려 드립니다. 만약 보스톤 지역 광고만을 원하실 경우 한 달에 \$30입니다. 결제는 그레딧카드로 하실 수 있으며 개인수표 또는 머니 오더 등을 보내주셔도 됩니다. 신문 광고 마감은 매주 화요일 오후 5시입니다. 보스톤코리아닷컴 광고는 신청 당일 업데이트 가능합니다.

구인

광고 문의 617-254-4654

MANAGER/SUPERVISOR AT DRY CLEANING FACILITY

Direct day-to-day assembly, delivery, and shipping department at a dry cleaning facility. Coordinate with Cleaning Department. LOCATION Brockton Mass. EXPERIENCE in Dry Cleaning business, good English, and references required. SALARY: Start \$13/hour for first 90 days, Negotiable, afterward based on demonstrated abilities. TO APPLY Fax application and resume to (888) 790-4171.

4989 부동산매매는 —————
뉴스나부동산
617-969-사구팔구
www.newstarrealty.com

1/30
월슬리 7달 아기 돌봐주실 분을 찾습니다. 주5일(월-금), 급여협상가능
T. 781-492-8766

1/30
BU근처 가유가에서 캐시어, 딜리버리 드라이버, 웨이추레스 구함.
T. 781-888-8287

1/30
Walpole 세탁소 카운터 구함.
T. 781-771-7069

1/30
산모도우미 찾으시는 분 풀타임/파트타임 가능. 자격증 있음.
T. 339-227-9683

Looking Korean interpreter

Looking for an experienced certified Korean interpreter. Certification should be from a qualified program, would prefer experience but will consider new certificate holder. Must be able to interpret in a variety of community settings. As an independent contractor you can set your own hours and earn an above average hourly wage. Please send your resume to susan_kelliher@ccab.org or call 617-464-8122. Immediate openings.

2/6
배드포드지역 딜리버리할 분 구합니다.
T. 781-275-7600, C. 781-801-6896

사고 팔고

광고 문의 617-254-4654

일식당 매매 15K - 18K

한식 겸하면 최고 조건, 독점지역 저렴한렌트, 알차고 꾸준한 매상 두차례 영주권 내준 식당 전화번호 남겨주세요.
TEL 603-557-3123

룸렌트 및 매매

광고 문의 617-254-4654

FIXALL

바이러스 치료, 데이터 백업/복구 맥OS/윈도우/리눅스 설치/복구 각종 컴퓨터 수리 및 업그레이드 홈 네트워크 설치
TEL 617-710-4952

1/30
B라인 뱍콕, 2베드룸 하우스 \$2300 룸렌트 유틸 미포함.
T. 781-888-8287

1/30
N [구인]
메케닉 구함 사이딩 00명 (헬퍼, 메케닉, 쿠루포함) 익스테리어+인테리어 가능공우대 숙소제공, 지역<미네소타, 노스다코다>
T. 651-329-3307

1/30
N [매 매]
텍사스 샌안토니오 초가집 가라오케 렌트 또는 매매 합니다 (하드리커 포함) 렌트 \$1,864/월 매매 \$65,000 (영주권자 이상 만 가능)
T. 210-803-5194

1/30
N [매 매]
사우스 케롤라이나 지만집 급매 가격 \$35,000
T. 678-939-5153

1/30
N [매 매]
스시 왕가게 매매 일년에 36만불 매상올린가게 사우스케롤라이나 오렌지버그지역 매매가 8만 5천 좋은위치, 좋은비즈니스
T. 803-760-9292

1/30
N [구인]
남자 배우자 원합니다 저는 회사원으로 근무중이고 배우자는 50대 후반에서 60대까지 이고 경제력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사는곳으로 이주 하실수 있는 분은 전화 주세요
T. 904-753-7600

1/30
N [구인]
마사지사 구함 숙식제공, 수입보장 안전한곳
T. 406-259-6211

1/30
N [구인]
샌안토니오 초가집에서 일하실 여성분 구합니다 숙식제공되고 라이드 됩니다
T. 210-803-5194

1/30
N [구인]
S룸살롱 아가씨, 마담, 웨이터 구함 수입보장, 수준높은 실리코넬리 산호세 지역(주급+TIP 월 7천-1만)
T. 408-990-5120

Get Educated. Do More. CLASSES STARTING SOON! 888.873.5082



CSI is the perfect choice when it comes to studying in the United States. CSI is ranked by SEVP as one of the top five F-1 and M-1 approved schools with the largest population of international students. Whether you are trying to apply for a student visa or transfer from another school, CSI can help.

- CSI가 다른 학원들과 다른 특징 ?**
- 저렴한 학비
 - 인턴십을 통한 CTP획득 기회
 - 영어 프로그램 공식 여름 방학
 - 국제 학생입학 : 해외 학생들의 비자변경, 학교 편입을 도움

ESL Programs - \$3600 per year
English Programs - \$4200 per year
Skill Building Programs - \$4700 per year
*Books and supplies not included in tuition

COMPUTER SYSTEMS INSTITUTE
esi.csinow.edu

CAMPUS LOCATIONS
Chicago • Skokie • Lombard • Gurnee • Elgin
Charlestown/Boston • Worcester

Computer Systems Institute is approved by the Division of Private Business and Vocational Schools of the Illinois Board of Higher Education and is authorized under federal law to enroll nonimmigrant alien students. Student visa and work authorization are issued to those who qualify. For more information about our graduation rates, the median debt of students who completed the programs, and other important information, visit our website at: http://www.csinow.edu/about/colconsumer-information. Program offering varies by campus. Tuition prices effective as of 5/1/14.

‘그것이 알고싶다’ 백화점 모녀

목격자 증언
“자기 남편 한마디면 다 잘린다더라”

(서울=뉴스1) 온라인뉴스팀 = ‘백화점 모녀’ 사건의 주차요원과 모녀, 목격자가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10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백화점 모녀와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 등 상위층의 ‘갑질 논란’에 대한 내용을 다뤘다.

이날 백화점 모녀사건의 당사자인 모녀는 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 “기쁜 마음으로 돈을 쓰러 와서 왜 주차요원한테 이런 꼴을 당하나. 내가 왜 돈을 쓰면서 이런 꼴을 당해야 하나”며 억울해하는 모습이 전파를 탔다.

이어 백화점 모녀의 어머니는 “차를 빼달라길래 사람이 와야 가지 않겠냐고 했다. 처음엔 죄송하다고 하더니 제 차 뒤로 와서 권투품을 잡더라”고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나 해당 주차요원은 제작진과 만난 자리에서 “오해다”라고 해명했다.

그는 자신을 향해 주먹질했다는 백화점 모녀의 주장에 대해 “아줌마를 향하지 않았다. 내가 보여준 행동 때문에 오해했구나 생각하고 ‘죄송하다’ ‘아니다’라고 해명하려 했는데 당황스럽고 말을 잘 못 하니 의사전달이 안 됐다”고 설명했다.

혼자 가볍게 몸을 풀려고 했던 행동이 오해를 불러왔다는 것이다. 백화점 모녀의 어머니 역시 (권투품을 했을 때) 주차요원과 눈은 마주치지 않았던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주차요원은 “당황스러웠다. 이런 경험이 처음

이라 무서웠다. 살면서 무릎을 꿇은 게 처음이었다”며 “내 머릿속에 스친 게 1학기 낼까 말까 하는 금액인데 등록금을 어떻게 마련하지? 돈은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뿐이었다”며 당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백화점 모녀는 “이는 마녀사냥이다. 2014년 말에 진상 모녀라는 이름을 달아본 게 웃기다. 이런 게 마녀사냥이구나 싶다. 당일 600만~700만원을 쓰고 왔는데 왜 이런 꼴을 당해야 하나 싶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날 방송에서 당시 ‘백화점 모녀 사건’을 목격한 한 목격자는 “이 차 보이냐고, 이 차가 똥차로 보이냐고 하더라. 마지막으로는 더 높은 사람들도 자기한테 다 무릎을 꿇는다. 자기 남편 한마디면 다 잘린다고 하더라”고 증언했다.

해당 목격자의 증언처럼, CCTV에는 무릎을 꿇고 앉아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주차요원들과 백화점 모녀의 모습이 담겨 있어 충격을 더했다.

soho0901@news1.kr



송일국 매니저 임금 논란 공식 사과

아내 정승연의 적절치 못한 표현에 변명의 여지 없다

(서울=뉴스1) 온라인팀 = 배우 송일국이 매니저 임금 관련 논란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12일 송일국은 자신의 소속사를 통해 “며칠 전 아내의 페이스북 글로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일의 모든 발단은 저로부터 시작됐기에 제가 사과드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어 이렇게 글을 씁니다”라는 내용의 사과문을 발표했다.

사과문에서 송일국은 “아내의 적절치 못한 표현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으며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라고 말했다.

당시 정승연 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말 이따위로 자기들 좋을 대로만 편집해서 비난하는 것을 보면 어처구니없다. 해명해도 듣지도 않고 자기가 보는 거만 보는 사람들”, “정식 매니저를 채용할 때까지 전화받고 스케줄 정리하는 등의 임시 알바를 시키게 됐다”, “알바생에 불과했으니 4대 보험

따위 물론 내주지 않았다” 등의 다소 거친 발언을 올려 논란을 빚었다.

특히 친구 임윤선 변호사에 의해 해당 글이 최초로 유포된 후에는 온라인을 중심으로 ‘인턴에 불과’, ‘알바생에 불과했으니 4대 보험 따위’ 등의 발언이 문제가 돼 ‘갑질 논란’까지 번지게 됐다.

송일국은 매니저 임금 논란에 대해서는 “7년 전 소속사도 없던 중 실무를 담당하던 매니저가 갑작스럽게 그만두는 바람에, 인턴이기에 겸직도 가능하다고 하고 별도 급여를 지급하면 문제가 안 될 것이며 그 사람에게도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란 안이한 생각으로 일을 처리하다 이 같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공직자의 아들로서 좀 더 올바르게 생각하고 처신했어야 할에도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사과드립니다”라고 마무리했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은 “에휴 이게 뭐 사달이야?”, “결국 인턴 하면서 겸직한 거네”, “빠른 사과는 보기 좋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kijez875@news1.kr



여승무원 비열한 웃음에 박창진 사무장 고개 떨궜

(서울=뉴스1스포츠) 온라인뉴스팀 = 대한항공 여승무원의 행동에 박창진 사무장이 끝내 고개를 떨궜다.

지난 10일 밤 11시15분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팽항 회항 사건의 피해자인 박창진 사무장과와의 인터뷰가 전파를 탔다.

이 중 눈길을 끈 것은 박창진 사무장을 내쫓기 위한 회사 측의 행동으로 찌라시 작입 등이 이뤄진 것이었다. 대한항공 박창진 사무장은 이날 방송에서 자신이 국토부 조사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의 폭행과 폭언이 없었다고 진술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이후 입장이 바뀌게 된 계기에 대해 설명했다.

박창진 사무장은 “회사 고위 임원들의 은폐 지시를 받아들여 국토부 진술조사에 임해 지시한 대로 진술을 했다. 개인으로 그것을 거부할 힘이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후 그는 자신의 지인으로부터 찌라시 내용을 전해 듣고 “이를 폭로해야겠다고 다짐했다”고 설명했다.

방송에서 소개된 찌라시 내용에

는 ‘1타 2피’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대한항공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원래 능력이 없고 대한항공 승무원을 성희롱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박창진 사무장을 정리하려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과 인터뷰한 전,현직 대한항공 직원들은 하나같이 박창진 사무장을 “강직하고 부하 여승무원들에게조차 내외하며 어려워하는 성격”이라고 증언했다.

또 이날 방송에서는 문제의 여객기에 탑승했던 대한항공 승무원들에 대한 검찰 조사가 진행된 날 한 대한항공 여승무원이 소리 없이 웃고 있는 모습이 공개됐다. 해당 여승무원은 검찰 조사를 마친 후 대기하고 있던 차에 올라랐는데 그 안에는 대한항공 관계자들이 타고 있었다.

이 모습을 본 박창진 사무장은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다. 그는 “여승무원들은 그 상황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육설도 듣고 파일로 맞기도 했지만 자기 그런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면서 “이 일이 잠잠해지고



나면 모기업이 주주로 있는 대학교에 교수 자리로 이동시켜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고 했다”고 말해 충격을 더했다.

대한항공 여승무원과 박창진 사무장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대한항공 여승무원, 뭐냐”, “대한항공 여승무원 교수직 얻으려고 그런 짓을 하다니 너무한다”, “대한항공 여승무원, 박창진 사무장만 괴롭겠다”, “대한항공 여승무원, 박창진 사무장 좋은 결과 있길 바란다” 등 반응을 보였다.

chaebin922@news1.kr

국제시장 올해 첫 천만영화 등극

윤재균 '감사한 마음 뿐'

(서울=뉴스1스포츠) 온라인뉴스팀 = ‘국제시장’이 올해 첫 천만영화로 등극했다.

지난 14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 집계에 따르면 ‘국제시장’은 개봉 28일째인 지난 13일 전국 848개 상영관에서 누적 관객 수 1000만1709명을 기록해 1000만 관객을 돌파했다.

‘국제시장’의 1000만 돌파 속도는 윤재균 감독의 전작인 ‘해운대’(누적 1145만3338명)보다 6일, ‘변호인’(누적 1137만5954명)보다 5일, ‘괴물’(누적 1091만7221명)과 ‘7번방의 선물’(누적 1281만1213명)보다 4일 빠른 기록이다. 역대 국내 개봉 영화 중 14번째이며 한국 영화 중에는 11번째다.

국제시장의 윤재균 감독은 한국 영화사상 최초로 1000만 영화를 두 편이나 탄생시킨 감독의 반열에 올랐다. 그는 ‘국제시장’의 1000만 흥행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뿐”이라며 “해운대” 당시에는 행복하고 기쁘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흥분되기보다 감사하는 마음이 앞선다. 영화의 출발 자체가 아버

지에 대한 헌사였기 때문에 답답하고 차분하고 감사한 마음”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국제시장 올해 첫 천만영화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국제시장 올해 첫 천만영화, 축하한다”, “국제시장 올해 첫 천만영화, 천만까지 갈 줄 몰랐다”, “국제시장 올해 첫 천만영화, ‘해운대’ 감독 작품이었구나”, “국제시장 올해 첫 천만영화, 인상깊게 봤다” 등 반응을 보였다.

‘국제시장’은 1950년대 한국전쟁을 배경으로 가족을 위해 헌신해온 가장 덕수(황정민 분)의 삶을 통해 우리 시대 아버지들의 삶을 재조명한 작품이다.

wlsgml3135@news1.kr



한주간



시청률 순위

2015년 1월 5일 ~ 1월 11일

1위
KBS2 주말연속극
가족끼리 왜 이래
38.8%



2위 MBC 주말특별기획 전설의 마녀 26.4%



3위 KBS1 일일연속극 당신만이내사랑 25.6%

- | | | | |
|----|------|---------------|-------|
| 4 | KBS2 | 일일드라마(달콤한비밀) | 19.5% |
| 5 | MBC | 주말드라마(장미빛연인들) | 19.2% |
| 6 | KBS1 | KBS9시뉴스 | 17.5% |
| 7 | KBS2 | 해피선데이 | 16.5% |
| 8 | KBS2 | 개그콘서트 | 15.4% |
| 9 | SBS | 정글의법칙IN코스타리카 | 14.7% |
| 10 | KBS1 | 가요무대 | 14.1% |

* 한국 TV KBS, MBC, SBS를 월 \$37.99에 볼 수 있는 티보 (617-955-9112) 지금 신청하세요!

한주간 음원 차트 순위 10

- | | | |
|----|-----------------|--------------|
| 01 | 위아래 | EXID |
| 02 | LUV | Apink |
| 03 | 사랑에 빠지고 싶다 | 정승환 |
| 04 | 광화문에서 | 규현 |
| 05 | 데자-부 (Deja-Boo) | 종현 |
| 06 | GOOD BOY | GD X TAEYANG |
| 07 | 목소리 | 노을 |
| 08 | Angel | 윤미래 |
| 09 | 사뿐사뿐 | AOA |
| 10 | 화 | 매드클라운 |

숫자 퍼즐 (Sudoku)

7			1		4		3
				2	5		9
9			3	5		6	
	9	4				6	7
		8				2	
5		6				1	9
	2		5	9			6
6		9	3				
1	3		7				5

1월 18일 - 1월 24일

재미로 보는 주간 운세 지문 철학원

www.askjiyun.com
213-739-2877



<p>쥐띠 확실한 찬스이니</p> <p>● 운수: 많은 아이디어와 생각이 교차하게 되는 운입니다. 평소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생각이 미치게 될 것입니다. ● 금전: 생각지도 않았던 기회가 오게 됩니다. 확실한 찬스이니 잘 활용하고 모든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세요. ● 애정: 새 연인을 만나게 되는 주입니다. 우연한 곳에서 새로운 사랑을 얻게 될 것입니다. 84, 72, 60, 48, 36년생은 20, 24일 길일. 18, 21일 주의.</p>	<p>소띠 긴 안목을 가지고</p> <p>● 운수: 심리적 갈등이 심한 상태입니다. 오늘은 이 생각, 내일은 저 생각 수시로 마음의 상태가 바뀌는 시기입니다. ● 금전: 당장 들어올 수 있는 소득을 염두에 두기보다는 긴 안목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 애정: 연인간에는 헤어짐을 부부간에는 불화를 조심해야 합니다. 가족 또는 가까운 사람과 이별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85, 73, 61, 49, 37년생은 21, 24일 길일. 19, 22일 주의.</p>	<p>범띠 새로운 관계개선이 시작되는</p> <p>● 운수: 멀어졌던 인간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자신의 일보다는 타인의 일을 돕는 편이 유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 금전: 당장 큰 이익은 얻을 수 없더라도 앞날에 대한 희망과 기대감으로 즐거울 것입니다. ● 애정: 그냥 그렇게 별 변화 없이 진행되어오던 관계에서 벗어나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시기입니다. 86, 74, 62, 50, 38년생은 18, 22일 길일. 20, 23일 주의.</p>
<p>토끼띠 마음을 가볍게 하고 살아야</p> <p>● 운수: 혼자서 고민하지 말고 믿고 도움을 줄 만한 사람과 의논해 보세요. 같이 고민을 하다보면 대책을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 금전: 안정된 상태에 만족을 해야지 욕심을 내서는 안 됩니다. 큰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때입니다. ● 애정: 사소한 일에 너무 의미를 두게 되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마음을 가볍게 하고 살아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87, 75, 63, 51, 39, 27년생은 19, 23일 길일. 21, 24일 주의.</p>	<p>용띠 정확히 상황판단을 하고</p> <p>● 운수: 모든 것을 손에서 놓고 폭 쉬라는 시기로 어떤 일도 새롭게 시도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 금전: 문서상으로 불이익을 초래하게 되는 실수를 하기 쉬운 때입니다. 모든 서류처리나 사인은 조심해서 해야 될 것입니다. ● 애정: 눈뜨고 장님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정확히 상황판단을 하고 혼자서 힘들면 뒷사람에게 조언을 구해야 하겠습니다. 88, 76, 64, 52, 40, 28년생은 20, 24일 길일. 22, 23일 주의.</p>	<p>뱀띠 사랑을 비로소 느끼게 되는</p> <p>● 운수: 도움을 주는 귀인을 만나는 운입니다. 흉이 변해서 길이 되니 목적하는 바를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 금전: 시간은 항상 흐르는 것이니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부지런하게 일처리를 한 것이 유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 애정: 그동안 자신도 모르게 찾아들었던 사랑을 비로소 느끼게 되는 주입니다. 89, 77, 65, 53, 41, 29년생은 18, 21일 길일. 20, 23일 주의.</p>
<p>말띠 차분하게 내일을 준비하는</p> <p>● 운수: 무리를 하지 말고 욕심도 내지 말고 차분하게 내일을 준비하는 일로 보내는 것이 현명한 주입니다. ● 금전: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으나 노력의 대가와 현실적으로 자신의 몫을 얻으려면 아직 이리 시간이 흘러야 합니다. ● 애정: 소나기가 내린 뒤에 무지개가 화려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처럼 어려움 뒤에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게 됩니다. 90, 78, 66, 54, 42, 30년생은 19, 22일 길일. 21, 24일 주의.</p>	<p>양띠 인연을 소중히 여겨야</p> <p>● 운수: 때가 되면 드러내고 나타나 있지 않아도 그 가치를 인정받기 마련이니 당장의 결과에 미련을 두지 마세요. ● 금전: 모든 일에 욕심을 버리는 겸허한 마음과 부족할수록 나누어 줄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 애정: 소홀히 여기고 가볍게 대할 수 없는 것이 사람사이의 인연입니다. 현재 자신에게 주어진 인연을 소중히 여겨야 하겠습니다. 91, 79, 67, 55, 43, 31년생은 18, 23일 길일. 22, 24일 주의.</p>	<p>원숭이띠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p> <p>● 운수: 현실적으로 도저히 가능하다고 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하는 시기입니다. ● 금전: 결정적인 순간에 결단을 내리지 못해 자기 실리를 찾지 못하고 후지부지 넘어가기 쉬우니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할 것입니다. ● 애정: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을 거부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여차피 받아들여야 할 사실이라면 하루 빨리 인정하는 것이 현명한 것입니다. 92, 80, 68, 56, 44, 32년생은 20, 24일 길일. 18, 23일 주의.</p>
<p>닭띠 진주를 발견하게 되는</p> <p>● 운수: 사업가는 자신의 능력을 함께 퍼 나갈 수 있는 동업자를 얻을 것입니다. ● 금전: 적극적인 활동으로 부주하게 뛰는 만큼 소득도 따라주니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 애정: 흙 속에 감추어져 있던 진주를 발견하게 되는 주입니다. 그동안 가까이 두고도 미처 깨닫지 못했던 보석 같은 존재를 바로 알게 됩니다. 93, 81, 69, 57, 45, 33년생은 20, 22일 길일. 18, 24일 주의.</p>	<p>개띠 과욕을 줄여야</p> <p>● 운수: 자신도 어쩔 수 없는 변화의 물결이 흘러오고 있습니다. 이 흐름에 따라가지 말고 현 상태를 그대로 유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금전: 두 가지를 동시에 잘 할 수는 없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과욕을 줄여야 성공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 애정: 이성의 유혹이 많은 주입니다. 자신을 잘 지키지 않으면 난처한 입장에 놓이게 될 수 있습니다. 94, 82, 70, 58, 46, 34년생은 18, 20일 길일. 19, 24일 주의.</p>	<p>돼지띠 만남의 찬스가 주어지는</p> <p>● 운수: 문서적인 일의 추진으로 현 상태에서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습니다. ● 금전: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풀릴 것입니다. 수입은 늘고 지출은 적으니 자신에게 유리한 시기입니다. ● 애정: 새로운 만남의 찬스가 주어지는 때입니다. 그러나 적극적이지 못하면 오래가지 못하고 자연히 멀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95, 83, 71, 59, 47, 35년생은 19, 24일 길일. 20, 23일 주의.</p>

클라라 소속사 상대 계약 무효 소송

"회장 문자에 성적 수치심 느껴"

(서울=뉴스1스포츠) 온라인뉴스팀 = 클라라 소속사 상대 계약 무효 소송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14일 채널A의 보도에 따르면 배우 클라라는 소속사 회장의 언행으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느껴 계약 무효 소송을 냈다.

클라라 측은 "소속사 회장 이모씨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껴 9월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계약 효력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60세가 넘는 이 씨의 언행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이씨가 김씨 등 매니저를 일방적으로 해고했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플라리스엔터테인먼트는 "클라라 측이 앞뒤 내용을 모두 잘라 회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클라라와 그의 아버지 이승규씨를 협박 혐의로 고발한 만큼 곧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고 반박했다.

이어 "지난해 전속계약 이후 클라라가 계약위반행위를 반복해 시정을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아 수차례에 걸쳐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이를 들어주지 않자 성적 수치심등을 문제 삼아 협박하더니 뻔뻔하게 소송까지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클라라 소속사 상대 계약 무효 소송, 말이 다르네", "클라라 소속사 상대 계약 무



효 소송, 잘 해결되길", "클라라 소속사 상대 계약 무효 소송, 일반 회사에서도 저런 일이 빈번하더라" 등 반응을 보였다.

chaebin922@news1.kr

성유리, 이효리 사과에 폭풍 눈물

(서울=뉴스1스포츠) 온라인뉴스팀 = 성유리가 이효리의 사과에 눈물을 보이고 말했다.

성유리는 지난 12일 밤 11시15분 방송된 SBS '힐링캠프, 기쁘지 아니한가'에서 신년회에 초대하기 위해 이효리에게 전화를 걸었다.

성유리는 이어 김제동이 이효리와 먼저 통화했다는 말을 듣고 전화번호를 받아 이효리에게 전화를 했다. 반갑게 전화를 받은 이효리는 "'매직아이'에서 전화를 했는데 전화번호가 아닌 거다. 애들한테 무심했구나 생각이 들더라"며 미안해했다.

성유리는 제주도에 있는 이효리가 오지 못하는 것을 아쉬워하며 "그럼 신년회 때 한 번 뭉치자"며 "내가 먼저 전화했어야 하는데 면목이 없다"고 말했다.

이효리와 훈훈하게 대화 후 전화를 끊은 성유리는 "몇 년 만에 전화하는 건지 모르겠다"며 갑작스럽게 흘러내



리는 눈물을 흘렸다. 성유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왜 전화를 안 했는지 모르겠다"며 미안한 마음을 드러냈다.

성유리 이효리의 모습에 누리꾼들은 "성유리 이효리, 두 사람 모습 보기 좋더라", "성유리 이효리, '힐링캠프'에서 다시 만났으면", "성유리 이효리, 다시 한 자리에 선 모습 보고 싶다" 등 반응을 보였다.

aluem_chang@news1.kr

강소라, 생애 첫 DJ 도전 '선곡 직접 참여'

(서울=뉴스1스포츠) 명희숙 기자 = 배우 강소라가 라디오 DJ에 도전했다.

강소라는 지난 13일 스트리밍 라디오 서비스 '밀크뮤직' 속 '밀크스테이션'을 통해 라디오 DJ로 데뷔했다. 그는 노래 선곡부터 토크까지 직접 참여에 나서며 다채로운 매력을 발산하고 있다.

강소라가 참여하는 '미생 밀크스테이션'은, 얼마 전 종영한 tvN 금토드라마 '미생'(연출 김원석/극본 정윤정)의 출연배우들이 '밀크뮤직'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직접 자신의 목소리를 녹음, DJ로서 음악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들을 재미있게 풀어내는 새로

운 개념의 프로젝트이다.

'미생 밀크스테이션'은 지난 13일 오픈을 시작으로 총 4주간 4회에 걸쳐 다양한 스테이션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더불어 강소라를 시작으로 또 다른 '미생' 출연 배우들이 DJ로 나서며 청취자들에게 한 달간 행복한 시간을 선사할 예정이어서 다음 타자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reddgreen35@news1.kr



노홍철 스페인 근황, 수염 덥수룩 '못 알아보겠네'

(서울=뉴스1스포츠) 온라인뉴스팀 = 노홍철 스페인 근황 사진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14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노홍철 스페인 근황'이라는 제목으로 사진이 게재됐다. 이 게시물의 작성자는 "지인이 스페인 바르셀로나 가우디 투어 중 노홍철을 만났다"고 설명했다.

사진 속 노홍철은 편안한 옷차림에

턱수염을 덥수룩하게 기른 모습이다. 특히 다소 살이 붙은 모습이라서 눈길을 끈다.

노홍철은 지난해 11월 강남구 논현동 서울세관사거리 인근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 음주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05%로 확인됐으며 면허 취소 1년의 처벌을 받았다.

chaebin922@news1.kr



천지보살

운명사주궁합신점

전화예약 617-947-6799

전화로도 상담해드립니다

"광고는 영화다"

동영상 광고 전문제작 유튜브 / TV / 모바일

Nabis Studio

6177565744

ozic@hotmail.com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이벤트사진, 여론사진,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OTK 김원태 건축사

Registered Architect (MA & NY) • NCARB • CDT • LEED AP

MA REALTOR® • MA Licensed Real Estate Salesperson

건축 & 시공

15년 이상의 전문적인 경험

매사추세츠와 뉴욕 건축사 전문 라이선스 보유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교 건축학과 졸업

기획 • 설계 • 허가 • 시공 • 관리

각종 건물 신축 • 증축 • 개축

We can Design Build Buy Sell your home!

상용건물 • 콘도 • 주택 • 사업체 매매 도와드립니다

otk212@gmail.com 617.620.8242

〈김씨의 뿌리(29)〉



김은한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역사문제연구소 연구위원

인면 상감 유리 구슬과 로마 유리 그릇



인도네시아 자바 섬에서 23시간만에 만든 인면 상감 유리구슬(좌), 경주 미추 왕릉 지구 출토 인면 유리구슬(우)

1973년 경주 종합 개발 계획의 일환으로 신라 미추왕릉이 있는 지역을 정화해서 대릉원이라는 신라 김씨 고분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대릉원이 생겨나게 됐는데 여기에 있는 20여개의 거대 고분들은 AD4~6세기 간에 생존했던 김씨 왕과 왕비, 그리고 왕족들의 무덤이었다.

대릉원 주변(미추왕릉 지구)에는 수많은 폐고분이 적석 목곽분 형태로 잔재하고 있었다. 이곳에 있는 4호 고분은 신라 지배층 무덤으로 추정되었는데 유물 중에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신비로운 유리 구슬이 발견되었는데 사람과 오리, 꽃 등이 모자이크 기법으로 정교하게 상감되어 있었다(보물 634호).

함께 발굴된 유물로는 특이한 모습의 서수형 토기(보물636호)가 나왔는데 이 토기는 거북이의 몸통과 용의 머리와 꼬리를 지니고 잔등이에 권력의 상징인 동복을 지니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신라 지배층의 무덤으로 추정되었다.

목걸이는 29개의 청색 유리환옥(丸玉), 16개의 홍색 마노옥, 1개의 청색 대롱옥이 순서대로 배열되었고 대롱옥 바로 밑에 직경 1.8cm의 상감 유리옥과 수정옥에 이어 홍색 마노곡옥으로 마무리하였다. 상감 유리알은 직경이 1.8cm로 아주 작은 유리알인데 그 속에 무려 4명의 인물상과 6마리의 새들, 두 그루의 나무가 상감되어 있었다.

인물상의 얼굴 바탕은 백색이고, 눈, 눈썹, 코, 귀는 청색이고 입술은 빨간색이었다. 한 눈에 유럽인의 모습이였다. 인물 둘레에는 청색 바탕에 백색으로 된 오리 모양의 새와 황색, 백색 등의 꽃이 있었다.

이전에도 금관총, 천마총에서 상감 유리 구슬이 출토되었는데 이 구슬들은 감청색 바탕에 불규칙한 백색, 황색 반점이 상감된 구슬들로 미추왕 지구 4호 고분에서 발굴된 유리 구슬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동근 유리 구슬 속에 모자이크 기법으로 유럽풍의 인물이 정교하게 상감되어 있는 신라 유리 구슬이 세계 학회에 보고되자 즉각 세계의 많은 학자들이 관심을 보여주었다.

신라에서 만들어진 유리 구슬이 아니라는 점에는 의견이 모아졌지만, 도대체 상감된 인물은 누구일까? 도대체 어디서 보내온 구슬인가? 등등의 의문이 이어지게 되었다.

신라 고대 유물의 대가 요시미즈 츠네오 교수는 상감된 인물이 로마 교황이라는 주장을 피력하였다. 그렇다면 이 유리 구슬은 로마나 유럽에서 온 것인가?

학자들은 신라의 장식보검이나 각배를 비롯해 황남대총, 천마총, 서봉총, 금령총에서 발굴된 로마식 유리 그릇들이 중앙 아시아나 지중해 지역에서 온 것 처럼 상감 유리 구슬도 4~6세기 때 같은 지역에서 온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었다.

이 구슬의 공식 명칭은 “경주 황남동 상감 유리 구슬”이고 세계 고고학계에서는 “신라인면 유리 구슬”로 부르게 되었다.

신라 인면 유리 구슬에 관한 연구는 영국 런던대학교 고고학 연구소 선임 연구원 제임스 랭턴 박사가 신비스런 이 구슬의 출생지를 추적하면서 여러 학자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아주 다른 방향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랭턴 박사는 이 구슬이 경주 대릉원 인근에서 출토되었기 때문에 대릉원 황남대총에서 출토된 봉수형 유리병(국보193호)이나, 금령총의 점박이 유리잔, 천마총의 거북 등 문양의 유리잔이 만들어진 곳과 같은 곳에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그는 로마 제국 유리 문명의 본고장 예루살렘으로

구슬이 있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유리 구슬은 신라 구슬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스라엘 유리 구슬은 평면적인 도형에 가까웠고, 하나같이 아몬드형 눈동자에, 코는 돼지 코, 입은 한 일자로 꼭 다문 모습에 네모난 얼굴을 보여주고 있었다. 신라 인면 구슬과는 아주 다른 얼굴이었다. 신라 상감 구슬은 유럽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다.

랭턴 박사는 지중해 연안 제국을 비롯한 7개 나라를 찾아다니면서 신라 인면 상감 유리 구슬의 출생지를 탐문하다가 의외의 곳에서 결정적인 단서를 잡게 되었다.

뉴욕 코닝 유리 박물관 서고에 인도네시아 유리 구슬을 다룬 책이 있었다. 이 책에서 그는 신라 구슬과 똑같은 모습, 똑같은 제작 양식을 적용한 인면 상감 유리 구슬의 모습을 발견하였다.

실제로 그는 아리조나에서 얼굴 표정이 약간씩 다른 4개의 인물상에 5마리의 새가 상감된 유리 구슬을 접하게 되었다. 이들 인물상은 신라의 것과 쌍둥이처럼 닮았었다.

샌디에고 박물관에서 그는 신라구슬과 제작기법은 물론 모자이크 문양까지 똑같은 유리구슬을 찾아냈다. 이 구슬의 이름은 자바티무르(동자바)라는 구슬이었다. 이 구슬의 제작지는 인도네시아 자바 동쪽의 쟈버 지역이었다.

쟈버를 방문한 랭턴 박사가 이 마을 공방에 신라 인면 상감 유리 구슬 사진을 보여주며 제작을 요청한 바 장인은 23시간 만에 비슷한 모양의 구슬을 만들어내었다.

랭턴 박사는 자카르타의 한 불교 사찰 법당 앞 월장석 바닥에 부처의 일대기가 그림으로 표현되어 있었는데 해탈을 의미하는 새, 함사(Hamsa)와 미륵불이 올 것을 암시하는 용화수 나무를 발견하였다. 그리고 유리 구슬에 그려진 새와 나무가 함사와 용화수를 지칭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는 랭턴 박사의 집념에 가득찬 탐사로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다.

첫째는 일찍이 5~6세기 경에 신라와 인도네시아 자바 사이에 해로를 통한 교류가 있었다는 사실이다. 두 번째는 대릉원 거대 고분에서 발굴된 로마식 유리 그릇은 4~5세기 때 로마 제국에서 신라로 전해졌다는 사실이다.

고구려 백제 유물 중에 로마식 유리 그릇이 없는 것은 연구가 필요한 사항이다.

필자주: 랭턴 박사 이야기는 KBS에서 방영된 내용을 많이 참조하였다.



경주 미추 왕릉 지구 출토 인면 상감 유리 구슬 목걸이

첫 탐사를 시작하였다.

AD1세기에 이스라엘에서 개발한 대롱불기법 유리제품 생산 기법이 지중해 연안의 로마 제국 영토로 확산되면서 유리 제품이 다량으로 생산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그는 팔레스타인 쉐브론에서 황남대총에서 나온 봉수형 유리병과 같은 모양의 오에노코에 유리병이 16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오이노코에는 로마 귀족들이 포도주병으로 사용하던 용기였다. 히브리 대학 고고학 연구소 루스 잭슨탈 교수는 신라 봉수형 유리병 사진을 보고 로마 제국 4~5세기의 유물로 진단하면서 금령총의 점박이 유리잔이나 천마총의 거북 등 모양의 유리잔도 로마산으로 인정하였다.

랭턴 박사가 예상했던 대로 텔아비브 예레츠 박물관에는 로마 시대 때 만든 사람 얼굴을 상감해 놓은 인면 상감 유리



황남 대총 출토 봉수형 유리병(국보 193호)

한 차원 높은 고국방문 의료관광 서비스 의료관광 'HURAM'

어느때부터 의료관광 (Medical Tourism)이란 단어를 매체들을 통하여 많이 들어 보았을 것이다.

의료관광(Medical Tourism)이란 개인이 자신의 거주지를 벗어나 다른 지방이나 외국으로 이동하여 현지의 의료기관이나 요양기관, 휴양기관 등을 통해 본인의 질병을 치료하거나 건강의 유지, 회복, 증진등의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본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현지에서의 요양, 관광, 쇼핑, 문화체험 등의 활동을 겸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은 우수한 의료시설과 의료인력, 선진국 대비 저렴한 의료비의 경쟁력을 토대로 이명박정부때 고부가가치 창출 사업인 Global Healthcare 산업(의료관광/외국인 유치사업)을 선정하였고, 2009년 5월 1일 개정 의료법의 시행으로 의



료관광사업을 적극 지원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과 발 맞추어 해외동포를 대상으로 적정한 가격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준비를 해온 의료관광전문 유치업자인 HURAM을 소개하고자 한다.

지난 2008년부터 미국 달라스를 포함한 북미 8개 대

도시권 내 한인 및 여타 문화권을 대상으로 성공적인 의료검진 서비스를 진행해 온 '휴람'은 2012년 2월 독립법인을 설립하며 북미를 포함한 유럽,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동남아시아 등 전세계 20여개 지역 담당자들의 운영능력을 합쳐 보다 안전하고 고객의 NEED를

충족시켜주는 종합 의료관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흔히들 유치업자라고 하면 브로커로 인식을 하여 HURAM을 통하여 의료관광을 진행하게 되면 중계수수료를 내야 한다는 선입견을 가질 수가 있다.

그러나 HURAM을 이용할 경우의 장점은 국내고객과 동일한 비용 또는 이벤트를 통한 저렴한 비용에 의료를 이용할 수가 있고 또한 보호자 입장에서 고객의 NEED에 맞는 의료기관 선정, 퀄리티 및 비용대비 효율성 있는 병원을 선정해준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정리하자면, HURAM을 통한다면 의료의 퀄리티, 비용, 시간, 신뢰, 서비스 등에서 혜택을 제공 받을 수가 있다. 앞서 말한바와 같이 의료관광은 타 지역에서 의료를 행해야 하므로 현지 의 믿을 수 있는 의료경험이

많은 HURAM과 같은 의료관광 유치업자가 필요한 것이다.

휴람의 네트워크는 의료(종합수술, 검진, 성형, 여성성형, 남성성형, 안과, 이비인후과, 비뇨기과, 치과, 피부관리등) + 관광(숙박, 여행, 기타등) 등이 이용 가능하다.

- 휴람 이용 절차**
- 1) 1차 현지 접수 상담
 - 2) 휴람 전문 상담자가 현지 직접 예약 및 상담 (전화/이메일/카톡등)
 - 3) 전문 의료기관 연결
 - 4) 사후 관리
 - 5) 휴람 지역 운영자 불만사항 처리

이제 고민하지 마시고 직접 상담을 통해 휴람이 어떠한 곳인지를 알아보시고 경험해보시길 추천한다.

한 차원 높은 고국방문 의료서비스 이제 휴람을 통해 이용해보세요!

고국방문 검진&성형&전문치료&피부관리
이제 고민하지 마세요! 신뢰할 수 있는 휴람이 도와드릴 것입니다.

나에게 도안이 왔다면?

※성인 2명까지 예약하는 4인-5인까지 동반 예약자에게 수술 당일 휴가를 위한 숙박비용을 제공해드립니다!

1. 안경렌즈 교환 (4인-5인)	25만원	→	20만원
2. 450도 이하의 1인 수술 (4인-5인)	300만원	→	170만원
3. 백내장 수술 (4인-5인)	150만원	→	110만원

속(?) 짝은 여자가 아름답다 5% OFF

질 이완, 불임증, 요실금, 난임에 해결!

- 양귀비 수술 (수술시간 15분 / 회복시간 1시간) 150만원
- 요실금 수술 (수술시간 20분 / 회복시간 1시간) 150만원
- 이쁜이 수술 (30여회 비뇨/성형/피부/정형외과) 300만원
- 그 외 수술 : 음핵수술 100만원, 소음수술 200~400만원

남성 비뇨기 정밀검진 특별할인

배뇨장애 + 방기장애 + 정년기 + 조루 + 비뇨기암 검진

-95% 80만원

이윤수 & 조성원 비뇨기과

대한민국 1등 성형외과 특별할인

안경수술 (4인-5인)	안경수술 (4인-5인)	안경수술 (4인-5인)
500만원	600만원	300만원
안경수술 (4인-5인)	안경수술 (4인-5인)	안경수술 (4인-5인)
300만원	200만원	200만원
안경수술 (4인-5인)	안경수술 (4인-5인)	안경수술 (4인-5인)
150만원	150만원	200만원

www.huramkorea.com

미국문의 보스톤코리아 617-583-2993

이메일 huramceo@huram.kr

한국문의 82.70.4141.4040 (해외의료사업팀장 김수남)

카카오톡 010.3469.4040 / ID:huramkorea

신영의 **세상 스케치**

481회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리기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세상과 마주하고 사람과 더불어 살다 보면...

세상과 마주하고 사람과 더불어 살다 보면 때로는 생각지 않았던 일로 마음이 버거울 때가 있다. 그것이 사람이든 일이든 간에 마음의 혼란을 겪을 때가 있다. 그래도 잘 견디고 참아내면 좋은 일이 반드시 온다는 그 믿음으로 잘 견디며 사는가 싶다. 우리 부모님이 그랬듯이 내가 어려운 일을 겪어도 역을 한 것 같은 마음을 잘 달래고 참아내면 내가 아니라도 내 자식에게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부모님의 '그 믿음'처럼 말이다. 나 역시도 세상을 살면서 얻은 것이 있다면 이런저런 사람을 만나고 일을 겪으며 그 경험을 통해서 '지혜'를 얻게 된 것이다. 잘 견디고 참아내면 복이 된다는 그 말씀처럼.

'호사다마'란 말이 있듯이 살면서 느끼는 것이지만 좋은 일을 앞두고 생각지 않았던 곳에서 생각지 못했던 사람으로부터 엉뚱하게 불편함을 마주할 때가 있다. 그럴 때는 잠시 멈춰서고 깊은 호흡으로 그 일과 사람으로부터 나와서 거리를 두고 깊은 묵상의 시간을 갖는 것이다. 그렇게 얼마 지나면 마음의 평정을 찾게 되는 것이다. 내 마음의 평정을 찾고 잘 다스리면 저절로 버거운 일, 힘든 일들은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것이고 그 기다림으로 더 좋은 결과를 만나게 된다. 그래서

이제는 그 어떤 일을 만나도 급하게 서두르지 않는 법을 마음을 다스리며 기다리는 법을 배우며 사는 것이다.

세상을 살다 보면 '하필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야!' 싶은 일들이 너무도 많다. 그것은 내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았으면 싶은 바람일지도 모른다. 특별히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 살면서 내게는 좋은 일만 있게 해달라 빌면 그것은 '기복 신앙'이 아닐까 싶다. 그저, 세상과 마주하고 사람과 더불어 살면서 일어나는 일일 뿐이다. 그 일은 내 일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다만, 내 일이 아니기를 내심 바라는 '내 마음'만 있을 뿐이다. 편안한 삶을 살 것 같은 저 사람에게도 나와 똑같은 색깔과 모양은 아닐지라도 다른 아픔과 고통이 있음을 생각해야 한다.

사람의 심리 중에는 아마도 이런 마음이 작용하지 않을까 싶다. '남의 떡이 커 보인다'는 옛 속담이 있듯이 다른 사람과 늘 비교하며 사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상대적 박탈감이랄까. 어쩌면 자신 스스로 자신을 가꾸며 버티는 버릇이 습관이 된 것인지도 모른다. 다른 사람의 삶과 비교하며 살다 보면 자신의 즐거움과 행복은 점점 작아지고 걱정과 근심

과 고통만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자신 스스로 '불행의 웅덩이'에 빠지고 마는 것이다. 인생에서 잃어버리는 시간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싶다. 자신에게 있는 '작은 행복'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넉넉한지 알아차리는 날이 그 사람에게서 행복의 날일 게다.

한 10여 년 전 내 삶에서 하늘이 무너질 것 같았던 일을 두 번 겪으며 삶을 바라보고 마주하는 태도가 많이 달라졌다. 어쩌면 무서운 일들이 가시기 시작했는지도 모른다. 하이스쿨에서 운동을 하다가 쓰러졌던 심장병을 앓고 있던 큰 녀석의 갑작스런 사고와 건강하던 남편에게 갑작스런 건강의 적신호는 내게 큰 충격을 안겨줬던 일이었다. 하지만, 하필이면 왜 나냐고 내가 믿는 신께 따져 묻지 않았다. 그것은 이미 큰 녀석이 태어나자 병원에서 엄마와 하룻밤을 함께 지내지 못하고 큰 병원으로 실려가 핏덩이 어린아이와 울부짖었던 일이 있었기에 받아들였던 것이다.

그렇다, 그렇게 큰일을 몇 번 겪으며 이것이 꿈이라면 좋겠다고 몇 번을 하늘을 올려다보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는지 모른다. 하늘을 올려다보며 '왜 하필이면 나냐고?' 그렇게 얼마나 묻고 또 물었는지 모른다. 그 아픔

과 고통과 좌절 후에 오는 특별한 감사가 저절로 넘쳐흐르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신앙'은 아닐까 싶다. 설령, 잠시 내 삶에 대한 실망과 좌절과 고통으로 나 스스로 손을 내밀며 신을 거부할지라도 내 영혼 깊은 곳에 뿌리내린 나의 신의 손길에 속할 수 없음을 안다. 그래서 삶에서 그 어떤 고통과 시련이 올지라도 그 후의 '절대적인 감사'를 고백하는 것이다.

세상과 마주하고 사람과 더불어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로 기쁨과 행복도 있지만, 가끔은 실망도 하고 좌절도 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네 삶이 아닐까 싶다. 다른 사람에게 닥쳐온 불행이 나의 행복이 될 수 없는 것처럼 나의 불행이 또한 다른 사람에게 기쁨이나 즐거움이 아닌 까닭이다. 누구에게나 보통 어려운 일은 겹쳐서 오게 된다. 그럴 때 '저 사람은 저 집은 왜 저렇게 안 좋은 일들이 계속되지?'하고 말을 밖으로 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내 일 내 일이 어찌 따로 있을까. 돌고 도는 것이 세상이라 하지 않았던가. 그저, 우리는 하늘 아래 한 치 앞도 모르고 살아가는 나약한 존재들이 아닌가.



한담객설閑談客說:
입맛도 그리움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한창 겨울이 깊다. 올 겨울은 시작이 미약했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창대해졌다. 하긴 달력으로는 이미 대한대寒이 아니던가. 가장 춥다는 시기이고, 아난게 아니라 무지 춥다. 그런데 아직 눈은 세계 오지 않았다. 그렇다고 방심하고 있는 건 아니다. 이제나 올까나 저제나 내릴까 조바심으로 마음을 편다. 아 내가 또 한마디 거든다. '올 때가 되면 올텐데, 무슨 호들갑이나?' 핀잔이다.

'첫눈'이란 시조다. 시인은 바리톤이라 했는데, 읽는 나는 야구를 떠올렸다. 일회 초 일번 타자가 초구를 당겨 펜스를 맞춘 삼루타를 연상케 했던 거다. 첫눈은 잘맞은 타구打球만큼이나 장쾌하다. 제목을 폭설로 바꿔 읽는다면 대는 큰 무리는 없을 듯하다.

'첫날부터 바리톤이었다, 목청이 좋았다'

낮고 굵은 성량으로 곳간 가득 들어찼다 약골의 겨울 들녘도 뱃심 좋게 우거졌다' (박명숙, 첫눈)

눈 내리는 한 밤이었을 게다. 어린 나는 감히 방 밖을 내다 볼 수 없었다. 그날도 폭설이 있을 테니 말이다. 한창 겨울밤인데 방바닥은 찜찜 끓었다. 엉덩이가 무지 뜨거웠다. 거의 고기 탄내가 날 정도였으니 말이다. 천정은 낮아 방안공기는 따스하고, 구수했다. 어머니는 얼음 뜬 김장김치에 국수를 말아 주셨다. 그걸 이불을 뒤집어 쓰고 먹었다. (어머니는 찜이라 했었다. 찜이라 발음했었다. 말씀 중에 얼음판 갈라지는 소리가 들렸다. 이 말이 황해도 말인가는 확인하지 못했다.) 디저트로 언 사과가 제일이라 했다. 어머니는 말씀으로만 입맛을 돋궈 주셨다. 사과를

반드시 얼어 있어야 한다. 그것도 황주사과라야 한다. 하지만 이걸 어머니 입맛이지, 내 입맛은 아니다. 그렇다고 그걸 맛보려 보스톤사과를 일부러 얼릴 수도 없다. 황주사과를 구할 수 없다. 어머니가 말해주시던 그 김치말이 맛은 여전할 겐가.

시시가 눈에 익었다 싶었다. 김지하가 술에 취해 청진동 선술집 벽에 낙서처럼 휘갈겨 썼던 시란다. 이만한 시를 읽고 될 수 있는 시가 없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던가. 읽는 나 역시 눈이 함박눈 쏟아져 내리는 옛적 고향집 마당이 눈앞에 보인다. 내 그리움이 시인의 그리움보다 못하지는 않을진대. 한 겨울에 함박눈 쏟아져 내리면 더 아련한게다. 이용악 시인이다. 광화문 글판에 지난 달에 달렸다.

'눈이 오는가 북쪽엔'

함박눈 쏟아져 내리는가 너를 남기고 온 작은 마을에도' (이용악, '그리움'에서, 광화문 글판)

언 배(梨)를 동이凍梨라 알고 있다만, 언사과는 한자로 어떻게 적는지 모르겠다. 내 나이가 더 들면, 내 스스로 나를 동이凍梨라 부르려 한다. 배도 겨울에만 언다. 여름에 어는 배를 본 적이 없다. 냉면엔 배 한 조각이 올라간다. 밤이 늦었는데, 냉면을 삶아 김치국물에 말아 먹을 꺼냐? 아내가 투덜거릴 게다. '아닌 밤중에 뭘 밤참?' 내 대꾸다. '입맛도 그리움이다.'

찬바람이 북쪽에서 불어오면 물이 얼어서 얼음이 되고, 모든 물줄기는 걸음을 멈추고, 물살은 얼음의 감춌을 입는다. (공동번역, 집회서 43:20)

보스톤코리아

KOREAN GUIDE & MAP

보스톤 가이드 앤 맵



이제 미국과 중국 고객을 상대로 비즈니스를 해야 할 때입니다!

한국어, 영어, 중국어로 된 코리안 가이드 앤 맵

한국어, 영어, 중국어로 된 코리안 가이드 앤 맵이 곧 출간됩니다. 이 가이드 앤 맵은 미국 및 중국 학생, 관광객 등을 타겟으로 미국내 호텔, 관광지, 학원, 어학원, 대학 등에 전격 배포될 예정입니다.

미국내 호텔, 관광지, 학원, 어학원, 대학 및 한국 공항

3만부를 내년 2월 발간하여 3월부터 3개월에 한번씩 재배포되는 가이드 앤 맵은 여러분의 매출을 한단계 높여드릴 것입니다. 보스톤코리아가 선정하는 코리안 가이드 앤 맵의 베스트 업소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3만부를 3월부터 3개월에 한번씩 재배포

이제는 더 많은 미국, 중국, 아시안 고객들을 한국 업소로 불러들여야 할 때입니다. 지금 선택이 내년 매출을 좌우할 것입니다. 지금 바로 보스톤코리아로 연락하십시오.

한국어, 영어, 중국어로 된 코리안 가이드 앤 맵

미국내 호텔, 관광지, 학원, 어학원, 대학 및 한국 공항

3만부를 3월부터 3개월에 한번씩 재배포

				<p>보스톤코리아</p> <p>617.254.4654</p> <p>bostonkorean@hotmail.com</p>



화랑도(花郎徒)와 성(性) 그리고 태권도(跆拳道) 64 해방 후 무림武林의 대가(大家)들(4)

박선우 (박선우태권도장 관장)

정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이종우의 증언에 따르면 창무관 관명은 한국 전쟁 전에 윤병인이 벌써 '애칭'으로 사용했다고 한다.

YMCA 권법부 출신으로는 이남석, 김선구, 홍정표, 박철희, 박기태, 김주갑, 송석주, 이주호, 김순배 등이 있다.

한편 2대 관장 이남석, 3대 관장 김순배와 뜻이 맞지 않았던 홍정표, 박철희는 창무관을 떠나 1956년 서울 신설동에 강덕원講德院을 개관하였다.

다음은 5대 문파의 마지막으로 송무관을 들려다 본다.100 송무관松武館은 노병직盧秉直이 1946년에 개성 송악산에서 개관하였다. 송무관 창설자 노병직 관장은 일본 유학생 시절에 청도관 창설자인 이원국과 함께 송도관松濤館(소도칸)의 창시자 후나고시 기친船越義珍 밑에서 가라데를 배웠다. 해방 직전 고향인 개성에 돌아온 그는 당시 군사장(할터)이었던 관덕정觀德亭에서 젊은이들에게 심심풀이 삼아 가라데를 가르친 것이 계기가 되어 송무관을 창설하게 되었다. 노병직은 단신의 체구이지만 강인한 외모와 함께 지나치게 카리스마가 강해 제자들에게 호평을 받지 못했다. 그는 항상 수련 1시간 전에 일찍 와서 아령과 역기 등으로 몸을 푼 다음 오른손과 왼손을 번가라가며 권고대(주먹단련대)에 정권주먹, 수도치기 순으로 단련을 했는데 그 가공할 완

력에 제자들이 허를 내두를 정도였다. 노병직은 또 제자들에게 반드시 1백번 이상 권고대를 치게 한 다음 본격적으로 수련을 했는데, 4급 이상이면 꼭 실전대련을 시켰다. 또 타 도장과 마찬가지로 추운 겨울에는 모한수련冒寒修練을, 더운 여름에는 모서수련冒暑修練을 실시한 것으로 유명하다. 송무관 출신으로는 이회순, 이영섭, 김홍빈, 한상민, 송태학, 이희진, 조규창, 홍영찬, 강원식 등의 많은 관원들을 배출했다. 하지만 5대 문파 중 관세가 가장 미약하였다.

송무관은 초대 관장인 노병직에 이어 2대 이영섭, 3대 강원식 등으로 이어왔다.

이상이 해방 후 창설된 무술 도장의 5대 문파인 청도관, 무덕관, 조선연무관(지도관), YMCA 권법부(창무관) 그리고 송무관이다.

다음은 초창기 5대 문파에 이어 창설되어 우리나라의 초창기 태권도의 보급과 발전 그리고 조직의 형성에 많은 기여를 한 나머지 4대 문파101)를 좀더 자세하게 들여다 본다. 이들은 오도관吾道館, 강덕원講德院, 한무관韓武館, 정도관正道館 등이다. 창설자 거의 모두가 5대 문파에서 수련을 했던 사람들로 한 뿌리를 두고 있다.

먼저 오도관吾道館을 보자. 오도관은 군무장성 출신의 최홍희崔泓熙와 남태희南太熙의 합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최홍희의 자신에 의

하면 어린 나이에 독립운동을 했고, 한일동으로 부터 태권을 사사했으며, 일본 유학시절에 가라데를 배웠다고 한다. 최홍희가 1954년 제3군단(당시는 1군단이었음)이 타 문헌으로 입증)에 배속되어 있던 용대리 본부에서 오도관을 창설하기까지는 부관 남태희의 역할이 컸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최홍희에게 남태희는 '보물급의 수하 인물'이었다. 남태희는 해방 직후 청도관에 입문하여 이원국으로부터 당수도를 배웠다. 그리고 1947년 육군통신학교에서 당수도를 가르친 것이 계기가 되어 군무과 인연을 맺었다. 미남형의 얼굴에 행정관리 능력이 뛰어났고, 당수도 동작이 일품이었던 남태희는 1953년 제주도 보병 제29사단에 있던 최홍희 장군을 만나면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했다.

100 참고 문헌: 태권도 현대사(강원식, 이경명 공저, 보경문화사, 1999), 태권도지도이론(김대식, 김광성 공저, 나남, 1987), 태권도의 역사 - 네이버 지식iN.

101) 이 4대 문파는 오도관, 강덕원, 한무관, 정도관 등이다. 이 모두 5대 문파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그리고 이들을 합쳐 초창기 9대 문파 또는 9대관大館이라고 한다.

오늘, 다시 읽는 미국사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소피아
us.herstory@gmail.com

칼럼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은 WisePrep 소피아선생님 (617-600-4777, us.herstory@gmail.com)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위대한 개츠비>의 1920년대 그리고 상실의 시대

고등학교 영어 수업 교재로 한 번쯤 읽게 되는 필독 소설 중에 F. Scott Fitzgerald의 1925년작 <The Great Gatsby>를 빼놓을 수는 없을 것이다. 사실 그다 문학적이지만 못한 필자가 이 소설을 알게 된 것은 (미국사에 대해서도 이 소설의 진짜 중요성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했던 오래전 과거의) 우연이었다. 하루키의 <상실의 시대>를 읽다가 <위대한 개츠비>가 최고의 소설이라고 '의기투합' 하는 대목에서, 얼마나 대단한 소설이기에... 라는 궁금증이 그 독특한 제목 덕에 머릿속에 남아있었던 것. 그러나 정작 <위대한 개츠비>를 처음 접어들었을 때, 나는 이 소설을 스승 들춰보고 별다른 감동 없이 내려놓았다. 최상류층의 향락을 위한 파티, 비극적 결말을 가진 허무한 사랑, 그게 뭐가 어쨌다는거지? 하는 느낌이었을 것 같다.

놀랍게도 미국 역사를 통해 1920년대를 조금 알고나니, <위대한 개츠비>가 제대로 보였다. 어릴적 깊이 있게 읽을 능력이 없었고, 그리하여 별 감흥이 없었던 이 작품은 사실 사치와 향락의 시대이자 음울함이 도사리고 있던 시대, 금주법의 시대이자 광란의 시대, 세계 제 1차 대전 후의 WASP (White Anglo-Saxon Protestant)로 표방되는 '미국주의'의 시대이자 위선의 시대, 풍요의 시대이자 대공황을 향해 질주하고 있던 불안한 시대였던 1920년대의 본질을 관통하는 작품이었다.

95년 전 오늘, 1920년 1월 16일. 1917년 12월의 회를 통과하고 1919년 1월 비준 절차가 끝난 수정헌법 18조 "금주법 (Prohibition)"이 효력을 갖기 시작한 날이다. 금주법은 1933년 수정헌법 21조에 의해 금주법이 철폐되는 1933년 12월 까지 존속했다. 이 기간 동안 주류의 생산, 유통, 수입 등은 금지되었다. 당연히 상업적 양조장과 증류 공장은 모두 문을 닫았다. (개인이 집에서 소량으로 과일주등을 담그는 것은 예외였다)

금주법의 시기에 사람들은 금주했을까? 당연히 아니었다. 아마 가난한 노동자 계급들은 금주 "당했다." 금주법을 통과시킨 여러 이유 중에는 노동자들의 지나친 음주가 생산 효율을 떨어뜨린다는 식의 '백인 중산층/자본가' 시각에서 형성된 개혁주의 동기도 있었으니, 그 관점에서 보자면 금주법은 성공한 법이었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금주법이 시행되기 직전, 상류층들은 미리 술을 "사재기" 해두었다. 금주법이 알콜의 섭취까지 불법화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개인 창고에 비싼 술을 대량으로 쟁여둔 사람들이 음주할 권리를 박탈당하진 않았다. 심지어 금주법이 수정헌법으로 입법되는 시기 대통령이었던 윌슨도 그런 사적인 주류 창고를 소유했고, 금주법이 시행되던 1920년 선거에서 대통령에 당선된 하딩은 자신의 주류창고를 취임 직후 백악관으로 옮겨왔다.

금주법 시대의 진정한 아이러니는 범죄의 증

가였다. 1920년 당시, 은밀히 술을 훔칠 수 있는 스피키지 (Speakeasy; 비밀 주류 판매점)가 등장하기도 했고, 캐나다나 멕시코 등 인접 국가에서 만들어진 주류를 은밀히 들여와 판매하는 주류 밀수업, 밀주를 만들어 파는 부트리거 (Bootlegger; 밀주업자) 등이 음지에서 번성을 했던 탓이다. 금주법당시의 주류관련 산업이란 음지에서 번창하는 산업이었던 탓에 당연히 그 높은 이익을 둘러싼 각종 조직 범죄를 키우는 역할을 했다.

<위대한 개츠비>의 개츠비는 뉴욕 롱아일랜드에 대주택을 소유하고, 매 주말마다 사치와 향락이 극에 달하는 큰 파티를 열고 수 백명의 사람들을 초대하는 재력가다. 그 어마어마한 부의 정체는 무성한 소문과 선망의 원천이기도 했다. 사실 개츠비가 주말마다 화려한 파티를 여는 까닭은 단 하나, 사랑했던 과거 연인 데이저와의 재회를 노리기 때문이었다. 데이저는 5년 전, 개츠비를 버리고 돈 많은 운동선수 출신의 바람둥이 톱과 결혼해서 개츠비의 집 근방 또 다른 대저택에서 살고 있었던 것. 어쨌거나 소설 속 개츠비는 바로 주류 밀매업을 통해 짧은 기간동안 막대한 재력을 축적할 수 있었다.

소설은 개츠비의 쓸쓸한 장례식으로 끝났다. 사랑하는 여인을 얻고자 황금의 제국을 건설했으나, 과거를 돌이키지도 못하고, 매주 열리던 파티의 수많은 손님 중에 개츠비의 마지막을 함

께 한 사람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미국의 1920년대는, 금주법 덕에 부수적으로 돈을 번 사람들도 있었지만, 불법적인듯 불법 아닌 방식으로 부를 쌓는 사람들은 많았다. 그 1920년대라는 광란의 시대는 누군가에게는 풍요의 시대였는데, 정부가 나서서 "낙수효과 (Trickle Down)" 운운하며 부자들과 기업들의 세금을 알아서 감면해주었다. 반면 '미국주의'의 이름으로 노동자들 계급의 목소리는 이데올로기적으로 불온하고 위험한 것으로 낙인 찍혔고, 남동부 유럽 출신 이민과 아시아계 이민을 제한했다. 그 결과, 노동계급은 소비 여력이 감소했고, 이민의 감소로 인해 미국 전체의 구매력은 더욱 떨어졌다. 각종혜택을 보던 미국의 생산은 결국 소비 지출 감소로 인한 과잉 생산으로, 그리고 대공황이라는 블랙홀로 빠져 들어가고 있었다. 그래도 미국인들은 "번영"의 환상에 젖어있었다.

1920년대는 광란의 시대였고, 풍요의 시대였지만 사실은 상실의 시대였다. (실제로 이 시기 문학의 경향은 1차 세계 대전후의 미국의 황금만능주의와 위선 환멸을 느끼는 "잃어버린 세대 Lost Generation"으로 대표된다).

갑의 횡포에 대한 뉴스를 심심찮게 볼 수 있는 요즘, 갑질의 원천은 대개 경제적 불평등이라는 게 씁쓸한 요즘, 자꾸 미국의 1920년대가 생각이 난다.

휴람제휴
이벤트



한 차원 높은 고국방문 의료서비스 이제 휴람을 통해 이용해보세요!

고국방문 검진&성형&전문치료&피부관리
이제 고민하지 마세요! 신뢰할 수 있는 휴람이 도와드릴 것입니다.

서울메디케어

서울메디케어는 연면적 1000평에 달하는
서부권역최고 최대수준의 **대학병원급 건강검진센터**입니다



서울메디케어 · 휴람 해외등포 특별가 검진 프로그램
(수면내시경 포함 시 10만원 추가)

종류	남자	여자
유선 기본	40만원 → 47만원	40만원 → 59만원
유선 정진	120만원 → 91만원	138만원 → 103만원
유선 MVP	307만원 → 228만원	323만원 → 240만원

SEOUL MEDICARE | 진료시간: 상·하·야간 | 영문: 오전 9시 ~ 오후 6시, 토요일: 오전 9시 ~ 오후 4시, 점심시간: 오후 1시 ~ 2시

휴람 제휴 이벤트

루트모발 이식센터

6명의 모발이식 전문의료진
4개의 모발이식 전용수술실

휴람제휴 해외등포
'특별이벤트'

모발이식 5만원씩 할인
수술후 세정제 3년5천원 Free
생약품을 도와주는 EGF가 3만원 Free

필기	비용	비필기	비용	합계+세합계	비용
4000도	280만원	2000도	400만원	7000도	700만원
6000도	380만원	2800도	450만원	8000도	800만원
		3000도	500만원		

휴람 1주년 기념 특별가 이벤트

새미치과 특별할인

새미의 이벤트

오스셀 임플란트
~~150만원~~
120만원

무삭제 라미네이트
~~80만원~~
60만원

오스셀 미백 1회
~~20만원~~
+1회 제공

고국에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임플란트 시술받으세요!

새미치과에서 머물고도 건강한 웃음을 찾아드립니다.

새미치과 | 임플란트, 차이아터, 저주치료, 상미브릴, 어벤치로

휴람 1주년 기념 특별가 이벤트

에피끄 에스테틱 특별할인

에피끄 에스테틱이 특별한 이유!

- 최신 미용기기 사용
- 1:1 전문관리와 고객이벤트 등
- 동반 미소 스킨 케어 서비스
- 이벤트 최상의 브랜드 사용
-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관리사

<p>스페셜 힐링 케어 - Facial care + Healthy back care - 120 min</p> <p>19만원 → 15만원</p>	<p>스페셜 힐링 스탬프 케어 - Healing scalp care + Facial care - 120 min</p> <p>20만원 → 16만원</p>	<p>스페셜 슬라임 케어 - Facial care + Slimming leg care - 120 min</p> <p>25만원 → 20만원</p>
<p>진심 홈에스틱 아로마 케어 - 아로마 컨설팅 + 진흙보습케어</p> <p>중요인원 → 26만원</p>	<p>진심 고주파 케어 - 고주파 진상케어 + 진흙보습케어</p> <p>중요인원 → 30만원</p>	<p>내피코는 3000여가지 수백종의 이벤트까지 제공하는데요! 이벤트 기간의 특별할인 사상의 최후를 향하여 달려주세요!</p>



미국문의 | 보스톤코리아 617-583-2993
이메일 | huramceo@huram.kr

한국문의 | 82.70.4141.4040 (해외의료사업팀장 김수남)
카카오톡 | 010.3469.4040 / ID: huramkorea

양미아의 심리치료 현장에서

양 미아 Licensed Psychotherapist

Private Practice: 1330 Beacon St.
Brookline, MA 02446
37 Fruit St, Worcester, MA 01609,
508-728-0832
yeungmiaj@gmail.com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가짜에 속지 않는 '마음의 눈'을 키우자.
- 좋은 습관은 행복으로 가는 직행선 I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라는 말이 있다. 습관을 고치는 것은 매우 힘이 든다. 그래서 '작심삼일'로 끝날 때가 허다하다. 하지만, 사람이 마음 먹어 안되는 일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는 '실천'을 66일만 하면 된다. 두 달이면 나쁜 습관은 고쳐진다. 66일의 실천으로 여러분의 생을 행복한 인생으로 바꿀 수 있다면, 해 볼만한 일이 아닌가?

성형외과 의사인 맥스웰 몰츠 박사는 1950년대 환자들을 치료하던 중에 한 가지의 이상한 패턴을 발견했다. 환자들이 성형 수술을 받고 난 후에 새로운 얼굴에 적응하고 익숙해지는데 걸리는 시간이 21일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는 발견이었다. 이 발견을 통해 그는 습관을 버리고 새로운 습관에 적응하는 데에 걸리는 시간이 21일 가량 걸린다는 이론을 발표했다.

2009년 영국 런던대학의 필리파 랠리 교수 연구팀이 습관 형성에 관한 실험을 했다. 새로운 습관을 만들거나 기존 습관을 없애는데 걸리는 시간을 조사한 것이다. 이 연구는 식습관 개선을 위한 연구였지만, 일반적인 습관에도 적용 가능하다. 실험 결과 새로운 행동에 대한 거부감이 사라지는데는 평균 21일이 걸렸고, 66일이 지난 후부터는 그 행동을 하지 않을 경우 오히려 불편함을 느꼈다고 한다. 즉, "어떤 행동을 66일 동안 꾸준히 반복하면 그 때부터는 무의식에 고착되어 습관이 된다"는 것이다.

행복을 부르는 첫 번째 좋은 습관을 소개한다. 하루에 한 번씩 눈을 감고, 사진을 찍어보자. 사진을 찍고 싶은 장소를 설정한다. 눈을 뜨고, 사진을 찍는다. 마음으로 찍고 싶은 사람이나 자연을 눈을 감고 그려본다. 눈을 감고 찍는다. 거의 똑같은 사진을 보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생각해본다.

필자가 이 습관을 제시하는 이유가 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희생을 하고, 사랑을 해도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일이 너무나 많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보는 것에는 몸으로 보는 '육안'과 마음으로 보는 '심안'이 있다. '심안'이 발달되어 있지 않으면, 진짜보다 더 진짜처럼 보이는 가짜를 가려내기가 힘이 든다. '진실한 마음'이 없는 사람과 '일'에 진실을 쏟아 붓는다면, 자신의 진실을 부은 댓가만큼 삶이 침해를 받는 고통을 받는다. (함부러 인연을 맺지마라 -법정)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가짜 사람을 진실한 사람이라 믿고 사랑을 한 크리스티나가 있다. 그의 시골스럽고 촌스러웠던 순박한 모습이 그의 번뜩이는 야망과 차가운 이기적인 성품을 가리고 있는 줄을 몰랐다. 끊임없이 배우려는 모습과 긍정적인 사고를 가졌고, 만나면 따뜻했고, 칭찬을 잘해주었고, 잘 경청했다. 관계가 깊어지면서, 자기 관리에 철저한 그의 냉정함이 보였다. 다른 무엇보다도 자신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이기적인 행동이 보였다.

5년을 만나면서 결혼에 대해, 관계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피했다. 대신, 그의 식구들이 크리스티나를 별로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다정한 목소리로 이야기했다. 화를 낼 수도 없게 친절하게 말을 했다. 또한 그의 무책임, 요리조리 피하는 우유부단함, 교묘하게 자신의 자존심을 죽여버리는 정신적 학대를 보면서도, 5년을 쌓아온 '정'과 여태껏 노력해온 자신의 노력과 정성이 진짜였기에 떠나지를 못했다. 하지만 결국은 버림을 받았다. 그는 스펙 좋은 여자를 만나 6개월만에 약혼하고 몇 달 후 결혼을 했다. 그 이후, 상처받은 크리스티나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의 페이스북에 행복해 보이는 그의 부인 사진을 올리며 자랑을 했다. 테라피 중, 페이스북을 보면 그녀의 깊은 상처에 소름이 쭉뚝하고, 날카로운 칼로 난도질 당하는 아픔을 겪는데도 자꾸 보게 된다며, 그녀의 허무함과 분노와 비참함을 통탄해했다.

'정신질환'을 겪는 딸로 마음고생이 심했던 부부가 새로운 교회를 만든 목사를 만났다. 그는 딸의 병을 그의 은총으로 고쳐주겠다는 말을 하면서 커다란 위안을 주었다. 조그마한 교회였지만, 그 부부는 교회의 중심 멤버가 되었다. 힘들어도 교회에 봉사를 해야 하느님 은총을 더 많이 받게 된다는 말씀을 믿고 수시때도 없이 불려가며 봉사를 했다. 십일조를 내는 만큼 은총이 온다는 말에 빚을 지어가며 정성을 바쳤다. 하지만 아픈 딸이 교회에 오는 것조차 목사는 꺼려했다. 더 친해질수록 요구하는 사항만 늘어났고, 교인들 앞에서 모욕을 주기도 했다. 십년을 가깝게 모든 정성과 노력을 바쳤지만 잘못 선택한 일 때문에 결국 배반감과 울화를 지닌 채 그 교회를 떠났다.

크리스티나와 이 부부는 매우 부지런하고 정직하다. 하지만 '마음의 눈'이 어두워, 진실한 인연이 아닌 어설픈 인연에 자신의 진실을 매진했다. 그 댓가로 고통이라는 삶의 피해를 입었다. 남에게 커보이는 가짜 '나'에 집중하다 작지만 진짜인 '나'를 무시하며 살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지 조심스레 여쭙 보았다. 그들 모두 눈물을 흘리며 동감을 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보기 위해선, 자신이

진짜가 되어 한다. 그러기 위해선 '심안'을 길러야 한다. 심안을 기르기 위해선 좋은 성품을 가져야 한다. 좋은 성품을 갖기 위해서는 '심성교육'이 필수이다. 많은 대상 관계 학자들은 성품은 이미 5-6세에 형성이 된다고 말을 한다. 그렇다면, 부모는 지식이 많아지고 머리가 좋아지는 교육을 열심히 하기 전에, 타인을 배려하고, 정직하고, 책임감을 갖는, 마음이 착한 심성교육을 먼저 가르쳐야 한다. 그렇게 가치관과 도덕관을 튼튼하게 해주면 아이들에게 좋은 씨앗의 좋은 습관이 생긴다. 이렇게 좋은 씨앗을 심으면, 좋은 나무가 될 확률이 훨씬 크다. 그만큼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피사체를 보고 사진을 찍는 사진 작가 김태훈 씨가 있다. 그는 15년 전 추락사고 이후 시력만 잃은 것이 아니라 몸까지 상했다. 7번의 자해와 자살시도를 했고, 정신치료의 하나로 사진 찍는 것이 권유되었고, 그의 사진을 보고 다른 환자들이 공감하고, 눈물 흘리고, 치유를 받으며 행복하게 살고 있다. 또한 그의 사진을 통해 많은 사람들의 상처가 어루만져진다. 눈을 감고 사진을 찍으면서 것처럼 우리의 '심안' 을 보자.



“보스톤엔 보스톤**코리아**가 있습니다”

지난 10여년간 보스톤코리아는 보스톤 언론으로서 외길을 걸어왔습니다.
항상 공정하고 바른 길을 걷도록 여러분께서 지켜봐 주십시오.
앞으로도 보스톤 한인 역사를 공정하게 기록하는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Hanca Education Center
한카교육원 교육프로그램

* 한카교육원은 간이식당과 대형 스크린을 갖춘 멀티미디어룸을 포함
9 개의 강의실을 운영하는 전문가 집단입니다.

캐나다 최고의 교육도시
문화중심 도시 몬트리올!!
세계 최대 이중언어 도시
몬트리올!!


북미의 파리, 몬트리올에서 불어공부하자!

몬트리올 유학은

- 불어와 영어를 사용하는 이중언어 환경에서 수준높은 교육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 한카교육원의 유학프로그램은 북미한인언론인협회(KAFA)에서 인증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몬트리올 유학 프로그램의 특징



초중고 불어학교 / 영어학교 조기유학

- 불어학교 / 영어학교 또는 영.불어 통합학교 중 선택
- 숙소비, 학원, 학비, 홈스테이 비용 포함 관리 유학 연간 \$39,000(CAD)

불어/영어 단기유학

- 현지 공립학교에서 교육

tolerant friendly

불어 & 영어 여름 캠프 2015 June

- 몬트리올의 여름을 즐기며 배우는 불어








성인 불어/영어 직업교육(이후 이민가능)


- 부모 유학비자로 자녀의 공립학교 무상 교육가능(EMS 교육청)

성인 불어/영어 연수

- 불어 교육청 / Language school / etc.

McGill University 입학준비반

- 세계 10대 대학, 저렴한 생활비와 학비





TALK 카톡으로 빠르게 상담하세요
ID : hanca3333

전통의 힘!! 새로운 힘!! 한카교육원에서는 전통과 청신함으로 더욱 강해졌습니다.
한카유학원에서는 조기유학, 영어, 불어, 수학, TEF&Q 등 최고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333 Boul. Cavendish Suite 100, Montréal Québec, Canada H4B 2M5
한카 교육원 http://hancastudy.com

 **CÉH École de Langues/Mathématiques**
HEC Language/Mathematic school
tel: 1.514. 600.3444
070.4498.1106
hancastudy@gmail.com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세
rights reserved
www.billionsfinance.com
248-974-4212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265)

노벨 경제학자의 투자 교훈

캘리포니아를 방문하기 위해 비행기를 타고 가며 읽은 책 한 권을 소개합니다. 저자는 카니맨(Dr. Kahnemann) 교수이며 책 제목은 “생각 - 빠르고 & 느리게 (Thinking-Fast & Slow)” 입니다.

간단한 문제 하나를 먼저 풀어봅시다.

맛있는 빵 하나와 한 잔의 차 가격의 합계가 \$1.10입니다. 빵 하나의 가격은 한 잔의 차보다 \$1.00이 더 비쌉니다. 그렇다면 차 한 잔의 가격은 얼마인가요?

2013년 주식시장(S&P 500 Index)의 연평균 수익률이 32%였습니다. 올해도 평균 수익률이 13%를 웃돌며 금융위기 이후 주식시장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투자자가 주식에 투자해서 자산을 부풀렸다는 말을 듣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한지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카니맨 교수의 투자교훈을 정리해 봅니다.

*투자하는데 가장 커다란 잘못은 욕심입니다. 욕심이 투자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하는 투자는 적당한 타협점을 찾아야 합니다. 카니맨 교수는 우리가 투자 결정을 내릴 때 이성적인 판단보다는 일시적인 감정과 느낌으로 결정을 내린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는 개인의 경험과 지식에 의해서 중요한 투자 결정을 하는데 이러한 경험과 지식이 매우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을 본인이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누구나 “나는 욕심이 많다” 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학회사 연구소에서 현재까지 나온 일반적인 결론은 유망한 주식을 선별한다는 것은 - 주식 선별하는 사람(일반 투자자나 주식 전문가 모두 포함) 본인이 알게 모르게 - 도박처럼 운에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카니맨 교수는 지난 50년 동안 주식 선별에 관한 많은 연구자료를 살펴봤

습니다.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면 “어느 주식을 선택한다는 것은 포커 게임을 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주사위를 던져서 선택하는 행위와 같다” 라고 정의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낙관적인 마음은 중요합니다. 낙관적인 마음은 사업을 시작하거나 하고 있는 사람에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투자하는데 낙관적인 마음은 실패하는 투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모든 투자에는 투자 위험성이 있습니다. 제대로 하는 투자는 투자로 얼마나 불어나는가를 생각하기 전에 투자 위험성이 얼마이고 주식시장이 하락할 때 얼마나 한 타격을 받을 것인지를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데 이러한 점을 일반 투자자는 무시합니다.

*주식시장이 오르고 내림에 너무 민감하면 결국 잘못된 투자로 이어 집니다. 대부분 사람 심리는 같은 비율로 올라간 이익보다는 내려간 손실에 더욱 마음이 아프므로 내려가

는 주식시장에서 잘못된 투자 결정을 내립니다. 이 점은 투자 돈도 문제이지만 더욱 큰 문제는 건강과 삶의 질적인 문제입니다. 주식시장 움직임에 따라서 편안한 잠을 잘 수가 없다면 불안한 마음 때문일 것입니다. 적당한 스트레스는 삶에 도움이 된다고 하지만, 스트레스 대부분은 건강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사실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노력과 타고난 능력 (talent)과 운 (luck)이 따라야 한다고 합니다. 노력은 후천적이므로 누구나 할 수 있다고 가정합니다. 그러나 타고난 재질과 운에 대해서 일반 투자자는 투자결과가 나쁘면 자기의 능력보다는 운이 나쁘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와 반대로 투자 결과가 좋으면 운보다는 본인이 똑똑해서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생각이 투자 위험성을 무시하게 하며 실패하는 투자로 이어집니다.

*과거는 분명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는 “이랬을 걸~” “저랬을 걸~” 하며 후회해 보지만 사실 우리는 지나간 과거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지 우리가 안다고 믿는 것뿐입니다. 2014년 주식시장 상황이 1938년과 비슷한가? 혹은 2007년과 더욱 흡사한가? 라는 질문에 대답하기 어렵다는 것은 과거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카니맨 교수는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무식을 무한하게 무시한다 (almost unlimited ability to ignore our ignorance)” 라고 말합니다.

차 한 잔 가격을 \$10 센트라고 답하기 쉽습니다. 이렇게 답하는 이유는 현대인의 직관적인 마음 때문입니다. 정답은 빵 한 조각 가격은 \$1.05이고 차 한 잔의 가격은 \$0.5센트입니다. 투자는 잘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백성주의 부동산 파라잡기
Direct (617)-921-6979
E-mail: clarapaik@newstarrealty.com

밀레니엄 세대 크레딧 쌓기 서둘러야

[젊은층 주택 구입 힘든 요인]

밀레니엄 세대로 지칭되는 젊은 층의 주택 구입과 관련, 우려가 끊이지 않는다. 밀레니엄 세대는 대학 졸업 후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딘 세대지만 주택 구입에 관한 한 미래가 불투명하다. 번듯한 직장에 취직해도 학자금 융자를 상환하느라 주택 구입 자금 마련이 쉽지 않다. 결국 부모의 집에 다시 들어가 살면서 주거비를 절약하는 젊은층이 늘고 있다. 밀레니엄 세대의 주택 구입을 어렵게 하는 요인과 해결책 등을 알아본다.

■ M세대 주택 소유율 82년 이후 최저

밀레니엄 세대는 1981~1996년 에 출생한 세대다. 빠르면 결혼 후 자녀를 출생한 30대부터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한 20대 초반 연령층의 사회 초년생들이다. 현재 밀레니엄 세대가 한결 같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바로 주택 구입난이다. 젊은층의 주택 구입이 갈수록 힘들어지면서 주택 소유율은 곤두박질치고 있다. 연방센서스국의 통계에 따르면 35세 미만 연령층의 주택 소유율은 약 35%로 1982년 이후 가장 낮다. 나머지 3분의 2에 달하는 젊은층은 사회에 진출해도 치솟는 주택 임대료를 감수해야 하거나 부모의 집에 얹혀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반면 65세 이상의 노년층 주택 소유율은 80% 웃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상대적으로 주택 구입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기 때문이다. 주택 구입 자금 마련 외에도 밀레니엄 세대가 주택 구입을 위해 헤쳐나가야 할 장벽들이 몇 가지 더 있다.

■ 학자금 융자 상황 부담

밀레니엄 세대에게 왜 주택을 구입하지 않느냐고 질문하면 아마도 대부분 학자금 융자 상황에 대한 부담 때문이라고 답할 것이다. 그만큼 학자금 융자 상황 부담에 짓눌려 내집 장만에 대한 꿈도 꾸지 못하는 젊은층이 많다. 대학 졸업 후 직장을 잡아 월급을 받아도 학자금 융자 상황에 매달 수백 달러씩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돈 모으기가 쉽지 않다. 만약 부모로부터 독립해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 젊은층은 주택 임대료에 월급의 대부분을 지출하느라 주택 구입 자금 마련은 멀기만 하다. 이들의 주택 구입을 더욱 짓누르는 것이 있다. 학자금 융자 상황이라는 높은 장벽을 넘고 20대임에도 불구하고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룬 사례도 주변에 적지 않다. 대부분 월급의 대부분을 아껴가며 억척스럽게 다운페이먼트 자금을 마련해서 주택 구입에 성공했다. 집을 구입하겠다는 강한 집념으로 대학 졸업 후 다시 부모 집으로 들어가 얹혀 살면 2년간 월급을 꼬박 저축해 주택 구입에 성공한 사례, 20대 초반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월급의 약 75%를 다운페이먼트 자금으로 쪼뚝 묶어 내 집 마련에 성공한 사례 등이 본보기다. 모기지 대출 은행의 문을 적극적으로 두드려도 주택 구입의 문이 열린다. 첫 주택 구입자를 위한 모기지 프로그램이나 다운페이먼트 비율이 낮은 FHA 융자도 밀레니엄 세대의 주택 구입을 얼마든지 가능케 한다.

■ 크레딧이 부족해서 대학 졸업 후 사회에 갓 진출한 젊은층이 단

기간 내에 크레딧을 쌓는 일이 쉽지 않다. 2009년 발효된 크레딧카드 관련 법안이 21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크레딧카드 발급을 제한하면서부터 밀레니엄 세대의 크레딧 쌓기는 더욱 힘들어졌다. 주택을 구입하려면 다운페이먼트 자금을 마련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크레딧이다. 주택 구입에 대한 꿈이 있는 밀레니엄 세대라면 다운페이먼트 자금 마련과 함께 크레딧을 쌓는 일부터 서둘러야 한다. 자력으로 크레딧카드 발급이 힘든 경우 부모의 보증을 얻어서라도 크레딧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면서 크레딧을 쌓기 시작한다. 주의할 점은 주택 구입 목적을 위해 크레딧카드를 적절히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크레딧 쌓기를 위한 크레딧 카드를 사용하는데 연체가 발생하면 모기지 대출이 오히려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신용평가기관 익스페리언에 따르면 X세대와 베이비부머 세대의 평균 크레딧 카드 부채액은 약 5,000달러지만 밀레니엄 세대는 절반 수준인 약 2,682달러다. 반면 밀레니엄 세대의 크레딧 카드 연체율은 최고 4배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 중·소형 은행 통해 FHA융자 공략

밀레니엄 세대의 주택 구입 때 대형 은행보다는 중·소형 또는 지역 은행의 문을 두드리는 편 유리하다. 밀레니엄 세대의 대형 은행이 적용하는 까다로운 모기지 대출조건을 갖추기 쉽지 않은 반면 지역 은행이나 소형 은행은 대출기준이 덜 까다롭고 젊은층의 모기지 대출

에 보다 적극적이다. 밀레니엄 세대의 첫 주택 구입에 최적화된 융자가 FHA 융자다. 다운페이먼트 비율이 낮아 다운페이먼트 마련에 대한 부담이 적고 크레딧 점수 기준도 낮아 젊은 층의 주요 주택 구입 수단이다. 첫 주택 구입자를 위해 고안된 FHA 융자는 과거 3년간 주택 소유 기록이 없으면 첫 주택 구입자로 간주한다. 다운페이먼트 비율은 잘 알려진 대로 주택 구입 금액의 최저 3.5%로 낮고 크레딧 점수도 최저 580점만 넘으면 신청이 가능하다. 주택 구입을 계획 중인 밀레니엄 세대라면 아예 처음부터 FHA 융자를 목표로 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백영주

Clara Paik
Principal Broker
Boston New Star Realty Branch Owner
New Star Realty & Investment
Realtor, ABR., GRI.
Multi-Million Dollar Sales Club, Top 25 Individual of 2006, 2007, 2008, Re/Max New England, Association of Board of Realtors, Massachusetts Association of Realtors, Boston Real Estate Board.
Office 617-969-4989, 781-259-4989
Fax 617-969-4959, 781-259-4959
Cell 617-921-6979, 978-239-0141
E-mail: clarapaik@newstarrealty.com
Website: ClaraPaik.com & newstarrealty.com

앤티비(*enjoy & TV*)가 티보 플레이(TBO Play)로 새롭게 도착합니다

더 좋은 서비스로 여러분께 보답하겠습니다



Welcome, **TBO**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문의 및 연락처
 보스톤코리아 TV 사업국
617.955.9112
 지금 연락하세요

무제한 시청 월 \$37.99



공중파, 케이블, 최신 영화, 뮤직비디오 까지 대한민국 모든 방송 콘텐츠를 모두 즐기는 The Best On-Demand. TBO
 집에서 TV처럼 편하게 IPTV TBO Play, 온라인으로 언제 어디서나 TBO 내 손 안의 미디어, TBO Touch (출시예정)까지 다양하게 즐기세요.

The Best Ondemand, **TBO**

정준기 원장 교육 컬럼

명문 보딩학교 지원서 작성 요령

정준기 원장 (보스톤 교육원)
 Tel: 339-234-5255 / 5256 / 5257
 Fax: 339-234-5258
 Email: bostoneducation@hotmail.com
 Web: bostonedu.org



최근 몇년간 미국 보딩학교들의 원서가 여러 형태의 그룹으로 바뀌면서 지원자들이 혼돈스러워 하고 있다. 원서는 학교가 추구하는 성향과 가능성을 가진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한 가장 일반적인 질문서면서 학생들의 기본 능력을 평가하는 중요한 평가서다. 원서는 크게 Gateway와 SAO로 분류되고 있다.

SAO의 원서는 하나의 에세이만 쓰면 원서가 끝나는 형태로 각 학교의 특징에 맞게 원서를 쓰는 데는 한계가 있기에 확실한 자신의 재능과 성향을 포트폴리오와 이력서를 만들어 제출해야 한다. 원서가 학생들의 깊이를 평가하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추천서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하는 원서 형태다. 대신 SAO원서를 사용하는 학교는 지원이 매우 용이하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는 편안하게 여러개의 학교를 동시에 지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원서는 지원하는데 급급하기보다 원서 작성 과정을 통해 학교를 알아가는 중요한 첫단계기에 일반적인 것들을 질문하는 원서에 맞춰 원서를 작성하다 보면 학교에 맞는 원서가 나올 수가 없게 된다. 과연 SAO원서를 사용하는 학교들에게 지원자의 색깔과 학교가 뽑고자 하는 학생기준에 적합한 지원자가 되기 위한 조건과 원서 작성은 어떻게 해야 할까?

인터뷰 전 학교가 어떤 형태의 원서를 사용하는지를 먼저 파악하고 SAO원서를 사용하

는 학교 인터뷰 시 가능하면 최대한 자신의 색깔을 학교에 강하게 호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관심 있는 분야의 선생님들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해야 한다. 원서 작성시에는 SAO원서를 사용하는 학교들 중 자신이 지원한 학교들 리스트를 잘 점검하여 공통적으로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한 점과 본인이 가장 강조하고 싶은 점을 잘 조합하여 원서를 작성해야 한다. 원서 작성시 1. 아카데미 능력과 재능 2. 보딩 경험과 캠퍼스 적응력(독립심과 리더십) 3. 매시즌별 스포츠 활동과 교외활동 참여 4. 공동체 공헌도등을 고려하여 원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한 가지 조심해야 할 사항은 다양한 흥미와 재능을 보여주기가 한 분야의 깊이를 보여주면 그 재능을 키워 줄 수 없는 학교는 입학할 거절하기 때문에 다양한 흥미와 깊이를 보일 수 있는 원서 작성이 필요하다.

Gateway 원서를 작성하는 학교는 많지만 대부분이 미국 최고 학교들이다. 공통 원서와 학교 자체 원서로 분류되어 학교별 많은 양의 에세이를 써야 한다. 어떤 에세이는 대학 에세이보다 어려운 질문이 있고, 어떤 에세이는 창의적이면서 학생의 작문 실력을 정확히 보고자 하는 에세이 등으로 분류되어 있다. 에세이 질문을 통해 학생이 얼마나 특정분야의 재능과 열정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탄탄한 작문 실력을 지원자들에게 은연 중에 요구하

는 학교들이다. 대부분 Gateway지원서를 사용하는 학교들은 실제로 학교 영어 프로그램이 매우 강하고 에세이 양도 많아 학생들이 주어진 시간을 잘 조절할 줄 알면서 수준 높은 에세이를 쓸 수 있는 학생들을 선호하는 학교들이다.

원서상으로 교외활동에 대한 깊이와 능력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형태로 리더쉽, 경쟁력, 재능을 강조하는 원서로 마치 미국 대학 공통 원서를 보는 듯한 원서 양식을 사용하고 있다. 원서는 교외활동 분야는 리더쉽을 가장 많이 강조하고 많은 시간을 할애한 활동을 위주로 작성을 해야 한다. 에세이는 학교의 특징을 먼저 잘 살펴본 후 지원자의 성향과 가장 잘 맞는 분야를 강조하여 에세이를 쓰도록 하자.

일반적으로 모든 지원자들이 공통적인 질문에 각자 자신을 가장 잘 알릴 수 있는 방법으로 원서를 작성하지만 실제로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원서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학생의 능력과 약은 학교 선생님의 추천서에 의지하는 방법밖에 없기에 입학 확률이 상대적으로 낮아진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원서 작성 요령.

1. 자신의 모든 경력을 세부적인 내용과 투자한 시간을 총 정리하여 이력서를 만들어 본다. 특별재능, 예를 들면 음악, 미술, 체육, 과학, 디베이트 등의 활동이 많다면 일반 이력서

와 함께 분야별 전문 이력서를 따로 만든다.

2. 학교투어와 인터뷰 후 정리된 학교의 특징을 잘 살펴 본다. 그리고 각 학교별 특징과 프로그램에 대한 공통 분모를 찾아 자신의 활동을 대비해 본다.

3. 자신의 색깔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에세이를 요약해 본다.

4. 이력서를 통해 자신에게 가장 소중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교외활동을 다시 정리한다. 물론 이력서와 다른 형태로 원서에 맞게 올바른 단어 선택과 특징을 잘 묘사한다. 잘 선정된 교외활동 리스트를 균형 있게 표현되고 선택이 되었는지 모든 리스트를 컴퓨터에 입력하지 말고 살펴본다. 그리고 자신만의 특징과 색깔이 있는지를 부모님, 본인,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께 최종 점검을 받아 보고 원서 작성을 한다.

5. 에세이는 원서에 표현되지 않은 자신만의 색깔을 가장 사실적으로 묘사한 경험과 그 경험을 통해 무엇을 배우고, 앞으로 새로운 공동체에 지원자가 어떻게 공헌할지를 표현한다. 모든 에세이는 추상적인 개념보다 지원자의 실질적인 경험을 쓰도록 하고, 원서의 질문에 대한 답은 정답이 없기에 가장 소중한 것과 리더쉽 위주로 작성을 한다. 그리고 에세이는 작문 경시 대회가 아니기 때문에 학생 수준에 맞게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서 표현하도록 하자.



독자기고 김철

미국서부 지질학기행 만리길 3

8. 후버댐을 지나 라스베가스에서 BACK2BOSTON

그랜드 캐니언이 위치한 아리조나주와 라스베가스가 있는 네바다주 사이에 흐르는 콜로라도강을 막아 후버댐을 1936년에 건설했다. 자세한 설명은 두산백과사전을 인용한다.

“높이 221m, 기저부 너비 200m, 저수량 320억m3. 애리조나·네바다 양 주(州)에 걸쳐 있으며, 콜로라도강 중류의 그랜드캐니언 하류, 암석사막지대에 있다.

최대출력 135만kW의 발전, 임피리얼 계곡 방면으로의 관개, 콜로라도강 하류의 홍수 방지를 위해 건설된 것으로 테네시강(江) 유역 개발과 함께 뉴딜(New Deal) 정책의 일환으로 조성된 다목적 댐이다. 아치형 콘크리트 중력 댐으로, 1936년에 완성되었으며, 당시에는 세계 제일의 규모를 자랑했을 뿐만 아니라 건설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을 촉진했다. 처음에는 ‘볼더댐’ 이라고 했으며, 부근에 댐 종사자들이 거주하는 볼더시티가 건설되기도 했다.

1947년에 제31대 대통령 후버를 기념해서 개칭되었다. 저수지인 미드호(湖)는 아프리카의 카리바호(湖)·나셀호(湖)에 이은 세계적인 인공호로 부근 일대는 미드호 국립레크리에이션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행락 도시인 라스베이거스와도 가깝다” .

라스베가스는 보스톤행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하룻밤 묵었을 뿐 빠짱코니 카지노니 하는

것들과는 코드가 서로 사맛지 아니 하기 때문에 아예 관심조차 주지 않았다. 이곳은 숙박 비용이 매우 싼 편이다. 그 이유야 쉽게 이해될 수 있지 않을까?

욕망의 도시에서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오른다. 행복이란 가진 것을 갖고 싶은 것으로 나는 값이 아닐는지?

보스톤까지는 직항이 없어서 미니애폴리스에서 환승해서 오다보니 거의 하루 종일 걸려서 밤 9시에야 보스톤에 도착했다. 물론 세 시간의 시차가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린 셈



이다.

9. 만리길 지질학기행을 마치면서

지도의 저 북쪽부터 형광펜으로 표시된 길을 따라 달린 여정, 대충 3-4000km쯤 뒤편 만리길이라 불러도 크게 틀리지 않으리라.

나무와 풀이 자라는 옥토는 몽땅 백인들이 다 빼앗아서 공원처럼 꾸며놓고 우아하게 살아가고 있고, 풀 한포기 자라기 힘든 사막지역은 백인들의 탐욕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기에 어렵게 남겨져서 원주민 자치지역이나 보호구역으로 보존되고 있는 현실에서 느끼고 깨닫는 게 없을 수 없다. 힘만이 정의이고 진리라는 평범하고 불편한 사실을 떠올리게 된다. 중력과 만유인력이 지배하는 우주의 질서가 그러하니 피할 길이 없겠지.

이렇게 긴 여정을 처음 기획한 사람은 사위이다. 내가 옐로스톤에 관심이 있는 것을 알아차린 사위가 우리 내외를 다시금 손자를 돌봐주기 위해서 보스톤으로 불러들이기 위한 애교 넘친 작전이었던 셈이다. 내친김에 유명한 곳을 자주 추가하다 보니 이렇게 길어졌다. 서울에서 바로 오는 바람에 시차 때문에도 더 고생이 됐지만 여행으로부터 얻은 보람이 더 컸다. 여행 중 음식 고생은 네 살배기 손자가 제일 심했던 것 같다. 도중에 한식집이 없어서 일주일 가까이 피자 와 햄버거 등으로 연명하며 고생하다가 라스베가스에 와서야 이조라는 곰탕집에 들러서 저녁을 먹는데, 글썽 손자가 불고기와

김치로 어른 밥공기 하나를 다 비우는 게 아닌가?

우리말에 “남는 장사” 라는 말이 있다.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을 지불하고도 이번 여행길은 넉넉히 남는 장사가 된 값진 여행길이었음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다.



www.pospay24.com



POS Pay

작전타임 한번
불러보시죠?

사업도 성공하기 위해선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 타이밍이 지금입니다.



Agent / 상담원 모집

TEL **617-466-2212**

TOLL FREE **888-604-2190**

150 Eastern Ave #2FL Chelsea, MA 02150

사업의 시작은

Lee Associates

이경해 부동산

1.800.867.9000



Broker & Realtor(1985년부터 보유) 사업 및 부동산 무료 상담

비즈니스 용자 알선:20% 현금다운, 크레딧 700+
상가건물,콘도,아파트건물 투자하실 분 환영
1031 Exchange(상가건물세금혜택)서비스
미 전역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E2비자 사업체 전문,비즈니스 무료상담
크고작은 세탁소들,런드로맷(Laundromat) 많음
주유소,식당,편의점,주류판매점등 다양한 사업체
항상 리스팅 80-100 보유

Cell.....508.962.2689
Tel.....781.297.5679
www.leebrokers.biz
Email..kayleebrokers@aol.com

보스톤북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150,000+
노퍽 새 기계, 새 셔츠유닛, 부유한 동네

보스톤 세탁소 Full Plant, 연매상 %150,000, 소유자 32년만에 은퇴

스프링필드 지역, 부동산, 세탁소+셔츠유닛, 연매상 \$260,000
21E Test 완료, 은행융자 가능

보스톤 남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110,000 매매가격 \$39,000

동양 그로서리, 연매상 \$415,000 다운타운 보스톤

보스톤 서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180,000 이상 소유자 은퇴

런드로맷, 여러 장소, 다양한 규모, 연매상 \$60,000 - \$180,000

보스톤 북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220,000+ 소유자 은퇴

커피 카페, 캠브리지 하버드 법대 근처, 매매가격 \$100,000

보스톤 남쪽 아이스크림, 연매상 \$400,000 프랜차이즈

보스톤 고급 몰 커스텀주얼리 연매상 \$180,000 좋은 매매 가격

뉴햄프셔 세탁소 Full Plant 급매매, 연매상 \$120,000 매매가격 \$69,000

보스톤 북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250,000 소유자 은퇴

다운타운 보스톤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250,000 금액 협상가능

뉴햄프셔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100,000+

뉴햄프셔 드랍오프 스토어, 연매상 \$82,000 매매가격 \$35,000

세탁소 뉴튼지역, 연매상 \$180,000+ 매출 계속 증가, 내부 리모델 완료

스넥(프레첼)가게, 매매가격 \$39,000 연매상 \$300,000 주인 부재

뉴햄프셔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170,000 소유자 은퇴

요쿠르트, 아이스크림 연매상 \$65,000 좋은 매매가격

드롭오프 스토어 연매상 \$155,000+ 부유한 동네

알링턴지역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245,000 변화가 좋은 위치

메인주 포틀랜드지역 컨비니언스, 연매상 \$600,000 E-2 비자 가능

보스톤 북쪽 세탁소 Full Plant 연매상 \$360,000 매매가격 \$235,000 소유자 은퇴

보스톤 북쪽 아침, 점심 5일 오픈, 건물안 위치 연매상 \$180,000, 좋은 매매가격

뉴튼 세탁소: 연매상: \$120,000+ 훌세일: \$100,000 오너 파이낸스(50%)



명문 중.고.대학 진학상담및 수속

전문적인 맞춤형 진학상담
최고 에세이 편집자
최고 전.현직 입학 담당자 상담

섬머/윈터 프로그램

전문적인 관리및 실질적인 프로그램
MIT/Harvard 특별 프로그램
다양한 주말 프로그램

가디언 업무

수시 교사 면담및 성적관리
아카데믹 로드맵 작성및 실행
다양한 경시 대회준비, 섬머및 교외 활동

아카데믹 프로그램

SAT 1, 2/AP 수업

최고 전문가들의 강의
단기 고득점 완성
실전 문제 중심 수업
상시 참여및 주말수업 가능
개인 및 스카이프 수업 가능

학업 과목 개인과외 가능

영어, 수학, 과학, 외국어, 역사,
경제, 심리학, 기타 과목들
개인및 스카이프 수업 가능

2월Winter Break Program

기간: 2.14(토)~22(일)(9일간)

3.14일 SAT시험을 대비한 집중반

SAT I Class

-각 파트별 균형잡힌 시간배분
(CR:5일, W:2일, Math:1일)
-실전문제풀이 중심의 수업
-종일 프로그램(9:00-5:00)
-실력있는 강사진

SAT II subjects class

Math IIC, Physics, Chemistry

*5월AP,the national Spanish &Latin exam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한 개인지도 가능

2016 College Process

대상: 11 학년

모집기간: 2015년 2월 말까지

경시대회준비

수학 경시 준비(AMC/AIME)

외국어 경시 준비
(Latin, Spanish, French)

과학 올림피아드 준비
(생물, 물리, 화학)